

<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시장과 경제

일시 : 2013년 6월 11일(화), 13:30~18:00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전주역사박물관·전주학추진위원회

학/술/대/회/ 일/정

13:00~13:30 등록 및 접수

□ 개관 11주년 기념식

13:30~13:50	개회식	진행 / 홍성덕(전주대학교)
	개회사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	
	환영사 이태영(전주학추진위원장)	
	축사 송하진(전주시장)	
	송성환(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 특별전 개막식 || “조선의 3대 시장, 전주장全州場”

13:50~14:20 특별전 개막식 및 전시관람

□ 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시장과 경제”

진행 /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

14:30~15:00 주제발표 1 _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발표 _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 토론 _ 원용찬(전북대학교)

15:00~15:30 주제발표 2 _ 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상권
발표 _ 양미경(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_ 홍성덕(전주대학교)

15:30~15:40 휴식

15:40~16:10 주제발표 3 _ 광복 후 전주의 시장과 상인
발표 _ 구혜경(전북대학교) || 토론 _ 함한희(전북대학교)

16:10~16:40 주제발표 4 _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그 변화
발표 _ 소순열(전북대학교) || 토론 _ 김민영(군산대학교)

16:40~17:00 휴식 및 장내정돈

17:00~18:00 종합토론 좌장 /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목 / 차

■ 주제발표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_ 김대길	9
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상권 _ 양미경	33
광복 후 전주의 시장과 상인 _ 구혜경	59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그 변화 _ 소순열	79

■ 종합토론 111

원용찬(전북대학교), 홍성덕(전주대학교), 함한희(전북대학교), 김민영(군산대학교)

주제 발표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김대길*

<목 차>

- I. 머리말
- II. 전라도 지역의 장시 설립과 확산
- III. 전주지역의 장시 발달과 시장권 형성
 - 1. 장시 발달의 사회 경제적 배경
 - 2. 장시 발달과 시장권 형성
- IV. 주요 생산물의 상품화와 유통의 확대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지방의 상업은 장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에서 정기 시장으로 처음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별다른 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인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직접 교역하는 곳이었다. 장시는 성립 초기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정기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없던 형태의 시장이었다. 장시는 場門 또는 墟市¹⁾라고 하였으며, 한양의 시전을 京市라고 한 것에 비해 지방에서 열리는 시장이라고 하여 鄕市²⁾라고도 하였다.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1) 墟市로 기록하고 있는 사례는 『성호사설』권13, 人事門 墟市條, 『大麓誌』墟市條, 『林川邑誌』墟市條 등에 보인다.

2) 鄕市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중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서 볼 수 있다.

장시는 여러 가지 제약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장시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시 사이의 연계성이 긴밀해지고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게 되면서 국지적으로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상호 경쟁관계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시의 신설, 소멸, 통합, 흡수, 이설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장시는 대동법 실시, 금속화폐의 유통, 통공발매의 실시 등의 영향으로 더욱 성장하며 지방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조선후기 각 지방의 장시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문화의 전파 등 지역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아 갔다. 정부에서도 장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장시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장시 성립의 기반과 전반적인 발달양상이 분석되었고,³⁾ 도 단위 또는 보다 작은 지역 단위의 사례연구도 진행되었다.⁴⁾ 그리고 상인의 활동이나 상품유통과 관련하여 장시의 변동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도 하였다.⁵⁾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15대 장시의 하나로 전라북도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곳에서 성장한 전주장의 성립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내용, 지역적 특수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라도 지역에서 장시가 가장 먼저 성립하는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전주 지역에 장시가 개설되었던 시기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주 지역의 장시 개설상황과 변동 양상, 시장권 형성, 상품유통의 추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전주 지역의 장시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 위상은 어떠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라도 지역의 장시 설립과 확산

3)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가 참고 된다. 한상권, 「18세기말~19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7, 1981 ;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57, 1987 ; 이현창,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18, 1994 ;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4) 전북 지역의 시장 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고 된다. 오영모, 「李朝時代의 전라도 도시연구」, 『전북대논집』18·19, 1976·1977 ; 윤원호, 「조선시대 전북지역의 경제」, 『전라문화논총』2집, 1988 ; 소순열, 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2003 ;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全州府城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 고성호, 「조선후기 지방 장시의 분포와 특징-전주·남원을 중심으로-」, 『대동사학』3집, 2004.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 된다. 이병천, 「조선후기 상품유통과 旅客主人」, 『경제사학』6, 1983 ; 이세영, 「18·9세기 곡물시장의 형성과 유통구조의 변동」, 『한국사론』9, 1983 ; 고동환, 「18·9세기 外方浦口의 상품유통 발달」, 『한국사론』13, 1985 ; 오 성, 『조선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1989.

조선시대 정기시장인 장시는 성종 원년(1470) 전라도 지역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지역으로 務安과 羅州지방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개설되고 있었다. 먼저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호조에서 장시개설의 폐단 여부를 보고한 시점이 성종 3년(1472)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장시가 개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전교를 받드니, ‘폐단을 진술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라도 務安 등 모든 고을에서 상인들이 場門이라 일컫고 여러 사람이 모여 폐단을 민간에 끼친다.」 하니, 장문을 폐지해야 하느냐 두어야 하느냐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으므로, 신 등이 전라도 관찰사 金之慶에게 移文하였더니, 김지경이 보고하여 이르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인민이 그 고을 길거리에서 場門이라 일컫고 매월 두 차례씩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비록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꾼다고 하나, 근본을 버리고 末業을 따르는 것이며, 물가가 올라 이익은 적고 해가 많으므로, 이미 모든 고을로 하여금 금지시켰다.’ 하였습니 다. 청컨대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엄중히 금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⁶⁾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문으로 일컫는 시장이 전라도 무안 등 많은 고을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성종은 장시 개설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이에 호조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인 김지경에게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김지경의 보고에 의하면 비록 유무상통하는 有用한 점이 없지 않으나 末業을 따르는 것이고 물가가 오르는 등 폐단이 적지 않아 모든 고을로 하여금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김지경의 보고를 수용하여 호조도 장시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성종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장시가 처음 개설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성종 4년(1473) 申叔舟가 화폐의 통용이 어려운 사정을 지적하는 내용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화폐가 행용되지 않는 데에는 그럴 까닭이 있습니다. 京城 이외에는 市鋪가 없으니, 화폐가 있더라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화폐가 행용되도록 하고자 하여도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는 백성을 소요하게만 하는 법이 될 뿐입니다. 화폐가 행용되게 하는 방법은 京外에서 시포를 열어 백성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자면 물건을 날라 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돈의 유통에 힘입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화폐는 반드시 市鋪가 있어야 통용

6) 『성종실록』권20, 성종 3년 7월 임술

된다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시포를 설치하는 것은 인심의 소원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경인년(성종 원년, 1470)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라도의 백성이 스스로 모여서 시포를 열고 場門이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힘입어 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방에 시포를 설치하는 기회였으나, 戶曹에서 守令들에게 물으니 수령들이 利害를 살피지 않고서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다들 금지하기를 바랐으니, 이는 상습만을 좇는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羅州牧使 李永肩은 금지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호조에서는 굳이 금지하여 천년에나 한 번 있을 기회를 잃었으니 아까운 일이었습니다.……이제 외방의 큰 고을과 백성이 번성한 곳에 市鋪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되, 강제로 시키지 말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여 민심이 향하는 바를 관망하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⁷⁾

앞서 살펴 본 호조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장시가 열린 시기가 성종 3년 이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분명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성종 4년 신숙주가 지적한 것에 의하면 전라도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 장문을 열었던 때는 경인년(1470)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더욱이 호조에서 장시가 개설되는 지역의 수령들에게 利害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나주목사 이영전은 장시 개설을 금지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이는 장시 개설이 부정적인 요소 이외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없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1470년 어느 시점부터 성종 3년(1472년) 관찰사 김지경이 금지시키는 시기까지 줄곧 전라도내 여러 지역에서 장시가 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시가 처음으로 개설되는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와 관련하여 앞의 두 기사와 함께 중종 4년(1509) 대사헌 權弘이 장시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라도에서 場門을 만든 것은 서울의 저자와 같습니다. 예전에 高台弼이 관찰사가 되어, 흉년 든 것을 계기로 하여 장문을 설립해서 진휼하는 방식을 삼았던 것인데, 근본(농업: 필자 주)을 힘쓰는 사람은 적고, 末業(상업: 필자 주)을 좇는 사람은 많아서, 이 때문에 도적이 많이 발생하오니, 청컨대 감사에게 下諭하여 혁파하소서.⁸⁾

위의 내용에서 전라도 관찰사였던 고태필이 흉년을 당해 장시를 설립하여 飢民을 진휼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고태필이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되는 것은 성종 원년(경인년;

7) 『성종실록』권27, 성종 4년 2월 임신(11일)

8) 『중종실록』권8, 중종 4년 6월 갑자

1470) 4월 12일이고, 4월 16일 하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⁹⁾ 성종 원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凶荒은 전년부터 계속되고 있었고,¹⁰⁾ 특히 삼남지방이 극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이 혹심하였다.¹¹⁾ 그리고 나주·광주·무안·함평 등 20여 읍의 피해는 더욱 심한 상태였다. 전라도 지역 주민들은 慶尙道界까지 왕래하며 필요한 물품을 교역하였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무안·나주 등 여러 고을의 민인들은 기존의 유통기구와는 별도로 교역처를 마련하여 한 달에 두 차례 유무상통하며 대홍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였던 고태필은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장시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¹³⁾ 고태필은 약 2년간 전라도관찰사로 재임하였으며, 성종 3년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겸 황해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¹⁴⁾

고태필의 후임으로 공조참판 김지경이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¹⁵⁾ 그는 조정에서 자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직을 요청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는 후 7월 24일 하직하고 임지로 떠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종 3년(1472) 7월 27일 호조의 보고에 의하면 김지경이 전라도내 여러 고을에 개설되어 있는 장시를 모두 금지시켰다고 하였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김지경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장시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들어 금지조치를 한 것이다.

요컨대 전라도내 지역에 장시가 처음으로 개설된 시기는 고태필이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성종 원년(1470)이었다. 장시가 개설되었던 지역은 무안과 나주를 비롯하여 다른 고을에서도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정기시장이 열리는 곳은 점차 많아졌다. 이후 장시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조정에서도 논의되었고, 김지경의 보고를 받은 후 장시개설을 금지시키게 되었다.

한편 전라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라 이 지역의 장시 개설을 엄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성종 7년(1476) 전라도 관찰사 金順命에게 下書하여 장시개설 금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일찍이 本道の 場門市를 금하게 했는데, 지금 들으니, ‘이익을 좋아하는 백성이 다투어 나가서 그치지 않는다.’ 하니, 本業을 버리고 이익만을 좇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매우 아릅

9) 『성종실록』권4, 성종 원년 4월 경신 ; 원년 4월 갑자.

10) 『성종실록』권6, 성종 원년 6월 을묘.

11) 『성종실록』권7, 성종 원년 8월 갑진.

12) 『예종실록』권3, 예종 원년 2월 계축(28일)

13) 이경식, 「16세기 場市の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57, 1987, 47~48쪽 참조.

14) 『성종실록』권18, 성종 3년(1472) 5월 임자.

15) 『성종실록』권19, 성종 3년 6월 갑오(29일).

운 일이 못된다. 지금부터는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¹⁶⁾

기존의 장시개설을 금지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므로 엄금 방침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후의 기록을 보면 장시개설에 대해 크게 달라진 상황을 볼 수 있다. 성종 18년(1487) 전라도관찰사 김종직이 장시의 폐지 여부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本道에서 도둑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한 것은 場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얻은 贓物을 장문에 팔기 때문에 수색하여 잡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그옥이 생 각하건대, 흉년에는 장문이 救荒에 유익하므로 폐할 수 없으나 금년은 비가 흡족하게 내려서 풍년들 조짐이 있으니,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보아서 임시로 장문을 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¹⁷⁾

이 기록을 통해 장시 개설 여부가 농사의 풍흉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흉년일 때는 장시개설이 구황에 유익한 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고, 풍년일 때는 임시로 폐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역시 “場門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역하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니, 폐할 수 없다.” 고 하여 장시 개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시출현 직후 강력한 금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성종 후반부터는 장시 개설에 대해 비교적 미온적인 시책으로 전환되는 것은 농민교역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¹⁸⁾

장시 개설을 금지시키는 가운데서도 시장이 새롭게 개설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중종 9년 대사간 崔淑生이 국정 운영 등에 대해 12가지 일을 상소하였는데, 그 가운데 장시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을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사는 백성의 근본이고 衣食의 근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데 먼저 할 일ियो 진실로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몸에 땀 흘리고 밭에 흙 묻히는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밭에 흙 안 묻히고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리어 넉넉하고 富饒하므로 서로 다투어 소를 팔아 말을 사서 行商을 일삼게 되니, 밖으로 場門에는 奸盜가 寄生하고 안으로 市井에는 濫僞가 모입니다. 작은 마을과 좁은 골목이 모두 시장이 되어서 이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6) 『성종실록』권72, 성종 7년10월 계사(23일).

17) 『성종실록』권204, 성종 18년 6월 무자(20일)

18) 이경식, 앞의 논문, 87쪽 참조.

이것이 날마다 성하고 달마다 불어나니 本業이 황폐된 것은 실로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商賈를 억제하여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 세운 시장은 또한 마땅히 다 혁파시킴으로써 백성이 농업으로 돌아가게끔 본업을 권장하소서.¹⁹⁾

작은 고을에도 시장이 열리고 있어 농사가 황폐하므로 상인으로 전업하는 것을 억제하고 신설되는 장시를 모두 혁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시가 개설된 고을이 장시가 없는 지역보다 많아졌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종 15년 領事 南袞은 장시가 개설되는 지역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諸道에 모두 場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철저히 금지했는데도 지금은 전날보다 심하여 시장에 나오는 자가 몇 만 명에 이르니, 이는 모두 농사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으로 民事를 방해함이 심한 것입니다.²⁰⁾

남곤이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된 것은 중종 6년 11월이었고, 이듬해인 중종 7년 12월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기까지 1년 남짓 재임하였다.²¹⁾ 장시를 이용하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던 고태필, 김지경, 김종직, 남곤 등이 장시 개설을 금지, 또는 엄금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시 개설이 축소되거나 상인의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았다.

장시 개설은 전라도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중종 11년(1516) 충청도지역에 관찰사 權敏手의 요청에 장시가 개설되고,²²⁾ 경상도 지역에는 명종 원년(1546) 2월 이전에 개설되었다.²³⁾ 경상도 지역에 장시가 개설된 시기는 늦어도 중종 15년(1520) 경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영사 남곤이 “지금 諸道에 모두 장문을 설치하고 있다.” 고 한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종 11년 충청도 관찰사 권민수가 장시 개설을 요청할 때 호조에서 다른 도에도 아울러 설치하자고 청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충청도에 장시가 개설되기 시작된 지 수년 후에 경상도 지역에도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19) 『중종실록』권21, 중종 9년 10월 갑인(25일)

20) 『중종실록』권38, 중종 15년 3월 기유(21일)

21) 『중종실록』권14, 중종 6년 11월 신미(25일) ; 권17, 중종 7년 12월 신해(11일)

22) 『중종실록』권27, 중종 11년 12월 정미(1일).

23) 『명종실록』권3, 명종 원년 2월 무신(21일).

Ⅲ. 전주 지역의 장시 발달과 시장권 형성

1. 장시 발달의 사회 경제적 배경

성종대 장시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던 전라도내 여러 고을 가운데 전주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주에 장시가 개설될 수 있는 조건은 경제적·지리적 위치 등에서 매우 유리하였다. 전주는 조선전기부터 상업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주는 이른 시기에 시전이 개설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의 경우 장시 출현이 경제적으로 큰 변화였지만 전주의 경우는 달랐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주의 지역적 특징을 “인물이 繁浩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古國의 풍이 있다.”거나 “南國의 인재가 몰려 있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며, 가게를 열어 상품을 교역한다.”고 하였다.²⁴⁾ 인구수나 교역되는 물품의 규모나 방법, 그리고 교역장소 등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列肆交易’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곳은 전주를 비롯하여 羅州와 慶州 지역뿐이다. ‘열사교역’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규모가 어떠한 상설점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된 성종 12년(1481)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시전이 설치되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은 한양을 제외하면 평양과 개성 정도였다. 전주 지역에 설치된 市肆는 장시의 성립과 함께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15세기 후반 전주는 전국에서 상업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도회지 중 하나로 손꼽혔다. 각 지역의 장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대개 군현마다 읍치를 중심으로 한 곳 정도 개설되던 장시가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2~3곳으로 늘어나는 지역도 많아졌다.

한편 17세기 이후 상업계에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장시를 통한 상품유통이 활발한 곳에 상설점포라고 할 수 있는 鋪子가 설치된 것이다. 포자가 설치되는 곳은 물화집산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의 상업중심지에 상설점인 포자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포자의 설치는 곧 장시의 상설화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²⁵⁾

24)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 풍속 “人物繁浩 屋相櫛比 有古國之風 南國人才之淵藪 任載用車 列肆交易.”

포자가 설치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동전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종대에도 신숙주가 화폐통용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 市鋪를 설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인조대 상평청에서는 화폐의 통용을 위한 여섯 가지 조목을 포고하여 이를 실행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조목이 주목된다.

넷째, 도성과 외방에 점포를 사사로이 내려는 자는 그 원에 따라 들어준다.

여섯째, 경성에서 팔도에 이르는 길 주변에 있는 각 관아에서는 반드시 점포를 설치하여 돈을 사용할 곳으로 삼게 하였는데, 수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즉시 착실하게 거행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국법을 믿지 않게 만들었으니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뒤로는 느슨히 하지 말고 착실히 거행하도록 한다.²⁷⁾

위의 두 조목은 포자를 설치한 초기에 각 지방의 관아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며 동전유통과 관아재정을 보충하도록 하였으나 수령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동전유통의 일반화와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상설 점포에서 거래할 때 동전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종대에는 동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평안도와 전라도의 전주 지역에 먼저 동전을 사용케 하여 행용의 便否를 알아보게 하였다.²⁸⁾ 그 이유는 전주가 이른 시기부터 市肆가 설치되어 있어 동전을 통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상평통보의 발행과 함께 유통의 확대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각 지역에 상설점포를 설치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동전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주가 동전을 통용하는 시범 지역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이곳에 시전이 설치되어 있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설점이 있다는 것은 5일 간격으로 개설되는 일반 장시와는 달리 항시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숙종 4년 좌참찬 吳挺緯는 동전을 주조하여 통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주전한 것이

25)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160~169쪽 참조.

26) 『성종실록』권27, 성종 4년 2월 임신(11일)

27) 『인조실록』권31, 인조 13년 7월 임술(14일)

28) 『승정원일기』265책, 숙종 4년 6월 3일

많지 않아 널리 통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영의정 許積은 8도의 감영과 병영에 동전을 주조하고 통용하는 便否를 묻도록 하되 평안도가 동전을 통용하기 가장 알맞고, 전주의 경우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상인들이 빈번히 통행하므로 또한 쉽게 통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⁹⁾ 전주 지역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전주 지역에 상설점이 설치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숙종 6년 5월 조정에서 동전유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의정 閔鼎重이 돈을 유통시킬 방법을 주관 당상관에게 물어 처리하기를 청하자, 병조판서 金錫胄가 아뢰기를 “……만약 호남의 전주나 호서의 청주·공주 등지에 가게를 설치, 화물을 쌓아놓고 백성들과 매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의 유통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면 돈을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고, 호조판서 閔維重이 아뢰기를 “전주에는 市廛이 매우 많기 때문에 유통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전라 감사에게 돈을 보내 잘 굴리다가 연말에는 쌀을 사서 會錄함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부터 돈의 가치를 억지로 은을 기준으로 맞출 것 없이 한결같이 민간에서 편리한 대로 하게 하고 이 뜻을 호조에서 市民들에게 명백하게 포고하라. 전주에 가게를 설치하는 일은 감사가 관장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³⁰⁾

위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병조판서 김석주가 포자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전주와 청주·공주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호조판서 민유중이 전주에 시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것, 그리고 숙종이 전주 지역에 포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관장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전주에는 시전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상인과 물화가 集散되고 있어 동전을 유통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기존의 시전 이외에 별도로 포자를 설치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짜의 『승정원일기』 기록을 비교해 보자. 대체로 같은 내용이지만 실록에는 없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승정원일기』265책, 숙종 4년 6월 3일 “左參贊吳挺緯所啓 錢文今已行之 民皆樂用 似無難行之端 而所鑄不多 不得廣行 八道監兵營 亦問其便否 鑄造行用之意 問于大臣處之 何如 領議政曰 他道則當問其便否 平安道則最便於行用 全州 人物繁盛 商賈通行 亦可易行矣 上曰 平安全羅監兵營 皆令鑄之 可也”

30) 『숙종실록』권9, 숙종 6년 5월 신해(23일) “閔鼎重請以行錢變通 詢問主管堂上處之 兵曹判書金錫胄曰……如湖南之全州 湖西之清州公州等處 設鋪積貨物 與民買賣 使知行錢之便益 則可以流行矣 戶曹判書閔維重曰 全州市廛甚多 通貨最易 先送錢文于全羅監司處 善爲轉販 年終買米會錄似便 上曰 自今錢價 不必勒令與銀相准 一從民間所便而爲之 此意自戶曹明白布告於市民 全州設鋪事 亦令監司句管爲之”

① (숙종실록) 閔鼎重請以行錢變通 詢問主管堂上處之 兵曹判書金錫胄曰……如湖南之全州 湖西之清州公州等處 設鋪積貨物 與民買賣 使知行錢之便益 則可以流行矣 戶曹判書閔維重曰 全州市廛甚多 通貨最易 先送錢文于全羅監司處 善爲轉販 年終貿米會錄似便 上曰 自今錢價 不必勒令與銀相准 一從民間所便而爲之 此意自戶曹 明白布告於市民 全州設鋪事 亦令監司句 管爲之³¹⁾

② (승정원일기) 右議政閔鼎重所啓, 行錢事……金錫胄曰,……若於如湖南之全州 湖西之公州・清州等處 設鋪務積 民有所必用之貨物 與民買賣 使知行錢之便益 則似可以漸次流行矣 戶曹判書閔維重曰 錢幣之通行於京中未久 今則惟一任民間之所爲 久而慣熟之後 始可議行於外方矣 大邑設鋪之事 固亦一道 而自京差人 恐亦有不便之端矣 全州市廛甚多 通貨最易 先送錢文于全羅監司處 使之出給全州市民 善爲轉販 或於年終 貨米會錄 則似爲便當矣 上曰 自今錢價 不必勒令與銀相準 一從民間所便而爲之 此意自戶曹 明白知委於市廛 全州設鋪事 亦令監司句 管爲之³²⁾

②의 『승정원일기』 기록을 살펴보면 ①의 『숙종실록』에 빠져 있는 ‘大邑設鋪’・‘全州市民’과 ‘市民’을 ‘市廛’으로 표현한 내용 등이 보인다. 전주가 대읍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전주에 설치된 여러 시전의 상인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숙종 7년 우의정 민정중의 건의로 동전유통의 보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방의 관청 가운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곳에서 동전주조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³³⁾ 이듬해인 숙종 8년에는 전라감사 李師命의 요청에 따라 전라감영에서 돈을鑄造하여 유통하도록 허락하는 조치가 있었다.³⁴⁾ 이에 따라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는 지방관청 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하게 되었다. 이후 중앙과 여러 지방관청에서도 동전을 대대적으로 주조, 유통하게 되었다.

전주는 ‘物衆地大’³⁵⁾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호남은 地大物衆하고, 특히 전주는 대도회로써 돈과 온갖 값나가는 물화가 아울러 모여 機巧가 날마다 발생한다.”³⁶⁾는 표현에서도 각 지역의 상인과 상품이 집산되는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 『숙종실록』권9, 숙종 6년 5월 신해(23일)

32) 『승정원일기』276책, 숙종 6년 5월 23일

33) 『승정원일기』281책, 숙종 7년 1월 16일

34) 『숙종실록』권13, 숙종 8년 11월 계유.

35) 『승정원일기』688책, 영조 5년 7월 25일.

36) 『승정원일기』1440책, 정조 3년 4월 26일 “上曰 湖南地大物衆 全州又大都會也 自古謂以難治 人心土俗 何如 元始曰 俗本獐悍 民尙狡詐 貨財竝至 機巧日生 終是難治之俗矣”

『임원경제지』에는 장시 개설의 전국적인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군현의 대표적인 장시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이하게 전주지역 상업유통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전주는 원격지와의 교역도 촉진되어 중국과 일본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상인들이 모여들고 온갖 상품이 풍부하여 나라 안에서 鉅市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³⁷⁾ 이러한 표현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입지가 다른 지역과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주는 官衙도시인 동시에 상업도시로서 지역적 시장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³⁸⁾ 전주는 감사의 治所가 있는 곳으로 상인들과 온갖 상품이 모여드는 곳이며, 생강과 마늘이 가장 풍성하여 전국에서 사용하는 생강이 모두 이곳에서 생산된 것이라고³⁹⁾ 할 정도였다. 이증환은『택리지』에서 “全州府治는 인구가 조밀하고 재화가 쌓여서 서울과 다를 것 없이 진실로 큰 都會이다.”⁴⁰⁾라고 하여 서울과 비교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내용들은 전주의 위상과 경제적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시 발달과 시장권 형성

전주 지역의 장시는 15세기 후반 읍내장이 개설된 이래 그 수가 증가하였다. 전주 지역에 장시가 개설된 것은 성종대로 볼 수 있다. 명확하게 언급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기록과 정황으로 보아 지나친 단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안과 나주 이외의 많은 지역에도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고 할 때 전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힐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전주에 처음으로 장시가 개설되었을 때 위치는 전주성내였을 것이다. 성내에는 市肆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장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위치는 객사 뒤쪽과 남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L字型 골목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⁴¹⁾

전주는 장시가 성립하고 발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전주는 조선전기부터 가게를 열어 교역하고 있었으며, 물화를 운송할 때 수레를 이용할 정도

37) 『임원경제지』예규지 권4, 貨殖 八域場市條 “北通燕貨 南輸倭產 商旅湊集 百物殷盛 號爲國中鉅市”

38) 오영모, 「이조시대의 전라도 도시연구(二)」, 『전북대논문집』19, 1977, 106~107쪽 참조.

39) 『임원경제지』예규지 권3, 貨殖 八域物產 總論 “全州爲監司所治 商賈所聚 百貨走集 薑蒜最饒 今域中用薑皆全之流溢也”

40) 『택리지』八道總論 全羅道 “府治 人物稠衆 貨財委積 與京城無異 誠一大都會也.”

41) 장명수, 앞의 책, 125쪽 참조.

로 유통량이 적지 않았던 곳이다. 그리고 동전유통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인 시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상품과 상인들이 集散하는 등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접한 군현에 개설된 장시와의 연계성도 더욱 긴밀해졌다. 전주의 장시는 전국에서도 이름난 곳이었다. 숙종 6년(1680) 시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전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힐 정도였다.⁴²⁾

한편 숙종 29년(1703)년 기록에는 장시 개설이 교통의 요충지나 물화유통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산곡간의 외진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⁴³⁾ 이러한 시기에 전주의 장시는 정기시장 단계에서 상설시장화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전주에는 이미 市肆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전주성의 동서·남·북문 밖에 4개의 장시가 개설되어 인근 지역의 장시들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능한 것이었다.

조선후기 여러 자료를 통해 전주지역에 개설되었던 장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전주지역 장시 개설 상황〉

장시명	소재지	개시일	동국문헌 비고	임원 경제지	東興 圖志	읍지
남문장	南門外	2	0	0	0	0
서문장	西門外	7	0	0	0	0
북문장	北門外	4	0	0	0	0
동문장	東門外	9	0	0	0	0
峰上場	東北 30리 鳳翔面	5·10	0	0 (鳳翔場)	0	0
所陽場	東40리 所陽面	1·6	0	*	*	*
仁川場	東北 100리 陽良所面	2·7	0	0	0	0
參禮場	西北 30리 五百條面	3·8	0	0	0	0 (西60리)
沃野場	北60리 北一面	4·9	0	0	0	*
利城場	北70리 紆北面	1·6	0	0	0 (利北場)	*?
伊城場	西20리	1·6	0	*	*	0?
上牙場	北70리 南二面	3·8	*	0	*	
石佛場	西60리 東一面	1·6	*	0	*	

* 장시의 소재지는 『임원경제지』·『읍지』·『조선지지략』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42) 『승정원일기』276책, 숙종 6년 5월 23일

43) 『비변사등록』53책, 숙종 29년 3월 17일

전주의 장시 개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자료는『동국문헌비고』·『임원경제지』·『동여도지』·『읍지』이다. 18세기 후반 전주에 개설된 장시는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11개이다. 이 가운데 전주성의 동·서·남·북문 밖에서 개설되는 4개 장시는 10일마다 열리고 있었다. 27일장과 49일 장이 장소를 달리하여 分設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남문·서문장과 북문·동문장은 장시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남문장과 서문장을 大市, 북문장과 동문장을 間市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동국문헌비고』에는 남문과 서문장을 “兩大市 府南 二日三開市 府西 七日三開市”라고 하고, 북문장과 동문장을 “兩間市 府北 四日三開市 府東 九日三開市”라고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⁴⁴⁾

『동국문헌비고』에서 전주부내 장시를 소개하며 동문장과 북문장을 ‘間市’라고 소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읍치에 신설되거나 분설되는 장시는 대개 ‘大場’·‘小場’ 또는 ‘內場’·‘外場’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주에서는 大場과 ‘間市’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⁴⁵⁾ 이 기록에 따르면 전주부는 2.5일마다 장시가 개설되고 있는 셈이다.

전주의 남문장과 서문장은 27일장이 분설된 형태로 개설되고 있었으며, 북문장과 동문장은 49일장으로 新設되어 다시 분설된 형태가 되었다. 신설된 북문·동문장은 남문·서문장과 개시일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시간적으로 적절한 49일로 개시일을 정하고 있다.

18~19세기 전주의 장시는 11개 또는 8개가 개설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주성 밖에서 열리는 10일장이 4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5일장이었다. 장시가 개설되는 지역은 전주성을 중심으로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권은 서쪽으로는 김제·금구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고산·익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이들 장시는 상호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시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 군현에 개시되는 장시들과도 연계하여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주를 중심한 시장권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랐다. 즉 전주라는 대장시에 상인과 물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주변의 장시와 함께 매일 순차적으로 장이 열리는 형태의 시장권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전주읍장은 5일중 2.5회 장이 열렸다. 그리고 30~40리 내에서 개설되는 봉상장·소양장·삼례장·이성장까지 아우를 경우 5일간 매일

44) 『동국문헌비고』 권165, 시적고 3, 전라도 전주.

45) 장시명에서 장시가 신설 또는 분설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는 영광의 읍내장과 외성장, 광주의 읍대장과 읍소장, 담양의 북문외장과 서문외장 등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46) 고성호, 「조선후기 지방 장시의 분포와 특징」, 『대동사학』3, 2004, 49쪽 참조.

장이 열리는 형국이었다. 거리상 전주읍치에서 60~1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인천장·옥야장·이성장·상야장·석불장 등은 인접한 고산·금구·익산·임실지역에서 개설되는 장시와 연계하여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례장(3·8)은 만경강을 이용하여 익산의 입석장(1·6)·읍내장(2·7)·회화장(4·9)과도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시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설·분설·폐지·통합·흡수·이설·개시일 변경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주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에 수록된 전주지역 장시 가운데 위치와 개시일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먼저 봉상장의 경우 읍지에는 陽井浦場으로 되어 있다고 追記하고 있다. 이것은 봉상장이 처음 개설되었던 위치가 수로와 연결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멀지 않은 곳에 개설되고 있는 參禮場과의 인접성 때문에 봉상으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보인다. 개설장소가 변화하면서 시장명도 함께 변경된 사례이다.

18세기 후반 자료인 『동국문헌비고』에 보이던 소양장과 이성장이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19세기 전반 자료인 『임원경제지』에 상야장과 석불장이 신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읍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신설 장시는 옥야장과 함께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순한 분석이지만 전주 지역에 개설되고 있던 장시의 규모를 인구수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자. 다음 도표는 『호구총수』에 나타난 전주 관내 행정구역별로 호수와 인구수를 정리하고, 해당 지역에 개설되었던 장시를 나타낸 것이다.

<『호구총수』에 나타난 전주의 호구수와 장시 개설 상황>

구분	호수	인구			장시 개설 상황
		남자	여자	소계	
府南面	1,364	2,625	2,598	5,223	남문 大市
府北面	460	719	800	1,519	북문 間市
府東面	572	875	865	1,740	동문 間市
所陽面	1,166	1,893	2,192	4,085	소양장
府西面	1,784	4,059	4,153	8,212	서문 大市
府紆面	390	786	652	1,438	
伊北面	351	507	607	1,114	
紆北面	603	913	881	1,794	이성(이북장)
利西面	317	456	599	1,055	
紆東面	263	343	492	835	

南一面	454	678	636	1,314	
南二面	238	396	382	778	상아장
西一面	466	745	887	1,632	
亂田面	656	751	832	1,583	
伊南面	522	792	863	1,655	
伊西面	504	712	815	1,527	
東一面	477	597	665	1,262	석불장
助村面	818	1,253	1,396	2,649	
回浦面	431	718	986	1,704	
仇耳洞面	1,106	1,435	1,951	3,386	
伊東面	852	1,125	1,108	2,233	
利東面	806	1,091	1,262	2,353	
陽良所面	427	653	769	1,422	인천장
峰上面	1,594	2,427	3,329	5,756	봉상장
草谷面	412	715	763	1,478	
上官面	538	1,171	1,177	2,348	
龍進面	915	1,595	1,797	3,392	
北一面	673	917	994	1,911	옥야장
五百條面	1,053	2,269	2,285	4,554	삼례장
雨林谷面	735	1,172	1,382	2,553	
합계	20,947	34,388	38,117	72,505	

이 표를 통해 장시의 규모와 거래 규모 등을 인구수를 토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역별 상호 연계성 없이 독립적으로 장시가 개설된다고 가정할 때 전주성의 4대문 장시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장시는 거주 인구가 많았던 봉상장이고, 다음으로 삼례장이 성장·인천장의 순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교는 인접한 지역의 인구, 거리,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전주의 장시는 장세문제를 언급할 때도 거론되는 대표적인 장시의 하나였다. 전주는 안성·황주·은진 등의 지역과 함께 장세징수 규정이 마련된 곳으로 알려졌다.⁴⁷⁾ 이들 지역은 모두 장시의 규모나 물화유통량 등에서 15대 장시로 성장한 곳이었다. 전주는 큰都會이기 때문에 장세액이 대단히 많은데 가을과 겨울에는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다.⁴⁸⁾

조선왕조는 17세기 중엽 이래 나타난 상업계의 변동과 장시 개설의 증가에 따라 상업정책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장시개설을 인정하되 장시에 출입하는 상인들로

47) 『비변사등록』81책, 영조 3년 5월 8일.

48) 『비변사등록』89책, 영조 7년 6월 21일.

부터 일정한 장세를 징수하는 것이었다. 앞서 조정에서 장시문제를 거론할 때 도적발생이나 물가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숙종대 후반부터는 대체로 장세에 대한 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세는 지방관아 재정수입의 일부로 보충되는 잡세의 일종이다. 장세는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개 화폐로 징수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주로 현물형태였다. 더욱이 장세는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징수하였기 때문에 장세액이나 징수방법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⁴⁹⁾ 장세는 각 지방관청의 세출 비목 가운데 使客迎送費, 향교 춘추제향비, 雇馬價, 진상물 상납비, 관아 사무용품·약재 조달비 등에 보충되었다.⁵⁰⁾ 그런데 장세를 수령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등 폐단이 많아 폐지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주에서도 장세가 지방관아 재정에 有用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혁파되었다. 영조 7년 전라감사 李壽沆은 전주지역의 장시에서 징수하는 장세를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雇馬廳을 설립하여 진상 및 공행의 말을 세우는데 장세를 사용하였는데, 혁파된다면 이러한 요역을 모두 民結에서 징수해야 된다는 것이었다.⁵¹⁾ 전주부 역시 장세징수를 통해 民役의 일부를 보충하고 있는 다른 군현들과 같이 재정형편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IV. 주요생산물의 상품화와 유통의 확대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함께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상업적 농업의 진전은 농민층이 분해와 함께 사회적 분업도 가져오게 하였다. 사상인층의 성장과 금속화폐의 유통, 조세의 금납화 등은 장시를 통한 상품유통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 자가생산과 소비에 그치던 각종 생산물이 상품으로 轉化되어 장시에서 교역되었다. 조선전기 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土宜는 오곡·뽕나무·삼·목화·감·배·왕대[簋]이다. 土貢은 표범가죽·여우가죽·이리가죽·山水獺皮·종이<表箋紙·奏本紙·副本紙·咨文紙·書契紙 및 表紙·掃鍊紙·白奏

49) 김대길, 「조선후기 지방장세에 대한 기초연구」, 『관동사학』4, 1989.

50)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연구』, 국학자료원, 1999, 33~34쪽 참조.

51) 『비변사등록』89책, 영조 7년 6월 21일.

紙・油芭紙・歲畫紙・眼紙인데, 道內에 오직 이 고을과 南原 것의 품질이 좋다.>·모시·무늬있는자리·죽제비털·漆·꿀·대추·석류·생강<군의 사람들이 業으로 삼는다.>이고, 藥材는 인삼·말오줌나무[蒴藋]·궁궁이[芎藭]·天門冬·麥門冬·패랭이꽃이삭·흰매화열매·茯蓍이다.⁵²⁾

크게 농산물과 수공업품, 약재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전주에는 조선전기부터 품질 좋은 다양한 종이와 특산물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생강은 고을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는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품 이외에 더 많은 생산물이 상품화되었다. 다음 도표는 전주와 인근 군현에서 생산되는 주요물품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시대 전주와 인근 군현지역의 주요 생산물〉

지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임원경제지』	『읍지』
전주	石榴 紙(上品) 鬱金 蜂蜜 葦魚 漆 磁器	柿 梨 大桃 石榴 薯蕷 薑 薑黃 松蘿 漆 楮 鮒魚 葦魚 蟹 蜜 蠟 瓷器 陶器 紙 扇	石榴 紙(上品) 薑 鬱金 蜂蜜 葦魚 漆 磁器 (進貢: 新稻米 乾柿 乾雉 片脯 淸蜜 紅柿 生梨 石榴 大麥 小麥 朴餼 醋薑 種薑 引導 剪子 鳥銃 梳省 連黃毛 六張付油芭 四張付油芭 二張付油芭 馬上油席 鞍籠 笠帽 柒 貼扇 白貼扇 柒別扇 白別扇 毛鞭 生楮 生兔 生雉 祝文紙 貢物: 眞荏子 淸蜜 楮注紙 末醬 眞油 小麥 白綿布 白苧布 草注紙 正布)
고산	烏水晶 綠礬 蜂蜜 松蘿 柿 石榴 苧 漆 石葦	鐵 烏水晶 礪石 綠礬 石灰 柿 漆	竹葦 淸蜜 楮 柿 錦鱗魚(進貢: 早紅 强礪石 乾雉 淸蜜 生梨 大麥 小麥 白貼扇 白油別扇 漆別扇 白缸 石榴 乾柿 生雉 紅柿 生豬)
금구	沙器 蟹 苧 漆 蜂蜜 石榴 薑	石榴 薑 竹 楮 漆 天門冬 大戟 蜜 瓷器	沙器 苧 漆 蜂蜜 薑 竹 蟹 石榴 (進貢: 雉 生獐 石榴 乾柿 大麥 小麥 新稻米 淸蜜)
익산	竹 鮒魚 薑	栗 薑 竹 鮒魚	鮒魚 蟹 (進貢: 乾雉 乾柿 淸蜜 大麥 小麥 扇子 新稻米 白布 生梨 紅柿 生雉 草席 箱子)
임실	銀口魚 蜂蜜 紫草 薑 苧	石灰 梨 栗 胡桃 薑 石葦 漆 楮	蜂蜜 柿 漆 梨 胡桃 銀杏 木瓜 栗 銀口魚 生豬 生雉 生兔 (進貢: 乾雉 鹽銀口魚 食鹽 大麥米)

52)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楮 白花蛇 地黃 鬱金 漆 石葦	銀口魚 白花蛇 蜜 蠟 瓷器	小麥米 白貼扇 白油別扇 漆別扇 清蜜 新稻米 銀杏 胡桃 生銀口魚 生梨 石榴 乾柿 生豬 生兔 生雉)
진안	蜂蜜 石葦 紫草 漆 楮	石灰 松葦 石葦 楮 漆 紫草 煙草 當歸 白朮 蜜 蠟	蜂蜜 漆 楮 生麻 當歸 白朮 石葦 松葦 芝草 (進貢: 鹿角膠 鹿角霜 乾雉 清蜜 生梨 乾柿 紅柿 栢子 大棗 胡桃 大麥米 小麥米 新稻米 生獐 生兔 生豬 白貼扇 七別扇 白油別扇)

『신증동국여지승람』・『임원경제지』・『읍지』에 수록된 각종 물품은 자가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동시에 장시에 상품으로 출하되어 교역되었다. 교역형태는 물물교환되기도 하였지만 동전을 매개로 거래되었다. 進貢 물품의 경우 수량의 다과를 떠나 중요한 거래상품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임원경제지』에는 각 군현의 주요 장사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소개하고 있는 주 목된다.

〈조선후기 전주와 인근 군현 주요장시의 거래물품〉

군현명	장시명	거래물품
전주	남·서·북동문장	米 荳 粳麥 黍粟 綿布 綿花 苧布 緞紬 繭絲 麻布 生麻 鎡器 土 器 磁器 銅鐵器 木物 竹物 紙地 茵席 煙草 煙杯 眞梳 薑 蒜 棗 栗 梨 柿 木器 麻鞋 魚鹽 牛犢
고산	邑內上·下場	米 荳 粳麥 脂麻 水蘇 綿布 綿花 麻布 棗 栗 梨 柿 紙地 鐵鼎 鐵物 木物 土器 筐篋 薑 蒜 蜂蜜 牛犢
금구	읍내장	米穀 土器 鐵物 蘿 菘 蔥 眞瓜 西瓜 麻鞋
익산	읍내장	米穀 綿布 鐵鼎 土器 蒜 蔥 白魚
임실	읍내장	米 荳 粳麥 桔梗 薇蕨 蜂蜜 栗 柿 生麻 土器 磁器 鐵物 麴子 煙 草
진안	읍내장	米 荳 黍粟 粳麥 脂麻 水蘇 麻布 土器 磁器 鐵物 沙蔘 煙草 牛 犢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주는 인근 지역의 어느 장시보다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수공업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산물 가운데 상업성이 높은 특수작물 가운데 하나는 생강이었다.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에도 특용작물로 소개된 바 있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생강은 전국의 수요를 공급할 정도라고 하였다. 전주 지방에서는 생강이 부유한 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⁵³⁾ 유형원은

생강이 곡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그 이익이 열 배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의 상인들은 생강을 팔기 위해 평양을 왕래하거나⁵⁴⁾ 처자를 거느리고 의주까지 가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⁵⁵⁾

각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장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세기 이후 시장권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상품의 유통은 인접 고을간의 교통로가 정비되고 장길을 비롯한 지름길들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긴밀해졌다. 지역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교통의 요지에 주막이나 점막이 들어섰다. 상인들의 왕성한 활동이 새로운 교통로를 만들어 갔으며, 民物의 활발한 교류를 계기로 旅店이나 주막들이 신설되었다. 대량의 상품을 보다 빠르게 운송하는 것은 곧바로 상업적 이득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상인들은 기존의 교통로 이외에 지름길을 개척하여 이용하였다.

상품의 유통은 육로와 수로 또는 해로가 서로 연결되고, 장시간의 연계성과 시장권 형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전주지역의 상품유통은 기본적으로 전주성의 4개 장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지역은 인접한 군현의 장시와 교류되면서 확대되었다. 『임원경제지』를 통해 19세기 전반 전주와 인접 군현의 장시 개설상황을 살펴보자.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전주와 인접 군현의 장시 개설 현황〉

군현명	장시명	소재지	개시일	비고
전주	남문장	南門外	2	
	서문장	西門外	7	
	북문장	北門外	4	
	동문장	東門外	9	
	峰上場	東北 30리 鳳翔面	5-10	
	仁川場	東北 100리 陽良所面	2-7	
	參禮場	西北 30리 五百條面	3-8	
	沃野場	北60리 北一面	4-9	
	利城場	北70리 紆北面	1-6	
	上牙場	北70리 南二面	3-8	

53) 이중환,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 “此外又有鎮安之烟田 全州之薑田 林川韓山之芋田 安東禮安之龍鬚田 爲國中第一 爲富人權利之資”

54) 유수원, 『迂書』권8, 논상판사리액세규제조.

55) 박제가, 『北學議』內編 車條 “今全州之商挈妻子 買薑梳而步往龍灣 則利非不蓰也”

	石佛場	西60리 東一面	1·6	
고산	邑內上場	官門外	4	
	邑內下場	관문외	9	
금구	邑內場	관문외	3·8	
	院坪場	남20리 水流面	4·9	
	木橋場	서15리 南面	1·6	
익산	읍내場	관문외	2·7	
	立石場	남10리 春浦面	1·6	
	回化場	남30리 春浦面	4·9	
임실	邑內場	관문외	1·6	
	葛覃場	서40리 江津面	2·7	
	良發場	북40리 新德面	2·7	
	烏院場	북20리 上北面	3·8	
	屈巖場	북5리 一道面	1·6	
진안	邑內場	관문 외	5·10	
	馬靈場	동20리 馬靈面	3·8	
	東倉場	동30리 二東面	4·9	

전주지역에 개설된 장시의 개시일, 위치, 장시간의 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5개의 장시가 상호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즉 일정 지역 단위내에 매일 장이 열리는 형국은 아니었다. 그런데 전주 읍장에는 시전이 설치되어 있어 시장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개시일과 상관없이 상품을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의 시전과 비교될 정도로 대장시로 성장한 전주장에는 각종 물품이 대량으로 집산되었다. 『택리지』에는 전주에서 상업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의 하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배로 왕래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서로 통하는 곳에서 이익을 주관하고 외상 거래도 한다.……전라도는 나주의 영산강, 영광의 법성포, 홍덕의 사진포, 전주의 沙灘이 강은 비록 짧으나 모두 潮水로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⁵⁶⁾

전주가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沙灘(만경강)을 통해 해로와 연결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시는 다수의 소비인구, 다량의 물자공급, 교통의 요충지 등의 입지조건이 요구되었으며, 이 조건들이 충족되

56) 『택리지』卜居總論 生利.

면 대장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⁵⁷⁾ 그렇지 않으면 장세가 위축되어 인근의 장시에 흡수, 통합되거나 또는 보다 나은 지리적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移設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⁵⁸⁾ 전주장은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춘 가운데 대장시로 발달하며 지역간 상품유통을 주도하였다.

조선시대 전주는 한양-과천-수원-병점-오산……논산-여산-익산-삼례-전주-금구-태인-정읍-장성-광주-나주-영암-강진-해남으로 연결되는 호남대로의 요충지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수로인 만경강과 연결하여 서해의 해로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의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각 지방의 浦口가 개발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상품수송이 활성화되고, 포구가 새로운 유통중심지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전주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전주는 장시가 성립,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전주 지역의 장시 성립과 발전, 상품유통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지방상업의 중심역할을 하였던 장시는 성종 원년(1470년) 무안, 나주 지역 등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정기시장으로 개설된 장시의 출현으로 물가가 오르고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엄금시키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반해 흥년에 기민을 진휼하고 유무상통하는 등 유익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개설에 적극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다. 장시 개설 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시를 통한 농민교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장시 개설은 충청도, 경상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전주지역에 장시가 개설된 시기는 무안, 나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종 원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는 장시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인구가 많고 列肆交易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전라도관찰사 고태필이 흥년을 당해 장시 개설을 인정할 때 전주지역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지역은 상설점인 시전이 설치되어 있어 조정에서도 정책적으로 동전통용의

57) 손정목, 『조선시대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80, 86쪽.

58) 한상권,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사론』7, 1981, 207~231쪽 참조.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상설점포인 포자를 추가로 설치하게 하였다. 전주는 장시가 성립하고 발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으며, 대도회로써 성장하여 상인과 상품이 집산하는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지역 상권을 주도하는 한편 원격지와 교역도 이루어져 전국에서 이름난 대장시로 일컬어졌다.

18세기 이래 전주지역에 개설되었던 장시는 11개, 또는 8개였다. 이 가운데 전주성의 동·서·남·북문 밖에서 개설되는 4개 장시는 10일 간격으로 열리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5일장이었다. 특히 전주부의 남문장과 서문장은 大市로, 북문장과 동문장은 間市로 열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전주 지역의 장시들도 신설, 폐지, 이설 등의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전주성 동·서·남·북문장을 중심으로 시장권이 형성되었으며, 인접 군현의 장시와도 연계하여 시장권을 이루기도 하였다.

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가운데 특산물로 꼽히는 것은 종이와 부채, 생강이었다. 다양한 종이는 조선전기부터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다. 전주에서 생산되는 생강은 상업성이 높은 작물 가운데 하나로 전국의 수요를 공급할 정도여서 생강재배를 생업으로 삼는 자들이 매우 많았고, 부유한 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바탕이 된다고 할 정도였다. 전주지역의 상품유통은 육로와 수로, 또는 해로가 서로 연결되고, 장시간의 연계성과 시장권 형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상권

양 미 경*

<목 차>

- I. 머리말
- II. 전군도로 및 철로 개설과 상업유통구조의 재편
- III. 1930년대 대정통과 본정통의 상업공간
- IV. 시장규칙 제정과 남문시장으로의 재편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형성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한국사회가 경험했던 경제적 변화는 상업유통구조 및 상업 활동에서의 변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도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사회와 문화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연구할 때 지역의 시장과 상권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그 구체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주의 경우 한때 상업도시로 명명될 만큼 상업의 비중이 지대했던 것에 비하면, 전주의 시장과 상권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본격적인 상업 연구는 아니지만, 장명수는 전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피는 과정에서 4문밖시장과 城內場 공간을 비정하고, ‘남밭장’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주의 상업전개에 대해 논한 바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있다.¹⁾ 전주지역의 상업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소순열 · 원용찬과 박선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소순열 · 원용찬은 전주를 포함한 전북지역의 시장경제의 역사를 통시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²⁾ 이 연구는 전주의 시장경제가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없고, 인근에 포진한 군산 · 김제 · 남원 등의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상호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박선희는 전주를 사례로 하여 일제강점기 금융 · 상업공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³⁾ 그는 식민지로의 이행과정에서 화폐정리사업과 근대 금융기관의 등장으로 인해 종래 상업공간이 크게 재편되었음을 논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주의 상업공간이 남문통과 역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의 상업공간과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의 상업공간으로 민족별로 격리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업도시로서 전주 상권의 규모, 상인의 존재양상과 영업방식, 상업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상인의 적응방식 등, 아직 규명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일제강점기 전주지역에서의 상업 활동과 상업공간의 존재양상을 보다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全州府史』⁴⁾와 『商工の全州』⁵⁾이다. 『全州府史』는 전주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당시 전주의 상업 활동과 상업공간을 상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1938년 전주상공회의소가 펴낸 『商工の全州』에는 업종별로 상호, 소유자, 주소, 영업세 등이 명기되어 있어서 상점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당시 전주읍 내부문서를 수집하고 여기에 해제를 실어 발간한 『일제시대 전주읍 행정규칙 자료집』⁶⁾과 1935년 전주읍을 부로 승격시킬 때 조사한 자료를 엮은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⁷⁾은 인구의 변동, 상권의 규모 등을 계량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실린 1931년 「전주안내도」는 일제강점기 전주 도시공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진자료를 통해 그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하였다. 그중에서도 『全州府史』, 『商工の全州』,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1)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2) 소순열 · 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출판사, 2003.

3)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3.

4) 全州商工會議所, 『商工の全州』, 1938.

5) 全州府 編, 『全州府史』, 1943;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 2009.

6) 전주역사박물관, 『일제시대 전주읍 행정규칙 자료집』, 문정사, 2003b.

7) 전주역사박물관,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 문정사, 2003a.

자료집』은 각각 발행된 시기는 다르지만, 안에 수록하고 있는 자료의 조사 시점이 1930년대 중후반으로 서로 비슷하여 이들 자료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당시의 상업 활동과 상권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주풍물기』,⁸⁾ 전주역사박물관과 전주박물관에서 펴낸 사진자료집,⁹⁾ 그리고 전주문화재단에서 전주지역 원로들을 인터뷰하여 엮은 두 권의 구술실록¹⁰⁾을 참조하였는데, 이는 미시적인 부분을 살피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 또한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자료와 관련된 정보제공자를 구술 면접하여 인터뷰 자료를 확보하였다.

II. 전군도로 및 철로 개설과 상업유통구조의 재편

일제강점기 전주의 상업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전군도로와 철로의 건설이었다. 전군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전북의 상품유통은 완포, 동포 등의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객주가 유통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었다.¹¹⁾ 일본인 상인들 또한 전북 내륙으로의 교통이 불편하여 직접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비재를 객주와 보부상들에게 위탁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군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일본인 상인들은 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륙의 상인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북지역의 상품유통구조 또한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객주 위주의 구조에서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개항장과 교통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¹²⁾

또한 전군도로는 동산촌·대장촌·대야를 거쳐 군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에는 일본인의 대단위 농장이 존재했다. 전주를 기점으로 동산촌에는 미쓰비시 소유인 동산 농장이, 대장촌에는 호소카와 농장이, 그리고 대야에는 일본 귀족 오오쿠라 농장과 오사카의 거상인 야키가의 농장 등이 있었다.¹³⁾ 이 밖에도 군산에서 전주를 축으

8) 전주문화원, 『전주풍물기』, 1988.

9) 국립전주박물관, 『옛사진 속의全州』, 통천문화사, 1998; 전주역사박물관, 『(옛 사진 속의 전주) 전주사람들: 1890~1960년대』, 2007.

10) 전주문화재단, 『제1권 일제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2007; 전주문화재단, 『제2권 전주의 8·15 해방과 6·25 전쟁(1945~1960)』, 2008.

11) 박선희, 앞의 논문, 87~88쪽.

12) 박선희, 위의 논문, 87쪽.

13) 이경란, 「일제하 수리조합과 농장지주제 -옥구·익산지역의 사례」,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258쪽; 이정덕 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2006, 125쪽에서 재인용.

로 하여 일본인 지주가 소유한 24개 농장이 만경강 상류와 지류의 비옥한 토지를 거의 점령한 상태였는데, 전군도로는 이를 연결하는 수탈의 길이었던 셈이다.¹⁴⁾

한편 전주에 철도가 개설된 것은 1914년의 일이었다. 그 당시 철도는 전주-이리 간을 연결하는 경편철도였으며, 전주 유지들이 세운 전북경편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철도였다.¹⁵⁾ 그런데 1910년대는 철도가 건설되는 초기였기 때문에 상품유통에서 철도가 수운을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1910년대 중반 전북 철도수송 화물의 종류를 보면 주로 철도와 관련된 철도국용품이나 공사용품, 목재 등이었고, 그 외에 쌀과 소금이 많이 운송되는 정도였다.¹⁶⁾ 그러다가 1920년대가 되면 철도 교통이 성장하여 여객수송 뿐 아니라 상품유통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총독부는 1927년에 전북경편철도주식회사로부터 철도를 매수하여 철로를 광궤로 개축하고, 뒤이어 이리에서 전주를 지나 멀리 여수항으로 통하는 전라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하여 1937년에 전부 개통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전라선은 연락선을 통해 남으로는 시모노세키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경성(서울)과 통하게 되었다.¹⁷⁾ 1930년 철도를 통해 전주에 도착한 화물을 살펴보면 목재(11.3%), 시멘트(10.5%), 엽연초, 석탄, 식염 등이고, 전주에서 출발한 화물은 쌀(41%), 제조 연초(13.6%), 목재 등이었다.¹⁸⁾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오사카·도쿄 등지로 미곡·마른 김 등이 수출되었고, 일본에서 야채·건축재료·비료 등을 들여왔다.¹⁹⁾

<표 1> 1934년경 전주의 주요물산 생산표²⁰⁾

업체별	공장수	직공수	생산량(石)	가격(엔)
연초	1	380	119,250	5,916,100
제사	3	745	100,340	965,061
정미	10	300	117,165	3,432,934
주류	12		7,375	357,300
계	26	1,425		10,671,395

14) 박선희, 앞의 논문, 80쪽.

15) 전북경편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운영되었던 전주-이리 간 철도는 협궤 간이철도로서 자본금이 60만원, 차량 77량(기관차 6, 객차 18, 화차 53)을 보유하고 있었다.(전주상공회의소, 『전주상공60년사』, 1995, 135쪽; 박선희, 앞의 논문, 83쪽에서 재인용.)

16) 박선희, 위의 논문, 84쪽.

17)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526쪽.

18) 전주시, 『전주시사』, 1986, 942쪽.

19)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526쪽.

20) 전주역사박물관, 앞의 책, 2003a, 54쪽.

이러한 사실을 다음 세 가지 측면과 더불어 살펴보면 전주의 산업구조와 공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전주가 상공업 중심의 도시였다는 점이다. 1930년대 전주는 총호수 7,001호 중에서, 공업을 운영하는 자가 567호, 상업 및 교통업을 운영하는 자가 1,831호로, 상공업자가 총호수의 3할 4푼을 차지하고 있었다.²¹⁾ 주요생산물의 연생산액은 1,067만여 엔, 거래액은 연수출 1,768만여 엔, 연수입 2,600여 엔을 넘었다. 특히 전주는 종래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 3대시장으로 유명한 시장 소재지로서, 연 거래액이 360만엔을 넘고 약령시의 경우는 그 거래액이 60만엔이 넘는 성황을 이루었다.²²⁾

둘째, 전주의 주요 생산품 및 가공품은 미곡과 연초였다는 사실이다. 1935년 7월 30일에 작성된 「읍의 상황조사에 관한 건」에서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주요물산(〈표 1〉 참조)과 물자의 수출입 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²³⁾ 당시 전주에서 생산되었던 주요물품은 연초, 제사, 정미, 주류, 생사, 지류 등이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1,425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재원도 상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쌀과 연초의 수출량이 지대하였다. 1년 동안 수출한 쌀의 양은 78,668석으로 2,202,704엔을 벌어들였고, 연초는 4,637톤을 수출하여 9,737,700엔을 벌어들였다.²⁴⁾ 당시 총 수출액이 17,687,421엔이었으므로, 쌀과 연초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체수익의 67.5%에 달했다.

셋째, 1931년에 작성된 「전주안내도」를 보면, 전주역 주변에 일정정미소, 삼공정미소, 삼성정미소, 완산정미소 등 유독 정미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전주역 주변에 이처럼 정미소가 밀집되어 있었던 까닭은 미곡 수출과 관련이 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주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는 미곡이었는데, 이들 정미소는 전주 인근 농토에서 생산된 벼를 들여와 정미한 뒤 철도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송이 편리한 철도역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시간과 수고를 더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Ⅲ. 1930년대 대정통과 본정통의 상업공간

21) 자료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1929년말 총호수가 5,611호인 데 반해 1930년말에는 7,644호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 193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전주역사박물관, 앞의 책, 2003a, 12쪽.) 또한 같은 시기의 통계자료라 할지라도 자료에 따라 통계수치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비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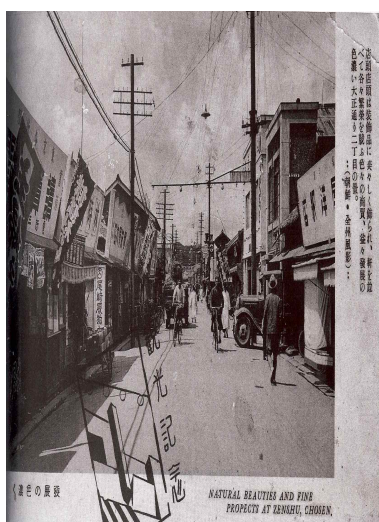
22) 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3a, 13쪽.

23) 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3a, 54~56쪽.

24) 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3a, 54~56쪽.

25) 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3a, 157쪽.

근대적 상업공간을 형성할 때 가장 핵심에 서게 것은 금융조합, 은행과 같은 금융시설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전주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조선식산은행(1918년, 대정정 4정목), 조선상업은행(1928년, 본정 1정목), 조선저축은행(1929년, 본정 2정목), 조선무진주식회사(1923년, 대정정 1정목), 그리고 오늘날 농협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북지부(1918년, 대정정 5정목)를 들 수 있다.²⁶⁾ 이들 대부분은 대정통과 본정통에 위치했는데, 그 이유는 전주의 자본이 대정통과 본정통을 중심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1930년경 대정통²⁷⁾



<그림 2> 1928년경 본정통²⁸⁾

그러므로 일제시기 전주에서 가장 변화했던 거리는 서문파출소에서부터 시작되는 대정통과 서문파출소에서부터 본정 우체국까지 이어지는 본정통, 그리고 고사통 거리였다. 그 중에서도 서문파출소 주변의 서문 일대는 한때 전주 경제권의 중심지라 불릴 만큼 여러 가지 점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대정통과 본정통 같은 전주의 중심시가지는 대부분 일본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물론 조선인 가운데서도 김수천, 정운덕, 최만홍 같은 부자들은 본정통이 있는 다가정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지만,²⁹⁾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주로 완산정, 화산정, 청수정처럼 중심시가지를 벗어난 곳에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전주부사』에 실린 1939년 12월에 작성된 「각 町별 호구」 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26)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601~613쪽.

27) 전주역사박물관, 앞의 책, 2007, 25쪽.

28) 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7, 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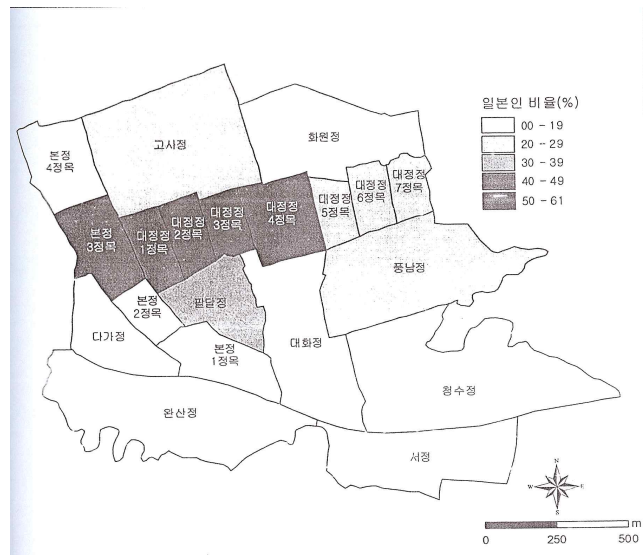
29) 조병희, 「1920년대의 남박장」, 『전주풍물기』, 전주문화원, 1988, 114쪽; 송종섭 제보(1924년생)

〈표 2〉 각 町별 호구조사표(1939년 12월)³⁰⁾

町別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기타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대정정1정목	44	319	64	288	-	-	-	-	108	507
대정정2정목	60	268	27	252	-	-	-	-	97	520
대정정3정목	83	352	41	259	-	-	-	-	124	611
대정정4정목	109	521	63	335	-	-	-	-	172	856
대정정5정목	29	132	70	419	1	1	-	-	100	552
대정정6정목	33	179	79	428	-	-	-	-	112	607
대정정7정목	30	122	63	355	2	7	-	-	95	484
본정1정목	32	109	167	1,051	-	-	-	-	199	1,160
본정2정목	10	48	114	753	2	7	-	-	126	808
본정3정목	85	434	109	551	2	7	-	-	196	992
본정4정목	62	248	205	1,077	-	-	-	-	267	1,325
팔달정	57	243	61	419	-	-	-	-	118	662
대화정	109	476	489	2,538	4	7	-	-	602	3,021
다가정	5	16	255	1,454	-	-	-	-	260	1,470
고사정	231	986	539	2,429	4	9	-	-	774	3,424
회원정	52	238	255	1,032	-	-	-	-	307	1,270
풍납정	77	354	188	1,179	-	-	1	2	266	1,535
청수정	17	81	641	3,098	1	4	-	-	659	3,183
서정	7	120	798	3,846	1	5	-	-	806	3,971
완산정	2	2	1,143	5,725	-	-	-	-	1,145	5,727
노송정	78	416	1,089	5,235	2	5	-	-	1,169	5,656
화산정	1	4	326	1,628	-	-	7	29	334	1,661
상생정	88	337	564	3,187	2	6	-	-	654	3,530
소화정	7	28	227	989	-	-	-	-	234	1,017
계	1,308	5,933	7,587	38,527	21	58	8	31	8,924	44,549

30)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202쪽.

다음 <그림 3>은 위의 <표 2>를 토대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주거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일본인은 주로 본정 3정목과 대정정 1·2·3·4정목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반면, 조선인은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이 주로 거주했던 본정 3정목과 대정정 1·2·3·4정목은 이른바 대정통이라 불리는, 당시 전주에서 가장 변화했던 거리였다.



<그림 3> 1939년 현재 일본인 거주비율³¹⁾

그러므로 <그림 3>은 전주도심 내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주거지가 각 민족별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한 도시 내에서 민족별로 주거지가 이원화되는 양상은 비단 전주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당시 재조일본인이 다수 거주했던 서울, 목포, 군산 등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어서 고석규는 이를 ‘도시 내의 이중성’이라 명명하며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도시화의 한 특성으로 간주하였다.³²⁾ 다만 도시의 태생이 전통도시인가, 혹은 개항과 철로 개통으로 인해 새로이 형성된 근대 도시인가에 따라 유형적 차이를 보이는 정도였다. 서울과 같은 전통도시의 경우는 청계천을 경계 삼아 북촌 일대에는 주로 조선인이, 남촌 일대에는 일본인이 거주했지만, 원래 조선인이 거주하던 지역에 일본인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혼재할 수밖에 없었다.³³⁾ 전주에서도 이른바 ‘일본인 거리’라 명명되었던 대정통

31) 박선희, 앞의 논문, 113쪽.

32)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3~21쪽.

과 본정통에 상당수의 조선인이 혼재하여 살고 있었던 것도 서울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목포나 군산처럼 일제시기에 형성된 근대도시는 일본전관거류지나 각국 공동조계지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 발전했기 때문에 민족별 주거지의 이원화 양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일제시기 전주의 상업공간은 어떠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생업에서 상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표 3>에서 1923년과 1939년 자료는 각각 『朝鮮人の商業』과 『전주부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주에서 활동했던 상인의 인구수를 추정해본 것이다. 『朝鮮人の商業』의 자료는 1923년 당시의 상업인구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총 인구수는 『전주부사』의 통계에 따랐다.³⁴⁾ 또한 <표 4>는 1923년과 1939년 사이의 대강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박선희 논문의 자료와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의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사자료가 상업인구가 아닌, 상업 및 교통에 종사한 인구를 표기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실제 상업인구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표 3>과 <표 4>의 1939년 조사 자료처럼 실제 상업인구와 상업/교통 인구의 오차를 비교해보기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겨 함께 실었다.

<표 3>과 <표 4>를 놓고 볼 때 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보아, 전주의 산업구조에서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던 것 같다. 특히 192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조선인 수가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가 된 반면, 일본인 상인의 수는 1920년대 후반 증가 추세에 있다가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주의 민족별 상업 인구

(단위: 명)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상업 인구	일본인총 인구	상업 인구	조선인 총인구	상업 인구	외국인 총인구	상업 인구	총인구
1923 35)	1,422 (37.75%)	3,767	6,808 (47.16%)	14,437	113 (63.48%)	178	8,343 (45.39%)	18,382
1939 36)	1,299 (21.89%)	5,933	9,710 (25.20%)	38,527	36 (40.45%)	89	11,045 (24.79%)	44,549

33) 더 자세한 것은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96, 355~398쪽을 참조할 것.

34)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201쪽.

35) 조선총독부, 『朝鮮人の商業』, 1925, 4~8쪽.

〈표 4〉 전주의 민족별 상업교통 인구

(단위 : 명)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상업및교통 인구	일본인총 인구	상업및교통 인구	조선인총 인구	상업및교통 인구	외국인총 인구	상업및교통 인구	총인구
1928 37)	1,793 (42.23%)	4,246	6,317 (34.89%)	18,106	202 (70.14%)	288	8,312 (36.71%)	22,640
1934 38)	1,615 (27.45%)	5,884	7,711 (22.90%)	33,672	182 (56.70%)	321	9,508 (23.84%)	39,877
1939 39)	1,520 (25.62%)	5,933	10,632 (27.60%)	38,527	36 (40.45%)	89	12,188 (27.36%)	44,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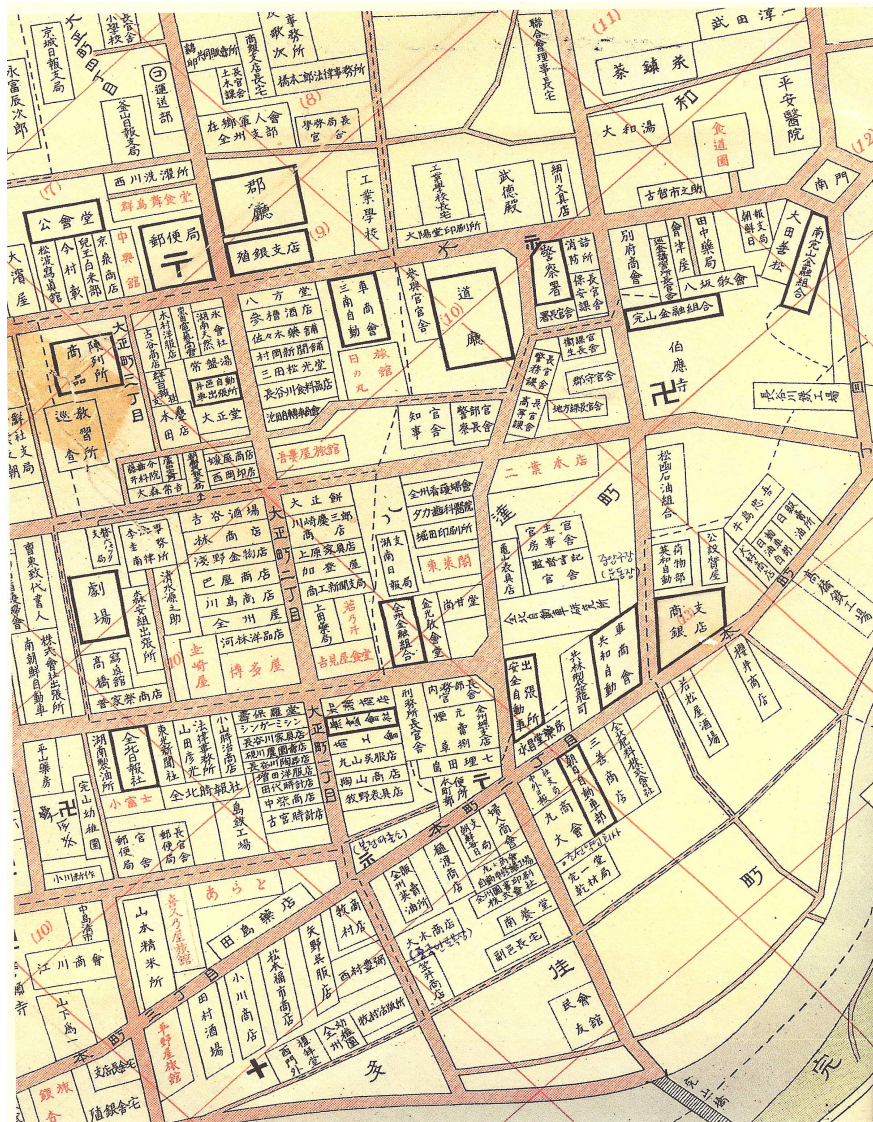
그렇다면 전주도심의 상업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1931년에 작성된 「전주안내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주안내도는 여관과 요리점을 따로 붉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지에 사는 재조일본인에게 전주를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면에는 전주도심을 그린 약도를 실었고, 뒷면에는 전주에 대한 대강의 소개와 함께 업종별로 상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관공소·학교·신사는 물론, 주요 기관과 상점의 사진까지 실고 있다. 그런데 상점의 경우, 일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상업과 관련된 조선인의 활동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36)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202쪽.

37) 박선희, 앞의 논문, 104쪽.

38) 전주역사박물관, 앞의 책, 2003a, 50~53쪽.

39) 박선희, 앞의 논문, 104쪽.



〈그림 4〉 1931년 전주안내도 앞면의 일부⁴⁰⁾

위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정통은 일제시기 내내 전주에서 가장 상권이 컸던 곳이며 특히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밀집되어 있었다. 대정통과 역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던 전주 우체국 사거리는 1200여 미터에 걸쳐 상가가 조성되었다.⁴¹⁾ 그리고 1940년에 3일간 대정정 중심지의 교통량을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보행자 161,956명, 우마(牛馬) 610두, 인력거 442대, 자전거 91,401대, 자동차 676대가 지나갔다고 한다.⁴²⁾ 그러므로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았던 대정통 주변에는 요리옥과 과자점, 극장, 여관과 같은 유

40) 전주역사박물관, 앞의 책, 2003a, 157쪽.

41)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위의 책, 590쪽.

42) 인정득, 「아늑하고 살기 편한 전주」, 『전주풍물기』, 전주문화원, 1988, 112~113쪽.

홍업종과 금물업(금은방), 시계점 같은 귀금속업종이 많이 분포했었다.

반면, 본정통은 조선인·일본인·중국인 상인들이 서로 혼재해 있었다. 본정통 중에서도 본정 우체국에서 다가정 파출소에 이르는 구간은 특히 주단포목 도소매 거리로 유명했다.⁴³⁾ 사람들은 이 거리를 ‘조끼전거리’ 라고도 불렀는데, 그 만큼 조끼장사들이 밀집하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한복집이 하나씩 있었다. 점포 앞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문 앞에 걸어 놓아 색이 바랜 원삼이 바람에 흔들리며 호객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 상설점포를 두고 있는 조끼장사들은 별도로 행상하는 사람들을 두고 3일장인 원평, 5일장인 금구, 7일장인 전주를 찾아 다녔다. 또한 이 거리에는 조선, 일본, 중국의 비단을 비롯하여 삼베, 모시, 광목, 그리고 인조 황나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였다.

다가정 파출소에서 전주천 제방 쪽으로 화교상이 기억자 모양으로 서너 집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산 비단과 주물술 등을 팔았다.⁴⁴⁾ 이정래는 중국인학교 옆으로 중국인이 경영하는 포목상이 나란히 세 집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비단장사 왕서방네가 제일 컸다고 기억하였다.⁴⁵⁾ 산둥성 출신인 왕국민의 아버지는 전취복(全聖福)이라는 큰 포목점을 경영했다. 대아리댐 공사와 전동성당을 지을 때 중국인 석공들이 전주에 많이 유입되었는데, 왕국민의 아버지는 석공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들과 같이 전주에 들어왔다고 한다.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다른 가족들은 산둥성에 그대로 남겨둔 채, 고모부와 외삼촌만 데리고 들어와서는 보따리장사를 했다. 그러다가 의화고, 의화리라는 중국인과 동업하여 비단장사를 시작하였는데, 1931년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⁴⁶⁾ 그들이 만주로 철수해버리자 왕국민의 아버지는 전취복(全聖福)이라는 상호를 걸고서 단독으로 비단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비단가게 손님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고 조선인도 부유층 정도가 있었지만, 고급 물건은 대부분 일본인에게 팔았다고 한다.⁴⁷⁾

43) 탁광, 「장따라 多音多色の 장사꾼」, 『전주풍물기』, 전주문화원, 1988, 134~135쪽.

44) 탁광, 위의 글, 134쪽.

45) 이정래 제보(1926년생)

46) 1931년 7월 2일 중국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 만보산 지역에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벌인 유혈사태로, 만주에 세력을 형성한 중국 민족운동 세력과 조선인 민족운동 세력의 반일 공동전선투쟁을 분열시키려는 일제의 음모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왜곡·과장된 보도가 조선 내 신문에 실리게 되자, 조선인의 민족감정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 내에 거류하는 중국인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천을 필두로 경성·원산·평양 등 각지에서 중국인 배척운동이 일어났으며, 평양에서는 대낮에 중국인 상점과 가옥을 파괴하고 구타 학살하는 사건이 며칠간 계속되는 등 잔인한 폭동으로 확산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포탈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조)

47) 왕국민 제보(193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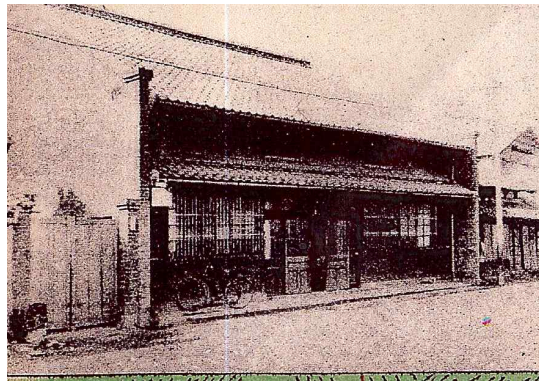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인거리



<그림 6> 왕서방네 포목점이 있던 건물

일본인 상인이 운영하는 포목점 중 히와다리 포목점(桶渡商會)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일본인들의 특유 직물을 판매하였다.⁴⁸⁾ 1938년에 출간된 『商工の全州』의 「전주상공인 명록」 자료를 보면, 당시 포목점 13개의 점포 중에 히와다리 포목점(138.80엔)이 가장 많은 영업세를 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기섭의 화신상회가 52엔, 김창술의 순창상회가 49엔, 원창상회가 46엔, 유채옥의 금화상회가 44엔을 납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히와다리 포목점은 당시 전주에 있었던 포목점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점포로 보인다.⁴⁹⁾



<그림 7> 히와다리 포목점⁵⁰⁾

본정 우체국 부근에는 이정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원창상회와 유씨들이 운영하는 금화상회가 있었다. 또 원창상회 바로 앞에도 최씨들이 운영하는 포목점이 있었다. 그 중에

48) 탁광, 앞의 글, 135쪽.

49) 전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938, 42~43쪽.

50) 전주안내도.

서도 원창상회는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오래되기도 해서 옛날 장터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정래에 따르면,⁵¹⁾ 원창상회는 할아버지 이강준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는데,⁵²⁾ 이강준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형님 이강원⁵³⁾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포목점을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훗날 아버지 이창재⁵⁴⁾가 할아버지로부터 원창상회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운영할 때도 원창상회는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되었지만, 진안 백운면에 있던 광산이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바람에 1943년 무렵 결국 다른 사람에게 포목점을 넘겨야 했다고 한다.

원창상회는 경성에 있던 경성직물주식회사(경성방직주식회사를 이르는 듯함)로부터 주단포목을 공급받았는데, 주문을 넣으면 기차로 배송이 되어서 전주역 앞에 있던 마르보시(통운)에서 구루마로 실어다 주었다. 점포에 들어오는 옷감은 모본단, 양단, 비로도를 비롯하여 인견, 광목과 옥양목 등이었다. 그 당시 모본단, 양단, 비로도는 고급품으로 값이 비싸서 주로 신부옷감으로 나갔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혼사를 치를 때는 옷감에 이불까지 해서 100원어치 이상을 사가기도 했다. 그때 돈으로 100원이면 교원 석달치 월급에 맞먹는 큰돈이어서, 그럴 때는 이정래의 어머니가 박다옥(하까다야)에 우동을 시켜 손님에게 점심을 대접한 뒤 돌려보내고는 했다. 반면 시골사람들은 혼사가 있으면 인조품으로 된 인견을 많이 사갔다. 그 밖에 대부분의 손님은 가정에서 옷을 해 입으려고 옷감을 떠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저고리는 석 자, 치마는 다섯 자 정도를 떠갔다.⁵⁵⁾

한편 본정과 그 인근 대화정에는 약종업과 관련된 점포가 여럿 존재했었는데, 이는 그 인근이 전통적으로 약전골, 혹은 약전거리로 불렸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⁵⁶⁾ 특히 청석동 우체국에서 매곡교에 이르는 구간은 매년 약령시가 열리던 곳이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

51) 이정래 제보(1926년생)

52) 기록에 의하면 원창상회는 1937년 4월 1일 설립하여 4월 6일 등기를 낸 것으로 되어있다. 1937년 당시 원창상회는 이흥재를 대표로 하여 네 명이 공동 출자한 합명회사로, 이흥재가 5,500원, 이창재가 4,500원, 유완수가 5,500원, 유남수가 4,500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2만원으로 출발하였다.(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6월 11일, 12쪽;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검색) 그러나 실제로는 1937년 이전에 부친 이강준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던 것을 아들(이흥재와 이창재)에게 넘겨주면서 이처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53) 이강원(1863년생)은 1912년 전주군 참사를 거쳐 1915년에는 전라북도 참사,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전라북도 평의회원 등 중직에 두루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주농공은행 이사와 전주금융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전주고등보통학교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검색)

54) 이창재는 이우일과 함 전주에 축구단을 창단하였고, 사재를 털어 축구단 육성에 힘썼다.(전주문화재단, 『제1권 일제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2007, 298~299쪽.) 여기에 원창상회 운영수익이 사용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정래의 기억에 따르면, 이창재는 어머니 몰래 밤에 주단포목을 빼돌려 축구단 회원들의 유니폼 비용을 마련할 정도로 축구단 육성에 열정적이었다고 한다.(이정래 제보(1926년생))

55) 이정래 제보(1926년생)

56) 인정득, 앞의 글, 111쪽.

종이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은춘기가 운영하던 조선약업회사를 비롯하여 영창당·완일당·남양당 같은 한약방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약업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30만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다.⁵⁷⁾ 은종근·은종선 자매에 따르면, 은춘기는 고부면의 지주집안에서 태어나 중앙고보를 마친 뒤 1930년대 중반 무렵에 전주로 이주를 하여 조선약업회사라는 약업회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은춘기는 한약 재료를 구하기 위해 중국, 만주 등지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사업에 열정적이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은춘기는 상업은행 같은 금융회사는 물론 공화자동차·전북자동차회사 등에 주주로 참여를 했고, 또 강원도에서 광산을 운영하기도 하였다.⁵⁸⁾

이처럼, 일제강점기 전주 도심의 근대적 상업공간은 본정통과 대정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중에서도 전주우체국 사거리에서 서문과출소에 이르는 대정통은 크고 화려한 상점들이 밀집된 가장 핵심적인 거리였다. 하지만 이곳은 재조일본인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조선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정도였다.⁵⁹⁾ 그리하여 이강준이나 은춘기처럼 근대적 자본을 형성한 조선인 사업가들조차도 대정통이 아닌 본정통을 중심으로 상점을 꾸리게 되었다. 이에 반해 일반 조선인 상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장한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IV. 시장규칙 제정과 남문시장으로의 재편

전주는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 3대시장으로 유명한 시장소재지였다.⁶⁰⁾ 조선후기 전주 성곽 밖은 성밖장이라 하여 사대문 밖에서 정기적으로 장시가 열렸다. 남문밖장이 매월 음력 2일에 개시되고 주로 생필품과 곡식을 취급하였다면, 서문밖장은 매월 음력 7일에

57)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검색.

58) 초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이 광산업이었다. 1926년에 허가된 광구수가 2,124개였고 1936년에는 5,596개에 이르렀다. 일시에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는 '노다지'로서 금광채광권에 대한 다툼이 빈번해졌으며 광산업에 따른 새로운 도시와 산업도 부분적으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중공업부문이 일인에 의해 완전히 독점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 자체의 자본이 일인 독점화되면서 조선사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비교적 수월한 수단으로 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268쪽.)

59) 송종섭 제보(1924년생)

60) 전주역사박물관, 앞의 책, 2003a, 13쪽.

개시되고 양념과 어물을 거래하였다. 그리고 북문박장과 동문박장은 각각 4·9장으로, 북문박장에서는 포묵과 잡곡이 거래되었고 동문박장은 한약재와 특용작물을 판매하였다.

조선후기 이후 전통적으로 성장하였던 정기시장은 일제강점기 때에도 지속하여 존재하였고, 일부는 상설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설시장은 일본상인에 의해 매일장, 상설점포, 상업회사 등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⁶¹⁾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설시장은 정기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정기시장과 별개로 존재하면서 성장하였지만, 전주 서문박장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서문박장은 적어도 1913년까지는 남문박장과 더불어 호황을 누렸다. 아니 남문박장 이상의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다. 박선희의 자료에 따르면, 1913년 남문박장의 1년 매출액이 107,700엔이었던 것에 비해 서문박장의 매출은 131,361엔으로 남문박장보다 더 많았다.⁶²⁾ 그런데 이처럼 호황을 누렸던 서문박장이 이후 갑자기 쇠퇴하여 1923년에는 남문박장에 흡수되기에 이른다.⁶³⁾ 여기에는 1907년 전주성곽의 서문이 헐리면서 일본인 상인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상설점포를 개설하였던 당시 시대상황과 일제의 시장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는 상업공간인 정기시장을 통제, 감시하기 위하여 1913년부터 1917년까지 5년에 걸쳐 전국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914년 9월에 「시장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⁶⁴⁾ 「시장규칙」의 본질은 시장설치 및 감독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의 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시장규칙」이 발표되면서부터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과 감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시장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시장통제의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시장세는 정기시장에 대해서 다음달 5일 이내에 징수하였는데, 개시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와 상설점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매매가 세금부과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시장세는 판매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방매가액(放賣家額)의 1/100을 징수하였고, 시장세 부과 대상에는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농민의 판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⁶⁵⁾ 그러나 1927년 일반농민의 잉여생산물 판매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세 형태로 상업거래에 대한 수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상설점포와 상업회사 등 상설시장을 통한 각종 거래가 상품유통의 주된 경로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⁶⁶⁾

61) 박선희, 앞의 논문, 61쪽.

62) 박선희, 위의 논문, 120쪽.

63)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585쪽.

64) 황명수, 『한국의 시장상업사』, 신세계백화점, 1992, 172쪽.

65) 유승렬, 「일제초기 상업변동과 객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6, 14쪽.

66) 박선희, 앞의 논문, 60~61쪽.

1923년에 전주 남문밖장과 서문밖장이 병합된 이래 1931년 전주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특정 개인에게 청부하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맡겼지만, 읍제 시행 이후부터는 따로 사무소를 지어 전주읍이 직접 관리를 맡았다.⁶⁷⁾ 그러다가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자 남부시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에 이르렀는데, 1936년 10월에는 8동 36호의 시장 건물을 증축하였고, 이듬해에는 5,826평의 면적에 1등 상설점포 4동 25호(225평), 2등 상설점포 4동 11호(82평), 보통상설점포 44동(813.4평), 어채시장 1동(63평), 기타 사무소 및 숙소, 변소 등을 세우고 노점 1300평의 공간을 마련하였다.⁶⁸⁾ 또한 1923년 4월 16일에 객사 앞(대정정 3정목)에 개설하였던 공설시장⁶⁹⁾을 1928년 4월에 폐쇄하고, 같은 해 12월에 남문 옆으로 옮겨왔다.⁷⁰⁾ 이렇게 남문시장은 매달 2·7일마다 장이 서는 정기시장과 매일 개시하는 공설시장이 공존하게 되면서, 조선인의 상업공간으로 더욱 각광을 받았다. 그리하여 1941년 남문주변의 보통시장과 공설시장의 1년 거래액은 949,423원에 달했다.⁷¹⁾ 다음 <그림 8>은 남문시장의 상가 배치도인데, 미곡, 포목, 의류, 건어물, 고기, 음식 등 판매하는 상품 종류별로 점포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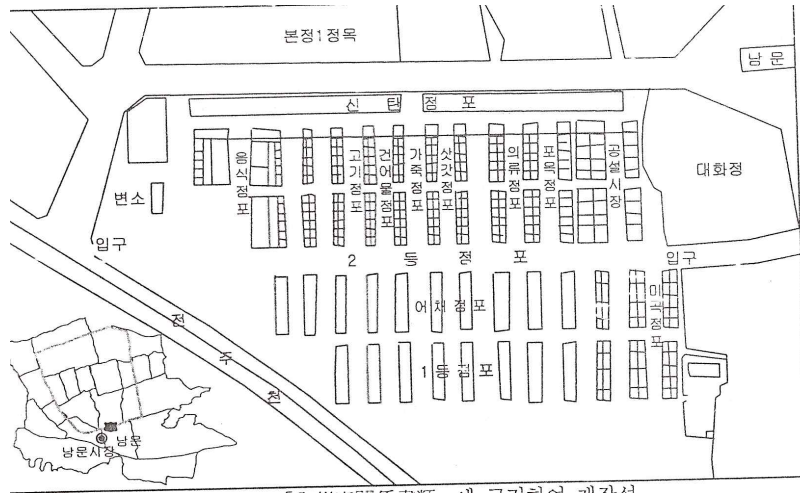
67)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585쪽.

68) 「전주읍 시장사용규칙」은 다음과 같이 시장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시장의 경우 1등 상설점포는 1개월 1평당 1엔 50전, 2등 상설점포는 1개월 1평당 1엔 20전, 獸肉상설점포는 1개월 1평 5습당 1엔 20전, 음식상설점포는 1개월 1평당 70전이고, 1등 보통점포는 매 개시일 1평5습당 15전, 2등 보통점포는 매 개시일 1평5습당 10전, 미곡보통점포는 매 개시일 1평당 7전, 생선보통점포는 매 개시일 1평당 10전, 목재보통점포는 매 개시일 1평당 2전이고, 노점은 매 개시일 1평당 2전, 월정 매 개시일 1평당 10전을 납부하였다. (「전주읍 시장사용규칙」, 『일제시대 전주읍 행정규칙 자료집』, 전주역사박물관, 2003b, 36~39쪽.) 그리하여 1937년말 1등 점포는 25엔 20전, 2등 점포는 22엔 50전, 보통 점포는 19엔 80전, 그리고 노점 사용료로도 1년 동안에 10,889엔 11전을 징수하였다.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585~5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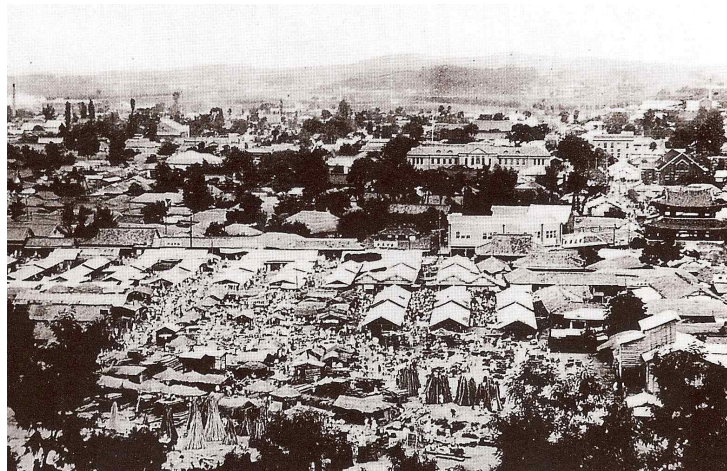
69) 공설시장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경기와 물가양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고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일본에서 등장하게 된 제도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승인 아래 시중 소매가격보다 10~15% 가량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 세금과 시장사용료를 면제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명분과 원칙은 곧 흐지부지되어 1923년쯤에는 염가시장으로서의 원래 의미를 거의 잃어버렸다. 공설시장이 조선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19년경이었지만, 주로 도시의 중심부나 관공리, 회사원 등 봉급생활자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부근, 즉 일본인 거주지에 설치되었고 현금거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선인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허영란, 「일제시기 상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역사비평』통권 제27호, 역사비평사, 1994, 218쪽.)

70) 「全州公設市場開始」, 동아일보 1923년 4월 20일자 기사; 「公設市場閉鎖」, 동아일보 1928년 4월 1일자 기사; 「全州公設市場 南門通으로 移轉, 經費는 敷地代金으로 充當」, 동아일보 1928년 9월 22일자 기사; 「全州公設市場 大和町에 移轉, 建物建築中」, 동아일보 1928년 12월 10일자 기사.

71) 박선희, 앞의 논문, 122~123쪽.



〈그림 8〉 남문시장의 상가 배치도⁷²⁾



〈그림 9〉 1920년대말 전주 남문시장⁷³⁾

최근무는 『전주풍물기』에서 전주 4문밖시장의 통합과정과 통합된 이후 남문시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⁷⁴⁾

전주에서는 원래 「4문밖」에 시장이 있었다. 즉 동문밖, 서문밖, 남문밖, 북문밖의 시장을 말함이며 개시일은 동문밖, 북문밖장은 4·9일에, 그리고 서문밖, 남문밖장은 2·7일에 서게 되어 있었으나 점차 쇠퇴되어 서문밖, 남문밖장만이 흥성했었다. 그러다가 1923년에 두 곳이 합병되어 남문시장 1개소만 남게 된 것이다.

72) 박선희, 앞의 논문, 2003, 123쪽.

73) 국립전주박물관, 앞의 책, 1998, 11쪽.

74) 최근무, 「되박질에 마음 상하던 곳」, 『전주풍물기』, 전주문화원, 1988, 129~130쪽.

1894년 동학군의 전주 전투시 남문밖의 500여호가 병화(兵火)로 소진되어 복구사업이 지치하다가 백여호만은 연립점포를 건립하여 개점케하고 대부분의 공지는 그대로 장터로 사용되었었다. 별도로 상설점포도 설립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37년 당시 점포는 52동(826평)이었으며 연간 출입한 인원은 186만 9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은 남문시장 남쪽 천변에 제방(방천)이 쌓여져 있지만 방축이전은 물가에까지 평탄한 곳에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혹은 노점으로 또 지붕만 이어놓은 시설 안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채일(遮日)을 쳐놓고 물건을 늘어놓고 호객, 매매행위를 한다.

남문시장은 원래 풍남문에서 매곡교로 내려오는 성곽 밖에 형성된 시장을 일컫지만, 남문시장이 번성하다 보니 이 부근 일대, 특히 전주천변을 따라서 정기적·부정기적 장이 서게 되었다.⁷⁵⁾ 전주교 밑으로는 싸전이 펼쳐진 탓에 전주교는 일명 ‘싸전다리’로 불렸다. “삼베자루에 반도 되지 않게 담은 쌀자루, 팔, 깨, 콩은 물론 보리며 콩깻묵, 누룩도 팔았고, 전국을 상대하는 쌀 거상도 자리 잡았다. 이른 새벽 각종 곡물을 거둬들이는 거상들이 있는가 하면, 헐값에는 팔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⁷⁶⁾” 있었다. 그리고 싸전 주변에는 웅기전과 관을 만드는 빈쟁이들이 관과 함께 미투리와 쥘신을 팔았고, 빈쟁이 가게가 있는 아래쪽으로 잇대어 소금전, 생선전이 있었다. 이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주변에는 주막도 많았다.⁷⁷⁾ 매곡교는 ‘연죽다리’라 하여 주로 담배나 담뱃대를 팔았고, 완산교는 ‘염전다리’라 해서 소금장수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가동에서 완산교를 넘어서 완산칠봉 기슭의 수도골목 앞 전주천 제방은 나무전 거리였다. “새벽부터 임실방면 완주 쪽이나 정읍방면, 심지어는 고산방면에서 몰려든 나무장사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지게에 대나무 2개를 꽂아 하늘 높이 솟구치게 장작을 얹었거나 술독보다 더 큰 바지락에 가득 눌러 담은 술가지와 술방울, 술잎가리를 받쳐놓고 곱방대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 나무장사들⁷⁸⁾”이 있었다. 그리고 완산동 건너편의 완산교에서 전주교 중간 지점까지는 천변쪽으로 판자촌의 하꼬방이 다닥다닥 들어서있었다.⁷⁹⁾ 이처럼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비슷한 물건을 파는 장사들이 몰려 있었던 까닭은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장사꾼)끼리 인접해 있는 쪽이 거래가 편리하고 잘 된다는⁸⁰⁾” 이유에서였다.

75)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학연문화사, 1994, 127~128쪽; 이철수, 『전주야사』, 전주출판사, 1967, 243~246쪽.

76) 송영상, 「전주천변」, 『전주풍물기』, 전주문화원, 1988, 148~149쪽.

77) 송영상, 위의 글, 156~157쪽.

78) 송영상, 위의 글, 147~148쪽.

79) 송영상, 위의 글, 146쪽.

80) 최근무, 위의 글, 131쪽.

한편 우시장과 약령시처럼 「시장규칙」에서 특수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시장도 열렸다. 우시장은 매곡교에서 전주교로 이어지는 하천부지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대를 ‘쇠전강변’이라고 불렀다. 1914년 무렵까지는 자유매매를 했지만, 1915년 전주군 축산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소 한 마리에 2원, 송아지 한 마리에 1원씩의 중개수수료가 부과되었다.⁸¹⁾

약령시는 원래 조선시대에 관의 명령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열리던 한약재가 거래, 유통되던 시장으로, 효종 2년(1651년)에 최초로 개설되었다. 전주에 약령시가 설치된 것은 제주도와 전라남북도에 걸쳐있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고귀한 약재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쇠퇴하였다가 1923년 부내에서 한약방과 진재상을 경영하던 박계조의 노력으로 복설되었다. 전주 약령시는 매년 겨울철 2~3개월 동안만 개설되었고, 본정 우체국 앞을 지나 매곡교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되었다. 전주 약령시 개설 기간에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도 수많은 약재 매매인들이 운집하였다. 시장에서는 약재를 종류별로 산적해 놓고 백기(白旗)에 원산지, 약재 종류 등을 붉은 글자로 표기한 영기(令旗)를 점포 앞에 세워 놓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을 이뤘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외래 인사들에 대하여 여관, 식당 등에서도 특별히 할인우대를 하였고,⁸²⁾ 경범자의 경우 그가 만일 약령시 관계인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당국에서도 관대히 처분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전주지역 내의 영업소는 약령시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약포로 제공하였는데, 가령 내일 약령시가 개장되면 어젯밤에 출산을 하였더라도 오늘 이사를 할 정도로 주민들의 협조가 대단하였다고 한다.⁸³⁾ 그런데 1930년대 들어 전국에서 약령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한때 전주 약령시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전주약령시 영성회는 전라북도 위생과의 도움을 얻어 1934년부터 전주공회당에서 의학강습회를 개최하며⁸⁴⁾ 약령시의 성황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81)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앞의 책, 587쪽

82) “全北 全州藥令永成會에서는 開市日字가 臨迫함에 따라 諸○準備에 ○忙中이든바 지난 3일부터 開市를 하앗다는데 永成會總務 朴季祖氏는 警察當局에 交渉하여 道路邊에 店幕을 新製하여 他地方 藥鐘商의 便宜를 ○히며 臨時로 電氣假燈을 設備하는 등 各飲食店과 旅館을 交渉하여 食價도 低廉하게 하며 될 수 잇는대로 藥令市來客에게만은 後援을 하여 興旺하도록 活動中이며 藥令市에 到着荷物引換代金은 現價五割以內로 하고 ○應하게 한다 하며 모든 設備는 昨年에 依하면 몇倍以上이나 充分히 되어 興旺中이라더라.”(『全州藥令市 三日부터 開市』, 동아일보 1927년 12월 6일자 기사)

83) 양복규, 「팔도사람이 모이는 난장」, 『전주풍물기』, 전주문화원, 1988, 93~97쪽.

84) “전주약령시 영성회에서는 약령시의 대한 대응책으로 전북도 위생과 연합으로 의학강습회를 개최코져 한 다함은 기보한 바와 갓거니와 지난 二十一일에 전주 一한유지 제씨와 협의한 결과 본보(필자: 조선중앙일보) 전주지국 후원하에 오난 二월 三, 四 兩일에 전주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데 강사는 전북도 위생과 清水 과장과 경성 田光玉씨를 청빙한다는데 영성회 간부 제씨는 준비에 분망중이라 하며 一한의생 제씨는 다수 히 참석함을 바란다 고 한다.”(『전주에서 의학강습회 본보지국 후원』, 조선중앙일보 1934년 1월 24일자 기사)

十八일에 전주 약령시영성회 부회장 리강원, 총무 박계조와 리역원 제씨는 전북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듯건대 전주약령시는 지방발전을 목적으로 ○로부터 十년전에 전주 一만 유지 제씨의 열렬한 성의로 수천여원의 투자로 채우고 우량한 성적으로 진행하든바 금년에는 ○○약령시가 한산함으로 영성회에서 그 리유를 조사한바 충남 대전에서 一만 ○○○ 유치코저 의생강습회를 열고 철도국에 교섭하여 귀차할인권 발부한 관계○○으로 그 리유를 열거하여 진정함과 동시에 그 대책으로 전주에서도 대전과 가튼 형식으로 의생강습회를 개최하여야불라는 것이라는데 전북도지사는 도 지방비로는 예산이 업다는 리유하에 전주읍으로 밀우고 산○과장과 협의하라함으로 전○○○을 구도로 진정하였다는데 동영성회에서 그 대책을 강구코저 十八일 오후 九시에 논의코저 한다고 한다.⁸⁵⁾

이처럼 약령시 관계자와 전라북도 당국은 물론 전주시민의 후원에 힘입어 전주 약령시는 1923년 복설 당시에는 418,500원이 거래되었으나, 1936년에는 거래액수가 675,800원에 달하여 대구 약령시와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⁸⁶⁾ 호남지방의 큰 명물로 자리매김되었다. 당시 약령시가 개설되었던 공주의 경우는 거래액이 20만원, 진주는 10만원에 불과하였다고 하니,⁸⁷⁾ 전주 약령시의 규모를 짐작할만하다.

호남지방의 큰명물로 되어있는 전주의 약령시는 사변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개시하여 은성할 뿐인데 금년에도 오는 二十六일부터 제十七회 약령시를 개시하여 내년 二월 八일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한다. 모든 약재는 예년과 같이 약업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영신당 등 대건재무역상들이 대량 수입하여 왔고 당재에 있어서도 총독부에서 대구와 함께 특별히 취급하여 상당한 수량을 배급할 것으로 성황이 기대된다고 한다. 그리고 一월 중에는 도내 약종상, 의생 등 八百여명을 모아 강습회를 개최한다고 한다.⁸⁸⁾

호남명물로 소문났던 전주 약령시에는 조선 전역은 물론 중국, 일본 등지에서 5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건재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뿐만 아니라 생산한 약재를 실어 나르는 우마차의 우수(牛手), 마부(馬夫), 그리고 하주(荷主), 거간(居間)은 물론, 가정상비약을 구하

85) 「약령시 한산으로 醫生강습회 계획, 영성회서 도당국에 진정」, 조선중앙일보 1934년 1월 21일자 기사.

86) 『全州の工商』에는 전주약령시가 복설된 1923년 1회부터 1939년 15회까지의 개시연월일, 종별, 점포수, 취인고(수량 및 금액)가 기재되어 있으니, 더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면 전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938, 19~20쪽을 참조할 것.

87) 박선희, 앞의 논문, 125쪽.

88) 「湖南地方의 名物인 全州藥令市 開催 醫生 藥種商 總集會」, 동아일보 1939년 12월 14일자 기사.

고자 하는 일반인과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날이면 날마다 대량의 물산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지방경제 유통에도 자연히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까닭에 약령시 주변에는 수백 채의 주막과 여인숙 등이 들어서고, 각종 상점이 늘어나 주로 모주와 해장국, 콩나물국밥과 담복장국밥에 비빔밥과 산채나물덮밥, 청포묵, 파전 등 향토색 짙은 음식들이 흥성거렸을 뿐 아니라, 저녁이면 윷놀이와 화투놀이 등 민속놀이가 벌어져 불야성을 이루었다고 한다.⁸⁹⁾ 그러다 보니 약령시는 단순히 약재를 사고 파는 약령시의 기능을 넘어, 전주의 음식과 문화를 전국 각지에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일제강점기 전주지역에서의 상업 활동과 상업공간의 존재양상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등장한 도로망과 철로는 상품유통구조를 객주 위주의 구조에서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개항장과 교통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재편시켰다. 특히 1920년대 이후 철도가 수운을 완전히 대체하여 상품유통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미곡·연초·제사와 같은 부피와 무게가 큰 상품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지역의 정미소·연초제조창·제사공장 등이 전주역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었던 것 또한 이와 관련이 깊다.

둘째, 일제강점기 전주의 상업공간은 이중구조 속의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전주의 상업공간은 도심의 근대적 상업공간과 전통적으로 성장한 남문시장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한편, 근대적 상업공간 또한 재조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대정통과 조선인 자본가와 중국인, 일본인이 혼재된 본정통으로 구성된 이중구조를 띠고 있었다.

셋째, 남문시장은 비록 전통적으로 성장한 재래시장이지만, 1914년 「시장규칙」이 발포되면서 근대적 행정체계 안에 포섭되었다. 행정당국의 허가와 감독, 시장세 징수와 같은 행정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을 근대적 상업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을 근대적 행정체계 안에 포섭함으로써 조

89) 김종명, 「돈따라 문화행사도 출렁이고」, 『전주풍물기』, 전주문화원, 1988, 87~88쪽.

선인의 경제활동과 규모를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였다.

넷째, 1923년에 다시 복설된 전주 약령시는 대구 약령시와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도 수많은 약재 매매인들이 운집하였다. 그러므로 약령시가 개설되는 기간에는 약재를 포함하여 대량의 물산 거래가 이루어져 지방경제 유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약재를 사고 팔기 위해 수많은 외지인들이 전주를 방문하였으므로, 전주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전주의 음식과 문화를 전국 각지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국립전주박물관, 『옛사진 속의 全州』, 통천문화사, 1998.
- 김민영·김중규, 『금강 하구의 나루터 · 포구와 군산 · 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 선인, 2006.
-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 김혜숙, 「1950~1970년대 江景 商人의 존재양상과 상거래 관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9.
-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3.
-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출판사, 2003.
-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96.
- 양미경, 「전주한옥마을과 전주비빔밥의 문화자원화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3.
- 유승렬, 「일제초기 상업변동과 객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6.
- 이정덕 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2006.
-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 전주문화원, 『전주풍물기』, 1988.
- 전주문화재단, 『제1권 일제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2007.
- _____, 『제2권 전주의 8·15 해방과 6·25 전쟁(1945~1960)』, 2008.
- 全州府 編, 『全州府史』, 1943.
- 全州商工會議所, 『商工の全州』, 1938.
- _____, 『전주상공60년사』, 1995.
- 전주시, 『전주시사』, 1986.
-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 2009.
- 전주역사박물관,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 문정사, 2003a.
- _____, 『일제시대 전주읍 행정규칙 자료집』, 문정사, 2003b.
- _____, 『(옛 사진 속의 전주) 전주사람들: 1890~1960년대』, 2007.
- 조선총독부, 『朝鮮人の商業』, 1925.

_____,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허영란, 「일제시기 상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역사비평』 통권 제27호, 역사비평사, 1994.

황명수, 『한국의 시장상업사』, 신세계백화점, 1992.

1950년대 이후 전주 시장의 변화양상

- 전주 남부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

구 혜 경*

<목 차>

- I. 서론
- II.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공존
- III. 지역상권과 연동된 시장거래
- IV. 유통근대화화 시장민영화
- V. 전통시장의 쇠락과 재활성화
- VI. 맺음말

I. 서론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 2008년 시장의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변경되었다. 명칭의 의미로 볼 때, 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일뿐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안에서 삶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일제시기 장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장시의 기능과 역할을 주요하게 다룬다. 대부분 90년대까지 장시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연구가 있다.

새롭게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소비자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

의 구매 형태가 다변화되고,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면서 부터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남부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시민경제와 직결된다고 보는 전통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적 관점, 사회적 흐름의 변화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시대의 변화는 시장의 변화와 직결되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큰 구조 속에서 여러 과정을 보아야 한다. 특히 일제시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독자적 성격이 일본의 시장규칙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시장의 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성과 정치적인 관계가 결합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겪으면서 변화되는 상거래 방식, 해방 이후 근대화를 향한 법률 제정, 문화적인 행위 개입 등도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시장에 작동되는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남부시장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정기시장이었던 남부시장의 성격은 시장의 확장으로 개설되는 점포가 많아지면서 상설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내용은 2장에서 상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구술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전쟁이후 1950~60년대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진행된 지역의 상권과 남부시장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고, 상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재생산이 일상과 만나는 지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1970년을 전후로 유통근대화가 작동되고 상가건물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외적, 내적 변화가 상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각도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5장은 활성화와 침체를 반복하며 굴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남부시장이 정책과 맞물려 재활성화하려는 대응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현대 시장이 사회경제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통해 남부시장의 현재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공존

전주는 한정식을 비롯해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음식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지리적으로 인근의 지역에서 나오는 토산물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신선한 식재료가 빠른 시간에 전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주의 음식문화가 발달한

것은 예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는 전주 부성의 사대문 밖에 네 개의 장이 각각 특화된 품목으로 활발하게 상업활동이 이루어진 농상공업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동문장’은 한약재와 특용작물, ‘서문장’은 소금장수들이 모여면서 ‘소금전’, ‘북문장’은 포목이 주요 품목으로 거래되었다. ‘남문장’은 다양한 품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공간적 규모도 크게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전주교 주변으로 쌀집들이 들어서면서 ‘싸전다리’라는 이름이 생겨나고, 매곡교 아래에는 ‘우시장’, 건너편 천변에는 솔가지 장작장수들이 모인 ‘솔가지전’도 형성되었다. 2·7일에 장이 열린 남문장은 1905년 정기 공설시장으로 개설되면서 농수산물을 비롯한 주변의 특정 품목들이 밀집되는 시장 안의 특화된 시장을 형성하였다.¹⁾ 이외에도 포괄적인 품목을 모두 수용하였다.²⁾ 시장의 규모와 거래량을 보면 전주는 경제적 활동이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1년 매매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보통시장 품목별 1년 매매고³⁾

연도	개시수	1년 매매고 (단위 엔)						비고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기타 잡품	합계	
1935	72	113,480	82,530	28,292	331,140	110,252	665,697	음력 2,7일
1936	73	128,600	89,500	31,800	297,170	121,500	668,550	〃
1937	73	132,700	91,200	32,600	392,507	123,100	772,104	〃
1938	72	119,430	82,080	35,860	595,108	116,945	949,423	양력 2,7일

남문장은 1910년대에 일본인 상점이 서문을 시작으로 도심부로 확장되면서 동문, 북문장이 소멸되고 서문장과 남문장도 1923년 합병되어 남문장만이 유일하게 남는다.⁴⁾ 이후 남문장은 일제의 시장 규칙 뿐 아니라 경제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편되어, 보통시장, 공설시장, 어채시장, 곡물시장·유가증권의 현물시장 등 각각 1호~4호로 구분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31년에는 전주읍이 시장에 사무소를 두어 읍이 직접 관리를 하였으며,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남문장에 대한 확장 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된다.

1) 주영하 외, 『한국의 시장』제3권, 1996. p.170-171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3)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 2009.

4)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 2009, p.584-588

시장의 확장에 따라 건물도 증축되었다. 1936년 8동 36호의 증축을 시작으로 1937년에는 1등 상설점포 25호, 2등 상설점포 11호, 보통상설점포 44동, 어채시장 1동⁵⁾, 사무소, 화장실 등이 세워졌으며, 노점 1,300평의 공간이 마련되었다.⁶⁾ 이 시기에 1년 동안 출입한 인원이 약 186만 9천명에 달했다. 이러한 확장사업은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남부시장이 호남최대 물류집산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근 시·도까지 포괄하며 활발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였다.⁵⁾

남문장은 일제시기에 2·7일에 열리던 정기시장이면서 상설점포의 개설로 상설시장과 공존하는 상권을 형성한다. 매달 여섯 번 정기적으로 장이 열리고, 명절이 임박하면 미리 여러 날을 앞당겨 열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서서히 시장의 형태도 변화된다. 일제시기에 지은 점포는 개인별로 사용자가 결정되고 한 칸에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면서 상설시장의 기능은 강화되었다. 또한 길 가까운 곳에는 다른 점포들도 형성되어 상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장 안쪽이나 냇가 가까운 곳은 장날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기도 했다. 이는 잦은 홍수 피해로 1937년에 전주천 제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변쪽으로는 노점과 가설점포들로 이루어졌다. 새로 형성되는 점포는 노천에 있던 옹기점이나 대장간이 차츰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점포들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도 상시적으로 활발한 상업활동을 하면서 자연히 5일장이 사라지고 상설시장으로 정착되어갔다.⁶⁾

“시장 어느 술집 가게 처마 밑에서 리어카 한 대를 얻어 야채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제법 잘되었어요. 그때 남문시장은 가게는 작아도 일본사람들이 지으면서 길은 크게 넓혔기 때문에 길 양쪽에 리어카를 놓고 장사를 하는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성○○, 남, 1932년생)⁷⁾

구술 내용에서 보듯이 남문장은 상설시장으로 정착하면서 점포에서의 거래와 더불어 점포 앞에도 많은 상인들이 노점을 차렸다. 또한 전주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온 개인들이 천변 제방을 따라 펼쳐놓아 다양하고 풍성한 품목들이 거래되었다. 시장 안쪽에서는 돼지국밥, 콩나물국밥, 대포집 등이 생기면서 새벽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5) 전주에 신선한 어채를 공급하기 위해 1932년 전주어채주식회사를 조직하여 어채시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국역전주부사』, 2009)

6) 홍성덕, “남부시장의 희망가, 그 변화상”, 『문화저널』, 2005. 10

5)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 2009, p.584-588

6) 장명수 엮음,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제1권 -일제 식민시대 구술실록』, 2007, p.445-449

7) 성○○은 1945년부터 남부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현재에도 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인조직 결성, 민영화 등 정책변화에 따른 남부시장의 변화를 주도한 중심인물이다. (구술내용은 앞의 책, p.445)

상인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렇듯 남문장은 일제시기 정기시장으로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는 큰 시장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시장규칙에 의해 형성된 점포들이 개설되면서 상설시장과 공존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모한다. 이후 더 많은 점포들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정기시장은 사라지고 상설 시장이 완전히 정착되어 전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5일장에서 볼 수 있었던 인근 지역의 개인들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나와 상설시장으로서의 역할은 풍성하게 형성된다.

Ⅲ. 지역상권과 연동된 시장거래

남문장은 여러 형태의 상거래 방식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상인들이 존재한다. 긴 시간 동안 한 품목, 또는 여러 품목을 거쳐 시장에 정착한 상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역사적 맥락에 놓여있다. 현재 시장에는 50년 이상 점포를 지키고 있는 상인, 자식에게 대를 물려주어 가업을 잇게 한 상인,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여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상인, 최근 유입된 상인 등 다양한 층위의 상인이 형성되어 시장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집적하고 있다. 오래 경력을 가진 상인의 기억 속에서 해방 후 시장의 모습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사례로 ‘짐 나르는 사람’이 시장 안에 있을 정도로 물건 구매량과 횟수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매곡교 근처에 지게나 군에서 켜던 수레를 세워놓고 이들이 모여 있으면 상인이나 물품구매자는 일정금의 배달료를 주고 남문장에서 원하는 곳으로 물건을 옮겨주는 일을 한다. 지금은 사라졌고 언제까지였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50년대부터 꽤 오랫동안 생업으로 짐나르는 일은 유지되었다.

“53년에 남부시장으로 들어왔어. 처음에 군 리어카를 끌었어. 그때는 차가 없는 시대라 손수레를 당시 약관을 냇가에서 불렀어. 지금 주차장이 냇가. 무시나 무슨 채소 같은 것을 구루마로 싣고 가고, 소로 싣고 가고, 배달을 해야 할 판인데 우리 구루마로 얼마 받고 집도 실어다 주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 수레가 없으면 지게로 품 팔고.” (성△△, 남, 1932년생)

당시 구매한 물품을 수레에 실어 운반할 정도로 많은 양을 구입한 부류는 중심시가지

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50년대 팔달로⁸⁾ 중소기업은행 (옛 전주시청)에서 풍남문 사이의 도로변에 판잣집으로 형성된 음식점들과 옛 도청 인근의 백반집의 식재료 구입은 남문장의 풍부한 농산물 거래와 무관하지 않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남문장에 주변 지역의 농수산물이 집결되고 있어 여기만큼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주 의 대표적인 음식을 유명하게 만든 기반에도 한 몫 한다. 해장국으로 불리던 콩나물국밥은 일제시대에 완산동에서 시작하여 전주천을 끼고 다가동까지 번성하였다. 전주 인근에서 남문장으로 오랜시간 동안 걸어 온 상인들은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그냥 먹을 수 없어 국물에 밥을 데워서 주는 국물만 사먹는 방식으로 허기를 면했다. 이것이 콩나물국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 값싸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던 국밥은 남문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백반집의 경우는 도청이 행정을 시작하면서 외지의 많은 정치인, 행정가, 사업가 등이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찾는 일이 많아지고, 유동 인구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밥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밥집은 한 상 차려진 고급스러운 한정식을 비롯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반찬이 많은 밥상을 내놓았다. 여기에 사용한 농수산물, 부재료, 생활용품은 대부분 남문장에서 구입한다. 남문장과 시가지 상권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필요한 물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술회관 앞에 한국집 말야. 세대를 올라가면 한국떡집이라는 집이야. 떡을 팔다가 설날 같은 날에 떡국을 좀 팔아요. 6.25때 직후에 먹을게 없으니깐 잘 팔리고 해서 객사앞에 거창하게 시작해요. 그 다음이 전주우체국 앞에 골목에 성미당이 생겼어요. (중략) 1958년부터 부월옥도 생겨서 교자상 밥이 처음 나왔어요. 비싸다니까 5만원 했으니까 비싸. 너무 비싸서 외지에서 전주에서 6.25 후니까 이동인원이 많아져서, 군대들 이동, 갔던 사람, 왔던 사람, 뭐 많이 이동이 되다보니까 밥이 무엇이냐 한식집이다 하고 백반집이다 하고, 천원 백반짜리라고 생겨요. 그게 죽림집이야. 지금 죽림집, 구도청 옆에 있어요.” (이△△, 남, 1928년생)

쌀을 다루는 양곡상도 인근 상가 상가에 납품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쌀은 주식으로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만드는 ‘오성주장(현 전주공예품전시관 자리)’ 과 같은 양조장에도 납품하였다. 많은 양의 쌀을 필요로 하는 양조장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대규모 거

8) 팔달로는 1937년 전주부의 3년 연속사업으로 시행된 ‘시가지 정비공사 연도별 계획’에 의해 북문~역전간 도로에서 부청사 방향으로 계획된 폭원 22m, 길이 427m로 개설되었다. 1967년 10월 19일 십이칸 도로인 이 길을 ‘팔달로’로 명명하였다.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2004)

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또 다른 품목은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을 시내에 있는 제과점, 중화요리집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기도 했다.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설탕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기 삼성사라고 도매점이 있었어요. 대리점. 그러니까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여기 삼성사 있을 때 인제 제과점, 중화요리 집 그런데를 아버님이 쪽 관리하면서 대주셨죠.” (정○ ○, 남, 1958년)⁹⁾

전주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과 연결된 남문장은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거래형태와 구성도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거래형태를 분류하면 산지에서 들어온 물품들이 모이는 경매장에서의 거래,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넘기거나 주변 상가로 들어가는 거래, 마지막으로 소매와 지역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래로 구분된다. 1932년 어채시장으로 승인 받은 이래 현재 상가건물인 8동 자리에는 생선, 1동은 청과, 야채, 과일 약관이 있어 산지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을 경매로 도매점과 주변 상가 등으로 팔려 나간다. 또한 1965년 전주원예농협에서 농산물 공판장을 개장하면서 부터는 더욱 활발한 상거래가 진행되었다. 공판장은 도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매까지도 시간차를 두고 이용되어 상인을 비롯한 전주시민의 기억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993년까지 공판장이 지속되었다가 송천동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남문장의 거래에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후에 상인들은 이 공판장이 이전되면서 상업활동의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회상한다. 이밖에도 개인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상가에 도매로 넘기거나 천변 주변의 노점에서 소매로 팔기로 했다. 이러한 큰 거래와 작은 거래의 공존은 시장 내의 상거래를 촘촘하게 메우고 있어 활발한 거래를 뒷받침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상인의 일상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950, 1960년대 남문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상인중에는 농촌에서 먹고살기 어려워 도심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친척의 도움은 이들을 빨리 시장에 정착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

“내가 열두 살 때(1943년) 시장에 나왔어. 지금 전북마트 자리가 약관이야. 거기 와서 우리 사돈댁에 와서. 일하면서 돈을 받고 그랬어. 그때 나를 착실하게 봐가지고 과수원 관리하는데 열매만 사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 난 다음에 1년

9) 1917년생인 아버지가 장사하던 곳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상인으로서, 어렸을 때의 기억을 구술함.

지나고나서 너 혼자해도 되겠다 해서 나도 자립했어. 그래서 젊었을 때는 경매도하고 그랬어. (성○○, 남, 1932년생)

또는 농촌에서 도심으로 시집을 왔지만 어려운 도시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광주리 하나로 장사를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매점에서 물건을 조금 가져와서 광주리나 좌판에 놓고 노점을 시작한 상인들이 꽤 많다. 천변을 중심으로 많은 노점이 형성된 것은 전주 인근 농촌의 직접재배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전주에 살면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나온 상인도 포함되었다.

“충청북도 보은이 고향이다. 참으로 곱게 컸는다. 중매로 시집을 여기 전라도로 왔어. 세상에 생전에 보지도 못한 이 장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장사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그랬어. 아니 장사를 한다고 해 놓고는 노점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니게 내가.” (김○○, 여, 1939년생)

“나는 김제에서 머슴 부리면서 살았어요. 김제는 부자가 많잖아. 우리 집도 머슴이 겹나게 많았어. 그런데 우리집 다니는 일하는 아줌마가 나를 잘 봐가지고 전주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시집을 왔지. 도심으로 시집온다고 동네에서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완산동 저기 꼭데가 물도 안나오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시집 식구가 아홉이. 모두 한집에 살고 있는거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은거지. 그래서 안되겠다고해서 여기(남문장)를 나와가지고 고추를 조금 받아다가 팔기 시작한거여. 무작정 길로 나와서 팔았지. 그러다 여기까지 온거여.” (황○○, 여, 1938년생)

전주의 인근 농촌지역이나 외지에서 전주로 시집을 온 여성들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시장으로 나와 경험도 없이 장사를 접하게 된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한 품목을 조금 떼어다 노점에 자리를 잡고 점점 품목과 수량을 확대하면서 장사 기반을 잡는다. 이들의 수입이 증가되어 형편이 좋아질수록 상가를 사거나 집을 옮기면서 생활의 안정을 추구한다. 노점으로 하는 장사의 고단함은 이들의 억척스러운 근성과 맞물려 자식들을 키우는 것에도 열의를 가진다. 나이가 많은 상인들 대부분은 학교에 가기 어려워 배움이 짧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한

다. 한 상인은 장사를 하면서 자식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는 자부심을 대화 속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어 스스로 가지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인들 스스로의 자부심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자본을 상가나 생활공간을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에서 나타난다. 남문장 상인중에는 상가에 방을 들여놓고 상업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꽤 있고, 완산동과 서학동 일대에서 세를 얻어 산다. 이곳은 집값이 싸고 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일찍부터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몰린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물을 길어다 먹는 집도 많아 완산동 언덕위에 사는 사람이 밑에 있는 우물(현 완산교회 부근)까지 다니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 완산동은 경제적인 기반이 확장될수록 위쪽에서 점차 아래쪽에 있는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을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남문장 상인의 삶은 시장에서의 생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역상권과 연계되어 시장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축적되는 재정적인 안정이 주거환경개선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시장 상인에 국한된 양상은 아니지만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시대적인 변화흐름 속에서 상인들도 자신들의 공간적 영역을 통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IV. 유통근대화와 시장 민영화

남문장은 1930년대 상가건물이 형성되고 지자체가 직접 소유하여 상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전쟁 후에도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60년대 접어들어 근대화 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시장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1961년에 제정된 ‘시장법’은 민간에 의한 시장 개설을 가능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민간 시장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정책적으로 근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시기와 맞물려 전주시는 남문장의 근대화를 위해 기존 시장 형태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벌인다. 1968년 11월 15일 착공하여 45일 후에 완공을 계획하고 1969년 2월 15일 870평 141칸의 상점을 마련하는 1차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¹⁰⁾ 사유지(6,051평)와 민유지(1,652평), 협동사(597평) 토지 등에 새로운 건축물 11동(2,347개 점포)을 완공하여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시설로 바뀐 남부시장의 상가는 이전 건물보다 상가

10)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60년 일지』, 2009, p.98

숫자가 늘었지만 상인에 비해 상가는 부족하여 일부만 입주할 수 있었다. 또한 입주가 어려웠던 이유는 임대비를 지자체에 지불해야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다. 입주하지 못한 상인들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상가건물 주변에서 노점으로 형성되었고, 여기에 인근 지역에서 비정기적으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개인들이 합세하면서 다양한 품목을 사고파는 소규모 거래를 활발하게 하였다.

시장의 근대화는 10년을 주기로 외적, 내적 변화를 가진다. 외적으로는 1968년 상가건축을 시작하여 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남문장 민영화 사업에 착수한다. 시장의 바깥쪽 상가부터 매각이 이루어졌고, 점차 안쪽으로 개인에게 매각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가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임이 드러나게 되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지자체는 무허가 건물을 매각할 수 없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 허가를 내려는 노력을 하거나 매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매각을 강행하여 조합형태의 단체에 넘겨져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었다. 그러나 나머지 상가는 개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분양을 받으려는 상인들과 매각을 완수하려는 지자체 사이에서 해결의 카드로 등장한 것은 상인조직을 통한 단체로서의 분양이었다. 1976년 조직된 ‘남부시장 번영회’ (이하 번영회)¹¹⁾는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한 매개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그래서 1978년 민영화는 완료되었다. 번영회의 회원은 자발적인 가입이라기보다는 상가 분양을 의도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일부 상가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번영회이고, 실제 주인은 번영회에서 발급한 ‘권리증’을 가진 상인이다. 이때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조직을 결성하고 남부시장 번영회를 이끈 초대 회장은 28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남부시장의 대내외적인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시장 상인의 여러 편의를 위해 시장 내에 새마을금고를 개설하여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초대 회장은 상가를 사고팔거나 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며 상가 매매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무허가여서 상가가 담보설정이 안되지만 임의적으로 대출도 가능하게 만들면서 상인들은 무허가나 권리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역할을 수행했다. 상업활동의 편리함 때문에 번영회 회원의 결속력은 그물망처럼 잘 엮여져 왔다. 남부시장 번영회는 회원가입에 의한 조직 구성이 아니라 상가를 소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어야 하는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남부시장 내부에 있지만 번영회와 권리증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가는 이 조직에 가입할 의

11) 남문장, 남문 밖 장으로 불리던 시장은 전주부성의 남쪽 문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형성된 시장이라는 의미로 불리었다면 상인조직이 결성되면서 정식 등록한 ‘남부시장 번영회’라는 명칭에서 남부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석됨. 본 연구의 전개과정에서 표기되는 이후의 명칭은 남부시장으로 함.

지를 보이지 않는다. 임대일 경우에는 변영희의 설득에 의해 회비를 납부하고 참여하기도 하지만 회원으로서 활동은 소극적이다.

상가건물이 민영화를 이루면서 분양받지 못한 상인들은 여전히 상가 주변에서 노점 형태로 상업활동을 한다. 주로 상가 건물과 맞닿아 있는 천변가로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전주천 건너편 둔치에는 새벽 4시정도부터 아침9시까지만 열리는 새벽시장이 2000년대에 형성되어 있다. 상가 건물에 있는 상인들은 노점에 대한 불만이 꽤 존재한다. 천변가 노점은 새벽시장의 역할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영향이 많은 것이라는 논리로 노점 철거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지자체에서도 가로정비를 위해 노점철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가건축 이후 1971년 300여개의 노점을 강제철거하는 시도를 강행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법일 뿐 노점은 여전히 천변가로를 뺄뺄하게 메울 만큼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노점을 철거하기 보다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1988년 국제행사를 앞두고 천막 부스를 설치하고 나머지 노점을 정리했다. 천막 부스가 완성되고 입주하는 과정에서는 심하게 갈등도 드러난다. 천막 부스는 일정한 규격을 부여받는 것이어서 노점상의 숫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공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강력한 항의를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후에 6동 2층에 천막건물을 설치하여 일부는 ‘새마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흡수되었다. 노점은 시장거래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천변의 천막형태 부스는 일정부분 규제의 틀 속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의 형태는 규격화된 천막이 노후하여 플라스틱으로 교체 된 160여개 부스형태로 바뀐 모습이다.



[사진 17] 천변가설점포와 상가건물



[그림 18] 천변 새벽시장 (오전7시경)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공간이 부스형태로 바뀌어 더욱 노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난다. 특히 지자체와 해마다 임대료 없는 재계약을 하고 있어 지자체와 공식적으로 임

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상가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 ‘천변상인회’를 결성하여 친목도모를 하고 있고, 이 조직의 큰 역할 중 하나는 고령층 상인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계약관련한 일을 전체적으로 상인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다. 풍남문을 중심으로 한 상점가로는 ‘풍남문 상인회’라는 조직에 의해서 관리하고 결속력을 가진다.

남부시장의 내적변화는 상인들의 결속력을 강조하는 상인조직이 형성된 점이다. 공간적 구분에 의해 각각 밀집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조직력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가 분양을 위해 형성된 조직 등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조직력을 활용한다. 따라서 조직을 형성하는 내적 움직임은 남부시장을 변화시키는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80년 제정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과 1981년 시장법 개정은 시장의 개설과 운영, 유통체계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였다. 남부시장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전주시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설립되고 1993년 도매시장의 역할을 주도했던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을 송천동으로 이전시키면서 시장의 규모와 기능이 축소된다. 이 문제는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한다.

“IMF전에도 안됐지만 그 이전보다 더 안되는거 같아요. 양판들이 가버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온다고 봐야죠. 그때만 해도 장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약관이 없으니까.” (김△△, 남, 1950년생)

“전주시를 총괄하는 공판장이 야채, 생선하는 공판장이 송천동으로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타격이 심하지.” (이○○, 남, 1946년생)

전통시장¹²⁾의 침체는 상인들이 체감하는 것처럼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여기에는 공판장의 이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12) 전통시장은 원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중소기업청에서 2008년 4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선포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래시장 대신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정책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12월 법제명도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유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으로 통일한다.

V. 전통시장의 쇠락과 재활성화

우리나라에서 유통시장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대형 유통업과 국내 기업의 유통산업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방문 판매와 같은 무점포 영업이 성장하면서 부터다. 이와 맞물려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구매 패턴이 변화되어 전통시장은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 결과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른다. 2002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기존 무허가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04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¹³⁾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의 노후한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기법의 혁신, 시장 정비 등과 관련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쇠락 요인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남부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상인이 체감하는 자체적인 쇠락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64년에 개장한 농산물 공판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중심역할을 해왔지만 1993년 도매시장의 밀집과 지역상권을 균등하게 분산시킨다는 지자체의 명분 아래 송천동으로 이전한 점이다. 공판장의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남부시장을 도매시장으로 지탱해주는 큰 유통흐름을 이전시킨 것이었다. 이후 도매보다는 소매 형태가 주요 거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매는 대형 유통구조에 의해 이미 상권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여서 남부시장의 쇠락은 더 가속화되었다. 둘째, 남부시장을 관통하던 시내버스 노선을 천변 건너로 이전시킨 점이다. 천변가는 노점상의 주요 상업공간이다. 1988년 천변 갖길의 노점을 정리하기 위해 163개의 가설점포를 천막으로 설비하고, 천막에 들어가지 못한 노점상은 길 중앙에 노점을 유지시키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 버스 노선은 재개되었고, 1997년은 다시 통제, 2001년은 운행 재개, 현재는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시장 내의 버스 운행을 놓고 통제와 재개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상인은 버스노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버스가 남부시장 안에 정차를 해야 시장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노점이 많아야 시장이 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남부시장은 사회전반의 쇠락 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시장의 기능이 약화된다. 지금도 상인들은 시내

1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은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재래시장 낙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정한 한 시법으로 2014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용기간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버스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길가로 나온 좌판과 파라솔 등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시장변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1년 노후하고 위험이 있는 편의시설을 5억 1백 27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색, 간편 시설 확충, 방수 등의 시설 보수 유지와 관련한 지원을 시행하였다. 2003년에는 상가 건물 사이의 비가림 기능을 하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하였으며, 2005년에는 남부시장 100돌을 기념하여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시장의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을 위한 시장 정비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진 19] 비가림막공사 후 상가



[사진 20] 비가림막 공사를 하지않은 9동상가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대형 마트와 같은 소비 구조를 만들어 시장을 특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외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지자체는 지원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닌 경영 마인드 개선과 상인의 인식 변화 등을 강조하는 시각이 대두된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다양한 시도를 낳는다. 중소기업청의 지원 하에 상인들의 경영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인 대학을 개설하고, 문화상품권을 시장에 유통시켰으며 문화가 있고 지역정서가 살아있는 시장으로 만들어내고자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여전히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지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이 전환되었다. 남부시장은 2007년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진흥원의 지원으로 ‘남부시장 이야기’ 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2009년에는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벤트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

원정책의 내용 변화는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도 경제산업국의 경제진흥과 내에 도심진흥계를 두고 시설현대화 사업과 문화행사 사업을 구분하여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방시설, 도시가스시설, 주차장 확보 등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관련한 지원이 우선시 되고 있다. 남부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개선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비해 문화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예외적으로 이 시기에 풍남문 상점가가 동부시장과 함께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시장 지원을 받았다.¹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러 시도를 거치면서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우선 중소기업청 중심이었던 지원정책이 다양한 부처로 확대된다. 2008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약칭 ‘문전성시’)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2~3년의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단기적 사업에 대한 단점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수원 못골시장과 강원도 주문진시장이 선정되어 사회적 관심과 문화예술인의 유입을 확대시키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남부시장은 이 사업에 2011년에 선정되어 2013년까지 진행한다. 문화적 접근으로 전통시장의 변화를 모색한 ‘문전성시’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장 선정을 마치고 2013년까지 지원을 한 후 사업이 종료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지원도 ‘문전성시’ 사업의 성격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경우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 환경개선과 문화적 접근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남부시장은 유통시장 개방이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의 관심과 변화 속에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다. 지원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노후한 건물을 개선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대형마트를 견제한 외형 변화에 주력하였다. 이후 내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상인 대학과 같은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방식을 문화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원정책이 단계적으로 변화된 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반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어서 문화예술단체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4) 풍남문 상인회는 동부시장(동문상인회)과 풍남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점가(풍남문상인회)를 묶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2009년 3월 지정되어 국비 56억이 투자되고, 전주시에서 37억이 지원되는 총 사업비 93억원의 지원을 받아 2011년 12월 까지 진행되었다.



[사진 21] 2000년 상인조직 주최
노래자랑



[사진 22] 2000년 노래자랑 관람

문화예술의 시장 유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주체에 따라 상인조직은 가요제 형태의 이벤트성이 강한 행사를 주로 유치했다. 반면 문화예술관련 주체는 문화예술교육, 공공예술, 커뮤니티 프로그램, 레지던스, 등 시장에 예술적 감성을 외적, 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펼쳐졌다. 시장을 무대로 예술가들의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상인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일부 부각되었다. 2011년 문전성시 사업 중 상인 동아리 ‘속풀이 품물단’의 경우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진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시장에 거주하는 레지던스 형태의 사업도 대외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장을 향유의 대상이 아닌 참여의 공간으로서 해석하여 시장과 동화될 수 있는 적극성이 나타난다. 레지던스 형태는 예술가가 시장에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과 청년들이 상인 입장에서 시장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 때 청년상인의 품목은 공예품, 찻집, 디자인 등 손수 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한다. 공산품보다 수작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존 상인과 중복되는 품목이 없다. 상업활동을 통해 문화적 활동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난다. 문화예술활동은 상인과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아직은 적게 나타난다. 초기 청년상인의 등장은 상인에게 장난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야시장’을 통해 대외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자 상인들도 조금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상인은 현재진행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시장의 주 소비자가 노년층이었다면 20, 30대 젊은 층의 왕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사진 23]

2011년 ‘속풀이 풍물단’ 문전성시
사업 중 상인커뮤니티 프로그램



[사진 24]

2011년 ‘레알 뉴타운 청년몰’ 문전성시
주요 사업 중 하나 (6동 2층)

Ⅵ. 맺음말

남부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서를 간직한 유통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호남 최대의 물류집산지라는 명성과 함께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 일제시기 2·7일에 열리던 정기시장은 1936년 건물이 증축되기 시작하면서 상시적 상업활동이 가능한 상설시장으로 서서히 전환되었다. 상설시장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은 시장규칙에 의해 형성된 점포와 길 가까운 곳에 다른 점포들이 형성되면서 부터다. 전주천변 쪽은 잦은 홍수피해로 가설점포나 노점이 주요하게 자리 잡았다. 또한 5일장에서 볼 수 있었던 전주 인근의 개인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들고 나와 시장 상거래를 다층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업공간의 구분은 1937년 전주천 제방이 건설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남부시장의 활발한 상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남부시장의 활발한 상거래는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시작된다. 도청소재지가 있는 전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작용되어 풍부한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시장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상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콩나물국밥, 한정식 등의 음식점, 양조장, 제과점 등이 시내에 확대되면서 인접한 남부시장의 신선한 재료들이 공급되었다. 지역상권이 활발해질수록 남부시장의 경제활동도 그만큼 많아 상인들의 경제적 기반도 높아진다. 1950, 60년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상인중에는 인근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 친척과의 연계나 시집을 온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 노점상을 시작했고, 점차 형편이 좋아지면서 가게를 얻거나 넓히고 집을 장만하는 등 경제적인 재생산 활동을 했다. 상인들은 이 시기를 남부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1968년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민영화를 이룬 1970년대 말에도 근대화를 추구하는 시장 공간은 활발한 유통의 공간이었다. 외적인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상가건물 건축은 점포에서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지만 상가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노점상들은 여전히 천변가를 중심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인 구분에 의해 상인들은 목적과 목표를 달리한 상인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상업 공간에 대한 위치를 확인시켜나갔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조직 간의 권력을 형성하려는 갈등도 발생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상업활동의 주요 목적인 시장거래에만 주목하고 있다.

경제중심지였던 남부시장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1993년에 공판장이 이전하면서부터라고 본다. 시장의 침체는 남부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 유통의 큰 전환점을 제시하면서 침체가 본격화되었다. 2004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차원의 지원과 민간차원의 문화적 개입이 유입된다. 대부분 시장활성화를 외형적인 편의성에 두고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문화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주도적인 활성화는 청년 상인을 유입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기존 상가의 품목과 달리 변화된 품목으로 새로움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청년 상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6동 2층공간은 한때 새마을시장으로 변성했으나 2000년 화재 이후 상가를 천변으로 이전시킨 뒤 다시 재개되지 못해 빈 공간이었다. 이곳에 카페, 수공예, 디자인 등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전혀 다른 컨셉으로 젊은 층을 유인하고 있어 생경하면서도 관심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들의 문화적인 상업활동을 계기로 기존 상가 안에 카페가 생긴 것은 남부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단추라고 생각한다.

남부시장과 같은 시장의 변화는 지역의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반영한다. 시장에는 다면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삶을 반영하고, 경제적인 유통구조, 사회적 맥락, 문화적 행위, 정치적 작동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의 본래 기능은 오락과 유희가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포괄한 종합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유통근대화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상업활동에만 주요 목적을 두고 있어 시장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기능 축소는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노

력 속에서 시장 속에 녹아 있는 다면적인 기능을 확대하려는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겠지만 새롭게 보려는 시도에서 진정한 활성화의 의미를 찾아야한다.

【참고문헌】

- 김성수, 2007, “재래시장 상인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
- 정대용·김춘광, 2007, “재래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시장상인들의 평가와 재래시장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 조형근, 2005 “식민지기 재래시장에서 시장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변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순열·원용찬, 2003,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 유대근, 1994, “전주남부시장의 상권현황과 재활성화 전략”, 『전주우석대학교 논문집』 16
- 전주문화재단, 2007, “일제 식민시대 구술실록” 『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 제1권
- 전주문화재단, 2008,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 제2권
-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2009 『전주시 60년 일지』
-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9, 『국역 전주부사』
- 전주역사박물관, 2004,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학연문화사
- 주영하 외, 1998, 『한국의 시장』 제3권, 공간미디어
- 허영란, 2005, “일제시기의 장시변동과 지역주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덕, 2005, “남부시장의 희망가, 그 변화상”, 『문화저널』, 마당
- 홍성흡, 2004 “지방 정기시장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 『한국경제지리학회』 7(2)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변화

소순열*

<목 차>

- I. 머리말
- II. 전주와 전북경제
- III. 전주경제의 구조와 변화
- IV. 공업도시로의 좌절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일제강점기 전주의 경제구조 및 그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경제구조란 생산요소나 가격 같은 경제적 요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시키는 기본 틀을 말한다. 경제 구조 변화는 생산되는 상품과 생산주체들의 성격과 구성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정책은 생산되는 상품과 생산주체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글은 ‘상품구성’과 ‘생산주체 구성’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전주경제의 ‘구조’, ‘구조변화’, ‘구조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주가 전북 경제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업도시로의 전환을 꾀한 1930년대 후반의 공단 조성에 대해 검토한 뒤, 그 연장선상에서 근대 전주경제구조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전북대학교 교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언급할 점이 있다. 첫째, 근대 도시, 특히 지방도시의 경제를 다룰 때 자료의 제약 문제이다. 손정목의 일련의 통사론적 도시사적 연구 이래¹⁾ 개항 100주년을 맞아 항구 지방도시의 전체상을 묘사하는 저서들이 출판되었다.²⁾ 이 업적들은 나름대로 전형적인 근대식민도시의 전형을 밝히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근대 지방도시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연구 수준에서의 검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 경제분야에서는 서울이나 부산을 제외하면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근대 부산경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물³⁾이 나왔지만, 전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 글은 자료의 발굴이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한 입문적 성격의 작업이다. 다소 부조적 수법으로나마 근대 전주경제구조의 변화 양상을 도출하면서, 새로운 연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둘째, 전주경제구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근대 식민도시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이중도시론으로 식민지 도시구조의 내부공간을 이해해 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구역으로 분리된 이분법적 틀은 주로 도시경관이나 인구분포, 상업 및 금융 시설 분포에 관한 기본적인 분석틀로 고정되었다. 식민도시 전주와 관련된 연구도 이러한 연구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⁴⁾ 이 글은 이러한 인식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도시구조가 근대와 전근대, 지배와 피지배, 중심과 주변으로 보이더라도 경제구조는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 사이의 상호의존 혹은 상호배타 관계를 띠고 있기 마련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구조는 전통적인 재래성을 기반으로 변용해 나갈 수 있다.⁵⁾ 어떻게 변용하느냐는 각 지역의 사회전체의 질, 즉 재래적인 문화성·전통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주라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이중도시론을 지지해 주는 도시경제의 내부구조와 변화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셋째, 전주구역의 확대 문제이다. 전주는 1914년 고산군을 통합하여 전주군이 되었고 1930년 전주군 이동면 노송리 등 6개리를 편입하여 전주군 전주면으로 되었다가 1931년

1) 이 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저서는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96이다.

2) 허정도,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 마산』, 신서원, 2005.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영정 외,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2006. 坂本悠一·木村建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 등.

3) 박섭·장지용편, 『부산의 기업과 기업자 단체, 1900~1945』, 해남, 2010. 이 저서는 1999년 지역연구자를 중심으로 부산경제사연구회를 만들고 2년간에 걸쳐 공유재산으로서 1945-2000년 생산·노동·교육·문화·무역·금융·재정 통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하고 근대 부산의 경제성장과정을 해석한 성과물이다.

4) 박선희는 일제강점기 전주의 상업공간은 대정통(大正通)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상업공간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상업공간이 각각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5호, 2003.3).

5) 이러한 '재래산업발전론'의 시각은 전주경제구조를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는 勝部真人編, 『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外来と在来』, 清文堂, 2010 등.

전주읍으로 바뀐다. 이후 전주는 1935년 전주부가 되고,⁶⁾ 이전의 전주군은 완주군으로 분리된 뒤, 1940년에 완주군 이동면이 전주부로 편입된다. 이의 구역을 분리해 낸다는 것은 보다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의 변화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II. 전주와 전북경제

전주는 예로부터 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읍으로 평양과 함께 조선 3도라 칭했으며 호수도 1만이 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호수는 매년 감소하다 1894년 동학혁명 때 병화로 인해 수백 호가 사라지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⁷⁾

전주는 ‘전라도는 한국 가운데 중진(重鎭), 중진의 수뇌(首腦) 전주, 이조(李朝) 발상의 영지(靈地)’로 알려져 있었다⁸⁾. 러일전쟁이후 일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909년에는 320호, 820명이 되었다. 당시 진출한 일본인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표 1〉). 행정관할 도시답게 전주의 관리는 212명(전체 유업자의 37%)으로 가장 많고, 대공직(大工織)이 76명으로 다음을 잇고 있다. 그러나 잡화상·과자상 등 소자본이 필요한 업종, 숙박업·작부·잡업·이발업·요리실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는 244명으로, 서비스업이 전체 유업자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어 전주는 소비도시의 색채를 띠고 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일본인은 18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주를 교두보로 삼아 전주의 배후지인 서부평야지역에 진출한 자들이다.⁹⁾

1910년경 주요 농공산물의 생산액(또는 생산량)을 보면,

미곡 156,00석, 대맥 27,000석, 소맥 12,000석, 대두(大豆) 7,000석, 소두(小豆) 2,000석,

-
- 6) 전주가 1935년에 가사야 부(府)로 승격된 것은 전주가 식민지 지배의 새로운 거점도시로서의 기능, 통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김영정, 「일제시대의 도시성장-군산시의 사례」, 『한국사회학』, 제30권 제1호, 1996. 615쪽). 1914년 인구 18위의 군산이 인구 12위의 전주를 제치고 부로 지정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정한 부의 기준인 ‘일본인 거주자가 많은 시가지’에 따른 것이다(손정목 1996, 55쪽). 조선총독부의 의도는 다수 일본인이 거주한 사실상 일본화한 도시를 부로 하여 집중개발하려 한 것이다.
- 7)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 2009, 204쪽.
- 8) 福島士朗 編, 『李朝の全州』, 1909, 3-4쪽. 이 책은 일본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한 안내서이다. 이 시대의 안내서처럼 일본인들의 전주평야(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펼쳐진 전주, 익산, 군산, 김제를 비롯한 완주, 부안, 고창 등의 서부평야)에 대한 식민을 장려하고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일종의 지침서이다.
- 9) 대표적인 농업경영자는 당시 전주군 월곡리에 농장사무소를 둔 三菱계열인 東山農場 전북지부이다. 동산농장은 1908년 자본금 43만원을 들여 전주군 외 2개면에 1,500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다(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2003, 205쪽).

생강 18,000관, 실면(實綿) 18,000관, 엽연초 15,000관, 부채 15,000원, 종이 52,000원¹⁰⁾

이다.

당시 전주의 정례시장은 매월 2, 7일로 한 달에 6회 정도 서문, 남문 밖 천변에서 차례로 개최되었다. 1회 거래액은 약 3천5백원 내지 4천원 정도이었다. 주로 이 시장에서 전주시장은 주로 금구, 원평, 임실, 남원, 진안 등에서 온 생산물과 함께 전주는 물산의 집산기능을 담당하였다.¹¹⁾

다음에는 경제구조의 기초인 전주의 인구추이를 살펴보자. 전주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행정구역의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주는 1930년 7월, 1940년 11월 두 번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14년 528천평이었던 전주는 1930년 약 2,895천평, 1940년 7,746천평으로 확대되었다.¹²⁾ 1930년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철도의 개통에 따른 전주발전과 학교조합구역과의 일치, 1940년의 확장은 주택문제의 완화, 공단 조성이 주된 이유였다.¹³⁾

10) 全北日日新聞社, 『全羅北道案内』, 1914, 120쪽(全四).

11) 福島士朗 (1909), 92쪽.

12)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2009), 141쪽. 1930년 전주군 이동면 노송리 외 7개군 편입인구는 4,626명, 1940년 이동면 검암리 외 5개리 편입인구는 7,200명이다.

13)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표 1〉 1909년 전주의 직업별 인구 순위(10위 이상)¹⁴⁾

(단위 : 명)

	조선인	일본인
1위	농업 3,132	관리 212
2위	잡화상 2,374	대공직 76
3위	주막업 910	잡업(雜業) 64
4위	관리 572	잡화상 49
5위	무직 361	과자상 46
6위	일용직 331	숙박업 31
7위	남초(연초)상 253	작부 21
8위	소목공 210	농사경영 18
9위	과자점194, , 면직상 194	이발업 17
10위	상여업155, 교자군 155	은행원16, 요리실 16
유업자총수	8,480	566

〈표 2〉는 시가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930년까지 전주 인구는 전주면이 아닌 전주군 전체 인구를 포함한 것이었다.¹⁵⁾ 이후의 인구는 전주군 전주읍(1931년 4월 전주군 전주면에서 승격), 전주부(1935년 전주군 전주읍에서 승격)의 인구를 뜻한다.¹⁶⁾ 따라서 1930년까지는 대체로 현재의 완주군을 포함한 인구라 할 수 있다.

전주인구는 1919년 13,857명에서 1930년 44,549명으로 약 3만명이 증가하였다. 연 평균 약 1,5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1930년 전주는 5.5배 확장되어 그 인구도 약 9,400명이 증가하였다. 193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경향은 주로 일본인 인구의 감소보다는 조선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14) 福島士朗 編, 『李朝の全州』, 1909, 93-100쪽.

15) 당시 전주군에는 전주면 이외 초포면, 용진면, 상관면, 난전면, 우림면, 조촌면, 봉동면, 소양면, 삼례면 등 20개의 면이 있었다(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1917).

16) 1931년 익산면이 익산군으로 승격한 익산인구추이에 대한 이해도 동일하다.

〈표 2〉 전주의 인구 추이¹⁷⁾

(단위 : 명)

구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구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1919	10,551	3,232	74	13,857	1930	32,136	5,204	502	37,842
1920	13,036	2,804	97	15,937	1931	32,575	5,440	395	38,410
1921	13,024	2,920	193	16,137	1932	32,807	5,513	306	38,626
1922	13,168	3,143	172	16,483	1933	33,267	5,673	270	39,210
1923	14,437	3,767	178	18,382	1934	33,672	5,884	321	39,877
1924	15,763	3,724	202	19,689	1935	34,386	5,841	366	40,593
1925	17,283	3,496	198	20,977	1936	34,688	5,837	411	40,936
1926	17,602	3,998	245	21,845	1937	36,647	5,776	97	42,520
1927	17,663	4,103	269	22,035	1938	37,120	5,849	81	43,050
1928	17,838	4,154	266	22,258	1939	38,527	5,933	89	44,549
1929	18,122	4,274	290	22,686					

이제부터 전주 인구의 특징을 익산, 군산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1930년 전주는 농업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전주군 자체가 농촌 지형을 띠기도 했지만, 무직을 포함한 직업구성에서 34.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익산과 흡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 지역의 산업을 전국의 동일 산업과 비교하여 그 중요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만 놓고 보더라도 전주의 농업은 입지계수가 0.83으로 나타나, 농업으로 특화되었다고 보는 1.25이상을 넘지 못한다. 공업도 상업도 마찬가지로 입지계수가 각각 1.04, 1.05로 나타나 전주라는 지역에 특정 산업이 발달하였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1930년 전주는 산업적 정체성이 희박한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군산은 상업도시 성격을 띠고 있다. 직업구성에서 상업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입지계수도 무려 5.99에 달한다. 군산은 전체인구에서 일본인 구성비가 33.1%로 목포, 마산에 비해 10%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직을 제외한 군산의 유업자 중 상업, 공무·자유업, 공업, 교통업 4개 직종에 종사하는 일본인은 무려 90%나 된다.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은 무역상이나 각종 상품의 도매상, 소매상들로서 배후지와 일본을 연결하는 상품유통의 주된 담당자이다. 상권뿐만 아니라 금융, 교통, 행정을 장악하고 있다.¹⁸⁾

17)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 2009, 200-201쪽.

1930년 까지의 인구는 전주군 전주면(전주읍)만의 인구임 / 1933년 인구합계의 원자료가 틀려 바로 잡음.

18) 김영정 외,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2006, 104-105쪽.

〈표3〉 전주 인구의 특징(1930년)¹⁹⁾

		전주	익산	군산
인구	총인구(명)	185,470	153,018	26,321
	일본인비율(%)	3.9	3.7	33.1
직업구성(%)	농업	34.2	34.7	1.4
	수산업	0.0	0.0	1.7
	광업	0.0	0.0	0.1
	공업	2.9	2.4	8.0
	상업	3.2	2.5	16.0
	교통업	0.4	0.3	7.0
	공무자유업	1.0	0.7	3.6
	가사사용인	1.1	1.0	2.3
	기타 유업자	2.8	1.9	3.1
	무직	54.3	56.5	56.8
	계	100.0	100.0	100.0
임지계수	농업	0.83	0.95	0.04
	공업	1.04	0.85	2.88
	상업	1.05	0.94	5.99
연령(%)	14세 이하	36.5	37.8	32.9
	15~59세	58.8	58.7	64.0
	60세 이상	4.7	3.5	3.1
	계	100.0	100.0	100.0
출생지(%)	지역내	57.8	56.3	23.4
	지역외	42.2	43.7	76.6

다음에는 전주경제가 전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자. 완주군이 분리되고 전주부가 된 전주의 1930년대 후반 자료이다.

〈표 4〉는 전북에서의 전주 경제를 농업, 공업, 금융, 시장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전북 대비 전주의 인구비율 기준을 3.7%로 한다면 전주의 농업 및 공업 생산은 각각 2.2%, 1.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7% 이상(점포수기준)을 시장은 13.1%(거래액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한 대비이지만 전주는 농업·제조업 보다는 금

19) 朝鮮總督府,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1933

김민숙, 『일제시대의 산업별 인구분포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1930년대를 기준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2

음·시장, 제1·2차 산업보다는 제3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 할 수 있다.

〈표 4〉 전주경제의 위치²⁰⁾

	전 주(A)	전 북(B)	A/B(%)
총인구(1940)			
인구(명)	55,978	1,557,190	3.6
농업(1935)			
농가호수(호)	8,373	241,435	3.5
생산액(천원)	1,529	70,223	2.2
구성비(%)			
미곡	2.4	63.1	-
맥류	71.7	13.1	-
채소 및 과수	2.8	7.7	-
축산	22.7	3.5	-
기타			
공업(1940)			
생산액(천원)	993	51,916	1.9
방직	13	5,130	0.3
금속	5	434	1.2
기계기구	20	2,545	0.8
요업	108	963	11.2
화학	11	8,458	0.1
제재 및 목제품	167	739	22.6
인쇄 및 제본업	-	338	0.0
식료품	430	12,113	3.5
기타	241	21,196	1.1
금융(1937)			
은행회사			
개수	3	29	10.3
금융조합			
개수	4	54	7.4
시장(1937)			
시장 수	3	66	4.5
개시회 수	480	6,224	7.7
매매액(천원)	1,484	11,314	13.1
농산물	765	2,601	29.4
수산물	171	3,187	5.4
직물	33	1,061	3.1
축류	392	2,793	14.0
기타	123	4,506	2.7

2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도 ; 全州府, 『全州府勢一斑』, 1941. 소순열·주봉규, 『근대 지역 농업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96.

예로부터 전주는 관청소재지·교육의 도시로 발달해 왔다. 최근에는 각종 공장의 유치·가내공업의 보급과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주는 여전히 소비 도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²¹⁾ 전주는 상품 공급측면에서의 생산지이기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소비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Ⅲ. 전주경제의 구조와 변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취업인구나 생산액(또는 부가가치)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1938년 전북의 산업구조를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농업비중이 63.5%로 농업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공업비중은 34.5%를 차지하지만 농업생산액의 약 30%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31.1% 수준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농업과 관련된 단순 식료품 가공공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²²⁾

〈표 5〉 전주의 직업구성²³⁾

(단위: 명, %)

구분	1916년	1930년	1940년
농업	679,793(91.2)	63,487(34.2)	9,331(16.7)
수산업		8(0.0)	16(0.0)
광업	12,029(1.6)	18(0.0)	456(0.8)
공업		5,385(2.9)	5,478(9.8)
상업	37,153(5.0)	5,920(3.2)	12,598(22.5)
교통업		813(0.4)	1,184(2.1)
공무자유업	8,442(1.1)	1,940(1.0)	9,478(16.9)
가사사용인	0(0.0)	1,975(1.1)	0(0.0)
기타유업자	3,558(0.5)	5,207(2.8)	10,443(18.7)
무직	4,166(0.6)	100,717(54.3)	6,983(12.5)
계	745,141(100.0)	185,470(100.0)	55,978(100.0)

21)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2009), 564쪽.

22)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2003, 215쪽.

23) 朝鮮總督府全羅北道, 『大正五年朝鮮總督府全羅北道統計年報』, 1918
 朝鮮總督府,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1933
 全州府, 『全州府勢一斑』, 1941

〈표 5〉는 전주의 직업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산업구조를 가장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표에 의하면 전주의 산업구조는 농업의 격감과 공업 및 상업, 공무자유업의 증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직업구성을 보면 1916년에는 농업이 91.6%로 압도적 수치를 차지하다, 1930년 34.2%, 1940년 16.7%로 감소하여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916년 전주에는 15,867정보의 경지가 있었으나, 1930년 제1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1937년 312정보로 격감하고, 농가호수도 21,612호에서 814호로 크게 줄었다.²⁴⁾ 이에 반해 전주가 점차 시가지 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상업은 1916년-1940년간 5.0%에서 22.5%, 공업은 1.6%에서 9.8%로 증가하였다. 관공리(官公吏)가 대부분인 공무자유업 역시 행정구역개편으로 같은 기간 1.1%에서 19.6%로 급증하였다.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의 축소와 상업·공업의 확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6〉 전주농업 개황²⁵⁾

(단위 : 호수, 원, 정보, %)

구분	1935년	1937년	구분	1935년	1937년
농가호수(호수)	1,496 (100.0)	814 (100.0)	농업생산액 (원)	1,898,188 (100.0)	331,152 (100.0)
자작	125 (8.4)	78 (9.6)	미맥류	1,467,605 (77.3)	120,140 (36.3)
자소작	175 (11.7)	104 (12.8)	두류	1,744 (0.1)	2,860 (0.9)
소작	779 (52.1)	520 (63.8)	잡곡	10 (0.0)	20 (0.0)
피용자	417 (27.8)	112 (13.8)	채소	36,779 (1.9)	46,266 (14.0)
경지면적 (정보)	334.7 (100.0)	312.0 (100.0)	과실	8,351 (0.4)	8,787 (2.7)
논	210.8 (63.0)	197.7 (63.4)	축산물	383,699 (20.2)	153,079 (46.2)
밭	123.9 (37.0)	114.3 (36.6)			

24) 朝鮮總督府全羅北道, 『大正五年朝鮮總督府全羅北道統計年報』, 1918.132-133쪽 및 全羅北道, 『昭和十二年農業統計』, 1938. 2-3쪽.

25) 全羅北道農務課, 『昭和十年農業統計』, 1936
全羅北道『昭和十二年農業統計』, 1938.

농가호수, 경지면적, 농업생산액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표 6>에서 농업생산액에 농산물가공액은 제외되어 있다. 1935 ~ 1937년 동안 농가호수, 경지면적, 농업생산액 모두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농가호수는 1,496호에서 814호, 경지면적은 334.7정보에서 312정보으로 감소하였다. 자소작별 농가호수 구성을 보면 피용자의 감소에 의해 자작과 자소작·소작농가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농업생산액은 1,898천원에서 331천원으로 떨어졌다.²⁶⁾ 전주 경제의 농업 비중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농업생산액 부문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맥류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품경제화와 직결되는 채소, 과일, 축산부문이 증가하고 있다. 미맥류는 1935년 77.3%에서 1937년 36.3%로 낮아진 반면, 채소·과실·축산은 같은 기간 동안에 62.9%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채소와 과실의 증가가 현저하여 각각 14.0%, 46.2%를 차지할 정도로 근교도시농업이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에 들어 배추·우엉·당근·파·토마토·가지·오이 등 일본계 품종도입과 온실재배 보급 등 재배기술의 발달이 크게 진전되었다. 우전면에 24,000평을 가진 한 조선인은 생산물 대부분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남문부근 시장이나 어채시장 등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생산자로 성장한 예도 있다.²⁷⁾

다음은 전주 상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상업의 변화는 시장 거래액의 추이로 파악할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 1935 ~ 1939년 동안 보통시장(전주부시장)의 연 거래는 해마다 증가폭 차가 있지만 666천원에서 949천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거래액구성비는 축류가 60 ~ 70%, 여기에 농산물, 수산물까지 합하면 시장에서 매매되는 생산품의 80% 내외가 직접 소비되는 1차 생산물이다. ²⁸⁾ <표 8>을 보면 전주 경제를 더 눈에 띄게 이해할 수 있다.

26) 1935년의 미맥류 중 나뭇(裸麥) 생산액은 873,949원으로 1937년의 19,684원에 비해 무려 40배 이상이다. 재배면적, 단당수확량, 총수확량의 수치를 확인해 보아도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 1935년의 나뭇생산의 격증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수치의 정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주농업생산의 전체적인 경향과는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27) 전복최초로 온실 등에 의한 야채재배는 1924년에 시작한 上野山平八이다. 그는 우림면에 온실 등을 설치하여 가지, 오이를 속성 재배하여 전주에 팔았다(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9, 570쪽).

28) 이에 대해 1939년 경성의 시장에서는 식물·피복, 면사·편조물, 기계·차량, 연료·공업용 유지 4부문이 판매액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79쪽).

〈표 7〉 전주의 보통시장 거래액²⁹⁾

(단위 : 원, %)

구분	개시수	1년 매매고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기타잡품	합계
1935년	72	113,480 (17.0)	82,530 (12.4)	28,292 (4.3)	331,140 (49.7)	110,252 (16.6)	665,694 (100.0)
1936년	73	128,600 (19.2)	89,500 (13.4)	31,800 (4.8)	297,170 (44.4)	121,500 (18.2)	668,550 (100.0)
1937년	73	132,700 (17.2)	91,200 (11.8)	32,600 (4.2)	392,507 (50.8)	123,100 (15.9)	772,104 (100.0)
1938년	72	119,430 (12.6)	82,080 (8.6)	35,860 (3.8)	595,108 (62.7)	116,945 (12.3)	949,423 (100.0)

〈표 8〉 전주의 주요 물품반출입 내역 (1939)³⁰⁾

(단위 : 톤)

반입품명	수량	반출품명	수량
목재	7,416	휘발유	1,202
비료	6,888	잡곡	1,132
시멘트	4,707	신	1,096
엽연초	4,414	쌀	16,988
석탄	4,331	제조연초	5,648
인	4,255	시료	2,713
식염	3,349	목재	1,719
쌀	1,450	엽연초	1,365
목탄	1,438	입연승	1,037
광석	1,317		

〈표 8〉은 1939년 전주역에서 이뤄진 반출입물량 중 천톤 이상의 물품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물량이 큰 순위로 열거하면 반입물품은 목재, 비료, 시멘트, 엽연초, 석탄 등 10개 물품이고, 반출물량은 쌀, 제조연초, 시료, 목재 등 완제품위주의 9개 물품이다. 대체로

29)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2009), 586쪽.

30)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2009), 591쪽.
전주역의 반출입물품

반입은 원료자재용이고, 반출은 완제품이다. 하지만 반입물량이 반출물량보다 커 전주가 소비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입과 반출을 엮어보면 전주 가공제조업의 유통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주의 대표적인 유통경로는 외부에서 쌀, 연초를 반입하여 각각 정미공장, 전주전매지국 담배공장을 거쳐 가공, 제조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로이다. 이 같은 전주의 상품유통은 전북공업의 발전에 의거하고 있다.

다음은 유통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자. 1838년 전주중심가에 상설점포는 199개소(일본인은 97개소, 조선인은 93개소, 기타 9개소)였다. 그러나 영업세 규모로 보면 일본인점포(97개소)는 480 ~ 1,360원, 조선인점포(93개소)는 340 ~ 620원으로 일본인점포규모가 조선인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소매 업체별로 보면 1935년 도매업 영업세는 1,281원, 소매업 영업세는 3,315원 정도로 전주의 상설점포는 소매업이 많다.³¹⁾

이를 앞의 <표 8>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바로 유통부문의 범위와 경로 차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인 상인들은 군산의 무역상 수입품이나 지역 제조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상이 주류를 이루지만 조선인 상인들은 지역수입상을 통한 일상의 수요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³²⁾ 즉 일본인 상인들은 지주·자본가·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고급소비재나 주요 공산물의 기간유통부문을 장악하였다.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는 소비재, 새로운 제조업에 맞는 주요 제조품의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인 상인들은 주로 조선인의 일상 수요품의 전통적인 유통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의 상업공간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눠 대립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³³⁾는 옳지 않다. 시장은 공간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상품교환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사회구조라 할 수 있다. 전주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각기 다른 핵심적인 상품 교환의 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통적인 남문 정기시장이 매일 열리는 것으로 바뀌고, 상설점포가 상정하면서 전주에 상업회사가 등장하였다. 근대적 회사는 개항기에 출현하였지만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31)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03.8, 127쪽.

32)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할 만하다. ‘일본인의 상업은 무역상 또는 각종 상품의 도매 및 소매이다. 무역상은 곡물, 우피, 기타 조선 물산의 수출하고 각종잡화, 면포류, 소매분, 사탕, 식염, 주류 등의 수입을 하하는데 그 중 군산의 미곡취인소가 으뜸이다. 일용잡화를 비롯한 일본포복(吳服)을 비롯한 장유(醬油), 문방구 등은 전주, 군산, 이리 기타 요지의 도매상, 소매상에게 공급된다. (중략) 조선인의 거래는 대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관례이다. 이들 시장은 군산, 전주, 이리에서 미곡 또는 어채 등의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매월 5회 또는 6회 정기 개장되어 부근 주민은 물론 원격지에서 온다. 그리고 시장을 순회하는 행상인이 있으며 지방에서의 일상 수요품은 대부분 이들 시장을 거쳐서 공급되는 상황이다. 조선인 간에 주요 상업이다 (全羅北道, 『全羅北道要覽』, 1933, 169-179쪽).

33)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5호, 2003.3, 763쪽.

회사령이 철폐된 1920년대 이후였다. <표 9>는 경영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자본액과 회사수에 불과하지만 1922년 5개의 전주 상업회사는 1938년에 17개로 증가하였다.³⁴⁾ 같은 기간 자본액은 225천원에서 566천원으로 2.5배가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인 상업회사의 성장이다. 1922년에 1개에 불과했던 조선인 상업회사가 1938년 12개로 늘었으며 총자본액에서도 100천원에서 410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일본인 상업회사를 능가한다. 같은 기간 전주 상업회사 총자본금 구성액에서 44.4%에서 72.3%, 회사당 자본액에서도 약 2,800만원이 늘어났다. 조선인 상인이 새롭게 유통범위를 확대하였거나 기존 일본 상인의 유통부문을 어느 정도는 잠식했음을 보여준다.

<표 9> 전주의 상업회사³⁵⁾

(단위 : 원, %)

구분	1922년	1938년
조선인		
회사수	1	12
자본액	100,000 (44.4)	410,074 (72.3)
일본인		
회사수	3	5
자본액	125,000 (55.6)	156,750 (27.7)
계		
회사수	4	17
자본액	225,000 (100.0)	566,824 (100.0)

다음에는 산업구조를 주도하는 공업의 변화를 보자. 1930년대 공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공업의 추이를 보면 1921년 26개에 불과했던 공장이 1930년 195개로 늘어나고, 자본액도 약 15배 이상, 종업원 수는 2.4배 증가하였다.³⁶⁾ 전주의 공업 비중도 증

34) 상업회사는 도매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지역상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로 상업회사, 공업회사, 금융회사, 운수회사 등이 있다. 전주의 상업회사는 1922년 전체회사 5개 가운데 4개, 1938년에는 42개 가운데 17개를 차지해 가장 많다(박선희 2003, 763쪽).

35)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34쪽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京城商工會議所, 『朝鮮會社表』, 1922, 1938).

36) 소순열·원용찬(2003), 215쪽.

가할 것으로 생각되나,³⁷⁾ 직업구성 비중에서 보듯 공업발전의 속도나 규모는 그다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³⁸⁾

현재수준의 생산액, 생산주체, 종사자 등의 추이로 전주공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자료로밖에 추론할 수 없는데 먼저 전주에서 어떤 공산품을 생산했는가를 검토하자.

<표 10>는 공산품 구성 비중을 1940년 조선총독부의 산업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商工の全州』(1938), 『全州府史』(1943), 『全州府勢一斑』(1941) 자료를 통해 각각 1937년, 1938년, 1940년의 공산품 내역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세 자료 모두 품목명, 생산액(수량, 가격), 제조호수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937년 자료에는 민족별 제조호수는 기록되어 있으나 만원 이상 생산액 13개의 소품목만 기록되어 있는 반면, 1938년 자료에는 36개의 소품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민족별 제조호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 자료 가운데 가장 유효한 1940년 자료를 기초로 40개 소품목의 민족별 제조업체수와 생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37) '전주는 중소기업이 번성한 곳으로 면포, 죽제품, 제면, 일식 및 양식 가구류, 벽돌, 주철물 등의 산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주단선(團扇), 선자(扇子) 등은 전주의 특산으로 내외로 알려지고 있고 조선우산도 유명하다. 이들의 생산액은 백오십만원이상이라고 말해 진다. 근년에 이르러 주목할 만한 것은 전주에 대공업의 부흥이다. 片倉제사, 전복제사와 같은 대규모 공장이 생기고 鐘紡라미공장이 조업을 개시하려고 있다'(阿部薰編, 『朝鮮都邑大觀』, 民衆時論社, 1937, 42쪽).

38) '그때 공장이란 건 전매청 제조공장하고 전복제사, 가다구라제사, 이 세 군데 뿐이여. 그런데 제사공장은 제설작업을 해. 말하자면 누에고치가 있으면 작업이 되고 없으면 작업이 안돼요. 그러니까 직공도 100명 이내였을 거여. 70~80명이었을 거요'(전주문화재단, 『제1권 일제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2007, 335쪽)

〈표 10〉 전주 공산품 구성(1940)³⁹⁾

(단위 : 원, %)

구 분	제조 업체수	생산액	구 분	제조 업체수	생산액
방직공업			포장용 나무상자	2	1,500 (0.2)
목면	1	-	술통	-	-
양말	3	12,650 (1.3)	나막신	8	36,400 (3.7)
금속공업			식료품공업		
합석판 제품	14	3,650 (0.4)	소주	3	32,000 (3.2)
자물쇠 등	7	-	청주	4	215,000 (21.6)
금백금 및 온기	6	935 (0.1)	약주	1	-
기계기구공업			탁주	1	-
농구 및 토공기	8	14,160 (1.4)	간장	5,497	7,500 (0.8)
공구 및 날붙이류	8	2,380 (0.2)	된장	5,491	15,500 (1.6)
짐차	2	2,990 (0.3)	술지게미(酒粕)	2	-
요업			과자	29	123,000 (12.4)
시멘트와(瓦)	2	6,030 (0.6)	축산품	1	835 (0.1)
시멘트관(管)류	5	19,751 (2.0)	식염	5	17,640 (1.8)
벽돌	2	81,870 (8.2)	면류(麵類)	8	18,730 (1.9)
화학공업			기 타		
참기름	4	2,200 (0.2)	선자(扇子)	3	38,000 (3.8)
동백기름	1	240 (0.0)	단선(團扇)	3	75,000 (7.6)
들기름	4	5,200 (0.5)	대나무 제품	11	18,960 (1.9)
박하기름	1	1,000 (0.1)	등나무 제품	4	1,530 (0.2)
비료	4	2,500 (0.3)	짚 제품	13	5,300 (0.5)
제재 및 목제품			신	14	28,594 (2.9)
창호(建具)	4	46,500 (4.7)	양복류	28	73,500 (7.4)
서양 가구	8	57,650 (5.8)			
일본 가구	11	24,500 (2.5)	계	11,223	993,195 (100.0)

이 표를 검토해 보면 전주공업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소비재공업이라는 점이다.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공업, 금속공업은 2% 미만에 불과하다. 그것조차도 농구 및 토공기, 공구 및 날붙이류, 짐차, 비료 등으로 구성되어 기계공업 생산부문은 극히 빈약하다. 둘째, 식품공업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주, 청주, 면류, 과자 등은 새로운 수요가 일어난 품목들이다. 셋째,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산품 위주로 생산품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주 등의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창호·서양가구·일본가구 등 제재 및 목제품, 시멘트와·시멘트 관류 등 요업, 합석판제품·자물쇠 등의

39) 全州府, 『全州府勢一斑』, 1941, 41-42쪽. ()내는 생산액 비율.

금속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넷째는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새롭게 도입된 기술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특기할만한 점은 전통채래공업이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단선·대나무제품·짚 제품의 전통적인 생산물이 전체생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품목은 조선채래의 전통적인 생산방법·응용에 의한 것으로 지역을 뛰어넘은 하나의 상징적인 생산품목이라 할 수 있다.⁴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주의 태지(苔紙), 종이우산(紙傘), 단선(團扇) 등 전통적인 가내공업이 공업화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이다. 당시 자료에는 공업은 공장제 공업과 가내공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장 범위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5인 이상의 직공을 사용하는 설비를 갖추거나 상시 5인 이상의 직공을 사용하는 공장’이다. 그 이하의 가내공업으로 간주하였다. 공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계제공업일 필요는 없으며, 가내공업 중에서도 시장판매를 통하여 공장공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질적인 것은 아니다.⁴¹⁾ 따라서 가내공업이 공장공업으로 성장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 채래공업의 발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유감스럽게도 자료상으로는 가내공업과 공장공업의 추이를 파악할 수가 없고, 전북자료로나마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도 대체적으로 전주 가내공업의 공장공업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0) 전주의 태지(苔紙), 종이우산(紙傘), 단선(團扇) 등은 지방색을 상징하는 특산품으로서 조선은 물론 일본지방에서도 애호되고 있다(全北日報社, 『全北案内』, 1933, 25쪽).

41)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2003, 177쪽.

〈표 11〉 전북의 가내공업·공장공업(1937)⁴²⁾

(단위 : 개소, 원)

구분	가내공업			공장공업			
	조선인	일본인	계	공장수	조선인	일본인	계
방적공업	1,032,098 (97.8)	22,741 (2.2)	1,054,839 (100.0)	10	33,029 (1.9)	1,686,097 (98.1)	1,719,126 (100.0)
금속공업	154,434 (80.0)	38,721 (20.0)	193,155 (100.0)	10	11,629 (3.0)	382,424 (97.0)	394,053 (100.0)
기계 기구공업	86,649 (33.0)	176,057 (67.0)	262,706 (100.0)	7	138,094 (76.7)	41,960 (23.3)	180,054 (100.0)
요업	328,707 (78.6)	89,397 (21.4)	418,104 (100.0)	3	6,934 (34.8)	12,980 (65.2)	19,914 (100.0)
화학공업	2,606,799 (97.9)	55,799 (2.1)	2,662,598 (100.0)	47	216,593 (12.2)	1,564,370 (87.8)	1,780,963 (100.0)
제재 및 목제품공업	139,570 (49.1)	144,471 (50.9)	284,041 (100.0)	4	9,660 (4.6)	198,836 (95.4)	208,496 (100.0)
인쇄업	-	-	-	18	36,106 (9.6)	341,832 (90.4)	377,938 (100.0)
식료품 공업	7,832,092 (73.7)	2,801,391 (26.3)	10,633,483 (100.0)	157	15,767,697 (41.3)	22,374,981 (58.7)	38,142,676 (100.0)
전기업	-	-	-	2	-	500,401 (100.0)	500,401 (100.0)
기타공업	3,703,563 (81.4)	845,856 (18.6)	4,549,419 (100.0)	2	12,698 (10.7)	105,812 (89.3)	118,510 (100.0)

〈표 11〉는 1937년 전북의 가내공업 및 공장공업의 생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통계에는 공장 수만 나와 있다. 당시 자급적 가내공업은 압도적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상품경제화를 가늠하는 공장공업의 수치는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주 공업의 3/4를 구성하고 있는 제재 및 목제품 공업, 식료품 공업, 기타 공업에서 조선인 생산액구성은 각각 4.6%, 41.3%, 10.7%를 차지하고 있다.

원료조달, 식습관 등에서 지역성을 띤 식품공업을 예외로 한다면 많아야 10%미만이다. 여기서 관심사는 조선인의 가내공업이 얼마나 상품생산화되었는 가 그리고 얼마나 공장공업화되었는 가이다. 어느 쪽도 확인할 길이 없다. 가내공업 대부분은 자가 생산·자가 소비의 완전 자급제품이기 때문에 가내공업의 상품경제화는 미약하다는 정도로 추론할

42) 全羅北道, 『全羅北道道勢一斑』, 1938, 71-72쪽.

가내공업 중 외국인의 목제품공업 생산액 320원과 식료품공업 생산액 6,330원은 일본인에 포함.

공장공업 중 외국인의 금속공업 생산액 38,600원은 일본인에 포함.

뿐이다. 다만 어떤 전통적인 재래품목이 상품생산을 하였는가는 파악할 수 있다. 이전의 자료로 돌아가 보자.

조선인 생산액은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의 식품공업에 예외로 하면 많아야 10% 미만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인의 가내공업이 얼마나 상품생산화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공장공업화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분명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가내공업 대부분은 자가 생산·자가 소비의 완전 자급제품이기 때문에 가내공업의 상품경제화는 미약하다는 정도로밖에 추론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전통적인 재래품목이 상품생산을 하였는가는 파악할 수 있다. 이전의 자료로 돌아가 보자.

〈표 12〉 생산액 만원 이상 전주의 공산물⁴³⁾

(단위 : 개, 원)

구분	1937			1940		
	제조업체수 (A)	생산액 (B)	제조업체당 생산액(B/A)	제조업체수 (A)	생산액 (B)	제조업체당 생산액(B/A)
벽돌	1	10,500	10,500	-	-	-
창호(建具)	4	22,800	5700	4	46,500	11625
서양 가구	8	33,750	4218	8	57,650	7206
일본 가구	11	24,392	2217	11	24,500	2227
청주	4	255,000	63750	4	215,000	53750
문(團扉)	3	26,500	8833	3	75,000	25000
소주	2	20,142	10071	-	-	-
간장	5,498	45,100	8	5,497	7,500	1
과자	42	100,440	2391	31	123,000	3967
식염	5	13,601	2720	5	17,640	3528
면류(麵類)	8	14,771	1846	10	18,730	1873
대나무제품	9	15,710	1745	11	18,960	1723
선자	3	26,500	8833	3	38,000	12666
계	5598	609,206	108	5587	642,480	115

43) 全州商工會議所, 『商工の全州』, 1938, 13-14쪽 ; 全州府, 『全州府勢一斑』, 1941, 41-42쪽.

()는 일본인 제조업체수임.

생산액 만원이상 전주의 공산물을 정리한 것이 <표 12>이다. 제조업체수가 적고 생산액이 만원이라면 완전 상품생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간장 등과 같은 식료품은 특성상 영세업체라 할 수 있다. 간장 업체당 생산액 비율도 영세한 가내공업 형태를 띤다. 이 품목을 제외하고, 1937 ~ 1940년 동안 제조업체당 생산액 추이를 나눠 살펴보면, 벽돌·청주·소주 세 품목은 감소품목으로, 일식가구·면류·죽제품 등 세 품목은 정체 품목으로, 창호·양식가구·단선·과자·식염·선자 등 여섯 품목은 증가 품목으로 나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조선인전통재래산업에 해당되는 단선, 선자의 업체당 생산액은 각각 16,167원, 3,833원으로 전체 생산품목 가운데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주 공업의 변화에서 완전 상품생산화된 전통재래산업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⁴⁴⁾

<표 13>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표 13>은 만원 이상 규모별 생산액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눠 정리한 것이다. 조선인 제조업체 생산액의 증대와 상향이동이 눈에 띈다. 만원 이상 생산액을 보인 조선인 제조업체는 1937년 71개에서 116개로 증가하였다. 그 상당부분은 보다 큰 생산액을 띤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3만원 이상의 생산액을 낸 조선인 제조업체도 33개에서 58개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조선인 업체 가운데에는 일본으로부터 신기술을 도입한 업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재래기술을 적용하거나 연장하고, 신기술을 응용한 전통 재래 업체도 포함된다.

<표 13> 생산액규모별 제조업체 수(만원 이상 생산액)⁴⁵⁾

(단위 : 명)

구분	1937년		1940년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0,000~20,000원	19	4	36	3
20,000~30,000원	19	4	22	3
30,000~50,000원	6	2	9	9
50,000~100,000원	-	-	36	5
100,000원 이상	27	19	13	20
계	71	29	116	40

44) 당시 이러한 재래산업에 대한 다음의 기사는 매우 흥미롭다. '전주의 우산의 비약'(『조선일보』 1935.10.22), '전조선 제일 의 단선, 선자와 더불어 전조선에 으뜸(覇)을 제창한 특산물'(『군산일보』 1936.12.9), '날개 돌친 부채 미국으로 수출, 여름의 총아 전주단선'(『동아일보』 1938.3.26.), '명물 전주 부채선 참신한 의장으로 등장 멀리 만주에서까지 주문 쇄도'(『동아일보』 1939.5.21.), '날개 돌쳐 팔려나가는 명산 전주 단선'(『조선일보』 1940.7.16).

45) <표12>와 같음

요컨대, 1930년대에 발전해 온 전주 공업은 생활양식의 변화, 신기술에 의한 소비재 부문의 등장으로 60%를 넘는 식료품공업, 제재 및 목제품 부문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전주에서도 재래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IV. 공업도시로의 좌절⁴⁶⁾

행정도시(官廳街)로서의 전주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도시의 색채를 띠어 갔지만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도시를 벗어나지 못했다. 1930년대 후반 전주는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유치하여 일약 공업도시화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공업화 정책이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후 조선은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중국침략의 전진기지=대륙병참기지로서의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산업정책, 특히 중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군수공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기사업계획의 실시에 따른 동력원을 확보하고,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등 공장유치에 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경제공황이 절정기에 달할 때 만든 ‘중요산업 통제법’으로 정부가 물자 생산 판매의 수량,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⁴⁷⁾. 이에 비해 조선은 이 법의 시행권 밖에 있어 생산·판매에서 자유로웠다. 더구나 일본에서의 ‘공장법’과 같은 노동자 보호입법이 전혀 없어서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일본에 있는 기업가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본이 적고 땅값이 싸며, 임금이 낮고, 원료가 싼’ 조선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노구치(野口),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수미모토(住友) 등 재벌기업과 그 아류들은 앞을 다투어 자유로운 투자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각 도시는 앞을 다투어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공장유치운동을 벌였다. ‘지방적 조정’, ‘지방적 분포의 통제’라는 말⁴⁹⁾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었다.

당시 전주는 공업의 어떠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까. 전주는 군산, 목포, 광주와

46) 이 글은 소순열·원용찬(2003), 225-232쪽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47) 小林英夫, 「一九三〇年代朝鮮‘工業化’政策の展開過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集, 1967.142-143쪽.

48) 허수열, 「1930년대 군수 공업화정책과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 차기벽외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279-272쪽.

49) 川合彰武, 『朝鮮工業の現段階』, 東洋經濟新報社, 1941, 84-85쪽.

함께 호남공업지대에 속하여 경공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공장지대에 속한 전주도 군산도 공장유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남선공업지대 -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울산, 마산, 진해를 포함한 일대

호남공업지대 - 군산, 목포, 전주, 광주를 포함한 일대

경인공업지대 - 서울 및 인천과 그 중간지대

삼척공업지대 - 강원도 삼척, 영월, 묵도 일대

서선공업지대 - 신의주, 평양, 진남포 및 해주를 연결한 일대

북선공업지대 - 홍남, 성진, 청진으로부터 만주국경에 이르는 일대⁵¹⁾

전주와 군산이 어떤 공장유치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까. 먼저 전주의 공장 유치환경 자료를 보자.⁵²⁾ 이 자료에는 공장지대의 사진과 지도와 더불어 전주부에 대해 연혁, 위치, 지형, 시가(市街), 토지, 호구(戶口), 기후 풍토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주공장유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³⁾

◦ 공장용지

공장부지로 예정된 것은 부내 소화정(昭和町, 현 진북동), 노송정(老松町, 현 노송동), 이동면 검암리, 중산리 서신리(가까운 시일에 부태로 편입구역)로 하고 침부한 그림 표시의 구역으로 한다. 총면적은 약 백만평, 현재는 논 또는 밭으로 농경 중에 있어도 지반이 대체로 높아 건축상 지반공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1949년 4월 현재 면적 평균 지가는 개략 다음과 같다.

50) ‘호남지대- 경공업지대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방적업, 식물유공업이 대공업으로서 현존하지만 미곡 및 면화의 산지에 머물러 그 외에 유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목포, 군산, 장항에 항만가치가 불충분하고 공장입지조건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지대는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여 과잉이 현저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용을 목적으로한 경공업은 진흥 여지가 있다’ (川合彰武 1934, 86쪽),

51) 川合彰武(1934), 84-85쪽.

52) 이 자료는 善生永助, 「朝鮮地方の都邑工業地帶化」, 『拓植獎勵館季報』, 第1卷第3號, 1939에 의한 것이다. 이 내용의 일부는 全州府 編, 『全州府史』, 1943, 729-733쪽에 실려 있다. 왜 善生永助가 ‘경공업경영지로서의 전주지방’이라는 글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全州府史』에 실게 되었는 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 자료르)에도 서술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 빈약하다.

53) 善生永助(1939), 88-92쪽.

〈표 14〉 전주공업지대의 공장용지⁵⁴⁾

(단위 : 만평, 원)

구분	논		밭		대지		임야		계	
	면적	평균지가	면적	평균지가	면적	평균지가	면적	평균지가	면적	평균지가
昭和町	20	4	5.5	3	0.5	5	-	-	2	3.60
檢岩町	29	3	1	2	0.2	3.50	0.8	0.70	31	3.00
西新町	34	3	4	15	0.5	2.50	4.5	0.50	43	2.60

전라북도청 및 전주부청에서는 공장용지 선정, 구입, 직공유치 등에 관해서 알선에 노력하며 진면목한 기업가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다.

◦ 용수

수도는 시내를 관류하는 전주천 상류 약 10km의 지점으로부터 자연유하(自然流下)에 의해 시내 정수장을 이용하여 배급한다. 수질은 양호하고 수량은 풍부하다. 공장예정지 부근 지하수의 용출로 윤택하고 농업용수는 현재 충분하다. 전주부는 현재 상수도를 더 확장하여 한해 구제공사로 공사비 30만원을 들여 수도정수지 공사를 착수하였다. 1940년 가을이 되면 완성되어 상수도를 겸한 농업용수가 다량공급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 연료

호남지방은 농업의 보고(寶庫)로 쌀·보리·대두·조·고구마·감자·면화·담배·누에고치·대마·모시·과일·채소·새끼줄과 가마·소·돼지·닭·죽림·목재·제지원료·약품원료 등이 풍부하다. 금·사금·기타 광산뿐만 아니라 연해에서의 어획량도 많아 이들을 원료로 공업경영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 전력

전력은 남선 전기 주식회사에서 공급한다. 아직도 전력이 많이 남아돌며 1kw당 규정단가는 저압(200V)의 경우 월 만kw 이상 사용 시 3전 7리 정도이다. 고압(3,300V)인 경우 월 10만kw 이상 사용 시 3전 2리 정도이며 월 2만 kw이상 사용 시 3전 2리 이상이

54) 善生永助, 「朝鮮地方の都邑工業地帶化」, 『拓植獎勵館季報』, 第1卷第3號, 1939, 89쪽.

다. 전압은 동력용 200V 및 3.300V 2종류이며 전등용은 100V이다. 최근 조선전력 주식회사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총 공사비 4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강 및 섬진강 수원지의 물을 완주군 고산부근에 끌어드려 약 8만kw 출력의 발전소를 3개년 계획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끝나면 관개용 및 공업용수와 함께 보다 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이 지방의 공업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진 1〉 전주 지방공장지대 전경



〈그림 1〉 전주공업지대도

◦ 직공

이 지방은 조선 전체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아 직공 모집은 수월하다. 특히 이 지방의 부녀 노동은 풍부하고, 그들의 문화는 발달되어 있으며, 교육수준도 높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이가 많고 소질도 있어 직공으로서 최적이다. 현재 직공 초임금은 남자가 하루 70전 내지 90전, 여자는 하루 30전 내지 50전이다. 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이며 손재주는 일본인 여성에 비해 조선인 여성이 우수하다.

◦ 연료

전주 경계에서 약 1km 떨어진 완주군 우전면 석불리(完州郡 雨田面 石拂里) 전주탄광에 무연탄의 채굴장이 있다. 현재 시굴기(試掘期)에 있지만 품질이 양호하고 천만톤 정도의 매장량이 있어 앞으로 매우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동광업 주식회사가 채굴 반출중에 있는 비봉탄광(전주경계로부터 24km)에는 3천만톤의 매장량이 있으며 일본에서의 석탄반입은 군산항이나 여수항을 통하면 된다. 특히 군산항에는 철로 외 포장도로를 통한 트럭운수가 용이하다.

◦ 운수관계

철도는 호남선 이리역에서 분기하여 여수항까지 가는 전라선 전주역을 이용하면 된다. 전주역은 이리역에서 25km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전주역으로부터 북쪽으로 3km 지점에 덕진역이 있기 때문에 공장 위치에 따라 덕진역을 이용할 수 있다. 군산항까지는 직선 포장도로로 60km(자동차로 50분) 거리이며 도내 주요 도로는 대부분 전주를 기점으로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전주는 군산, 인천, 목포, 여수, 부산 다섯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수항 완공으로 중국, 만주, 일본과의 수이출(輸移出)이 편리해져 전주 공업경영은 한층 더 유리해질 것이다⁵⁵⁾.

이에 대하여 군산에서도 공장용지, 공업용수, 동력, 공장연료, 육운, 해운, 노동자, 수해, 무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공장입지조건의 유리성을 적극 강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⁶⁾

55) 육상운송에 관한 거리, 운임 등은 생략한다..

56) 『중선일보』, 1936.10.22. 이 기사는 요점만을 게재한 것이다. 원본이 된 보고서는 군산부가 1936년 조선 산업경제조사위원회의 개최에 맞추어 발표한 「공업적 요소로 본 군산」이다(홍성찬 외 2006, 450쪽)

- 공장용지

항만에 직접 닿은 것으로 지평고사를 요하지 않는 평당 7원이하4원 면적 50만평 항만에 인접한 적부한 구역(2km이내) 평당 2원이하 1원 면적 150만평

- 공업용수

삼례로부터 취수 1일 8만천㎥(45만석). 부족용수는 금강양수계획에 의해 공급

- 동력

조선전력주식회사 15만kw로 쉽게 확보, 화력발전소 설계중 준공후 군산에 송전가능

- 공장연료

군산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석탄의 확보가 쉽고 타지역보다도 저렴

- 교통기관의 현상

육운: 군산항역을 종점으로 하여 철도는 이리를 거쳐 전주, 대전, 목포로 저렴한 운임으로 물자 수송 편리. 도로는 이리를 거쳐 전주까지 전군도로, 부안군, 대전 등 사통팔달로 화물수송 편리

- 해운

대판상선, 우편선, 등 각 기선정기항로 또는 부정기 항로 개설

- 노동자

전라북도, 충청남도를 통하여 나며 약 18만명, 임근은 저렴.

- 수해피해는 절대 없음

상류지방 7~8m의 증수하여도 상지(常地)는 침수가 없고 하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누수 없음

- 무역

수이빙는 화물 등을 더해 150만톤, 1억1천만원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

◦ 교육기관

중학교, 고등여학교, 보습학교, 사립가정학교 초등학교

◦ 의료기관

도립의료위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의사가 있음

그러면 전주와 전주의 공장유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전주는 일찍이 공장유치활동을 전개하여 鐘淵紡績이 1935년 2월 전주에 이미 3천여명 직공을 수용할 대마포(大麻布)공장 부지 1만8천평을 10만원으로 매수완료하는 성과를 올렸다.⁵⁷⁾ 이에 군산은 군산부회에 공장위원을 선임하고, 1936년과 1937년에는 군산부윤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이 네 차례이상 일본을 극비밀리에 방문하여 일본의 대재벌을 상대로 공장유치운동을 벌였다.⁵⁸⁾ 두 도시의 공장유치경쟁은 조선총독부가 관여할 정도로 치열하여 ‘군산과 전주의 공장유치쟁탈전’ 이라고 일컬었다.⁵⁹⁾

전주와 군산간 가장 치열한 공장유치쟁탈전은 미쓰이(三井)계열의 일본 최대의 종합섬유방직기업인 鐘淵紡績(이하 중방)유치이다. 1935년 중방은 이미 광주, 대전, 전주공장 설치를 염두에 두고 원료로 사용할 저마(苧麻)를 확보하기 위해 1차계획으로 전남 100정보, 전북 200정보에 대만산 저마종자를 무상보급하여 시작하였다.⁶⁰⁾ 이어 1935년 2월 대전, 광주와 병행하여 전주에 공장부지 10만8천평을 구입하여 1936년 5월말 준공예정으로 매립공사를 진행하였다.⁶¹⁾ 그러나 공사가 무기연기되거나 공업용수 및 원료확보 문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⁶²⁾

군산 또한 1936년 9월 군산 상공업자를 모아 놓고 중방공장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개최할 정도로 중방유치에 주력하였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에서 개최한 산업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중방 사장이 1937년에 군산에 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데

57) 『조선중앙일보』, 1935.2.5. 전주의 공장유치활동은 전주부가 주도가 되고 전북도청이 지원하며 전개된 것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전주상공회의소의 설치 준비는 1931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나(『매일신보』, 1931.8.14), 1935년 10월에 가서야 인가가 났다(『매일신보』, 1935.10.27.). 또한 1936년 5월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역원회를 개최했는데 소득세부가방법개정요망에 관한 건, 영업세를 소득세로 전환토록 요망할 사(事), 소득조사위원의 공선에 관한 건이 정기총회에 제출할 제안사항의 전부였다(『매일신보』, 1936.5.28.).

58) 극비밀리 일본을 방문한 것은 타지방과 쟁탈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홍성찬 외,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2006, 448-449쪽.

59) 川畚彰武(1934), 90쪽.

60) 『매일신보』, 1935.1.21.

61) 주43) 및 『매일신보』, 1935.9.30. 및 『매일신보』, 1935.5.9.

62) 『매일신보』, 1935.9.30. 전주부에서는 공업용수 부족분은 구이저수지 활용, 원료확보는 공장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였다(『매일신보』, 1936.11.17.).

이어 1937년 6월 공장부지 매립기공식이 열렸다.⁶³⁾

그러나 1937년 9월 종방이 군산과의 경쟁관계이었던 전주에 ‘시국’(時局)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어⁶⁴⁾, 전주소 군산도 공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⁶⁵⁾ 이미 북부지방에 공업화정책이 시작되고 통제경제체제가 접어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전주소 군산도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로써 전주와 군산의 공장유치 쟁탈전이 막을 내렸다. 공업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린 전주소 공업도시로의 꿈은 좌절되었다.⁶⁶⁾

V.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전주경제구조 및 그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전주경제는 일본자본의 침투에 의해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전주소는 조선시대 3대 대도읍의 하나였으나, 경제 부문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일개 지방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둘째 여느 식민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되면서 농업이 축소하고, 상·공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업이 축소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맥(米麥)을 중심으로 한 지주·소작관계로부터 채소 등 상품경제화된 근교농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상업부문에서는 공산물유통을 장악한 일본인 상업상인의 지배체계 속에서도 상업회사 등과 같은 새로운 조선인 상업회사가 나타났다. 공업 역시 일본자금 및 기술에 기반한 근대적 공장생산이 보급되는 한편, 선자, 단선 등 전통적 부문에 기반한 재래산업에서 완전상품경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1930년대 조선공업화 정책 속에서 전주소는 행정도시에서 공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장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그 결과 전주소는 여전히 소비도시로

63) 홍성찬 외(2006), 449쪽.

64) 홍성찬 외(2006), 450쪽.

65) 1942년 12월에 가서야 전주에 일본 종방계(鐘紡系) 조선마방(麻紡)주식회사 전주공장이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세계대전 중이라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30-40%정도 진척되었다. 해방후 미군정때 이 공장은 귀속사업체로써 불하되어 고려방직이란 이름으로 1947년 첫 조업을 하였으나 면방 원료 조달이 여의치 못해 모방공장으로 바꾸었으나 6·25로 재기 불능상태가 되었다. 이후 전주방직사로 간판을 바꾸어 달고 운영에 노력하였으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여 이 공장은 중앙학원의 설립자이며 이사인 수당(秀堂) 김연수가 인수하여 삼양모방주식회사로 출범하였다 (소순열·원용찬 2003, 101-102쪽).

66) 당시 2,3개 도시만이 공업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川畚彰武 1934, 88쪽). 이 공장지대는 1940년 전주 제2차 구역변경에 포함된다.

고착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근대 전주 경제구조의 식민지적 유산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현재 전주는 첨단 탄소산업도시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다. ‘탄소산업은 향후 전주의 100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장부지 마련, 인력양성, R&D, 기업 유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이 취약한 지역에 큰 공장이 들어서면 경제구조가 변한다.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생산 및 수출구조도 변하며, 관련산업도 발달한다.

그간 전주에는 많은 도시상(都市像)이 등장했다. ‘생물산업의 메카’, ‘영상산업의 수도’, ‘디지털도시’, ‘IT도시’, ‘첨단영상산업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한스타일도시’ 등이 그렇다. 아직 전주 도시상은 정리되지 않아 보인다. 도시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진양명숙, 2007).

그러나 한 지역의 경제구조의 변화는 단기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주 소비도시의 형성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녔다. 전주가 첨단산업만을 쫓다 자칫 지역의 역사적이고 내재적인 자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도시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외피일 뿐, 첨단산업도시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간 전주는 일본 가나자와시를 벤치마킹하여 전통문화도시를 구상해 왔다.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 측면에서 가나자와시를 모델로 한 전주한옥마을을 조성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이 500만이라고 하니 이는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가 진정으로 가나자와시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경제발전과정이다. 가나자와시는 전통적인 직물업을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향토 산지기구 형성과 관련시켜 이를 발전시키고 염색업, 금융산업, 기계 등의 관련 산업을 육성시켰다. 그 결과 가나자와시에 중견 중소기업과 기업의 본사 기능이 집적되고, 동시에 금융, 상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도 집적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전통문화와 자연을 중요시하는 시민 의식이 높아져,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 재래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일제강점기 재래성에 기반한 전통산업이 쇠퇴하지 않고, 발전해 갔던 전주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2003.
- 김민숙, 『일제시대의 산업별 인구분포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1930년대를 기준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2.
- 김민영, 「군산지역경제 100년-전개과정, 성격, 전망-」,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 제16집, 1997.12.
- 김영정, 「일제시대의 도시성장-군산시의 사례」, 『한국사회학』, 제30권 제1호, 1996.
- 김영정 외,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2006.
-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5호, 2003.3.
- 박선희, 『전주의 금융·상업공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2003.8.
- 박섭·장지용편, 『부산의 기업과 기업자 단체, 1900 ~ 1945』, 해남, 2010.
- 소순열, 「지역구조·지역문제·지역개발」, 『호남사회연구』, 제2집, 1995.
- 소순열·주봉규, 『근대 지역농업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96.
-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2003.
- 손정목, 「지방도시개발의 의의와 고민-전주, 군산, 이리시를 돌아보고」, 『지방행정』, 14-144, 1965.
-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96.
-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89.
-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 이헌창, 「서울경제의 변화」,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 전주문화재단, 『제1권 일제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2007.
-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상공60년사』, 1995.
-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1964.
- 전주시·전주부사 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 2009.

진양명숙, 「문화도시 기획의 의미와 해석: ‘전주전통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2007.

최낙필, 『지방경제의 이해』, 박영사, 2003.

허수열, 「1930년대 군수 공업화정책과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 차기벽외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허정도,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 마산』, 신서원, 2005.

홍성찬 외,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2006.

홍승권 외, 『일제강점하 부산의 지역개발과 도시문화』, 선인, 2009.

阿部薫編, 『朝鮮都邑大觀』, 民衆時論社, 1937.

福島士朗 編, 『李朝の全州』, 1909.

善生永助, 「朝鮮地方の都邑工業地帶化」, 『拓植獎勵館季報』, 第1卷第3號, 1939.

小林英夫, 「一九三〇年代朝鮮‘工業化’政策の展開過程」, 『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集, 1967.

勝部眞人編, 『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外来と在来』, 清文堂, 2010.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1917.

宇津木初三郎,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 1928.

全羅北道, 『農業統計』, 1938.

全羅北道, 『全羅北道道勢一斑』, 1931, 1938.

全羅北道, 『全羅北道要覽』, 1927, 1928, 1931, 1933, 1936.

全羅北道, 『全羅北道統計年報』, 1914.

全北日日新聞社, 『全羅北道案内』, 1914

全北日報社, 『全北案内』, 1933.

全州府, 『全州府勢一斑』, 1941.

全州府 編, 『全州府史』, 1943.

全州商工會議所, 『商工の全州』, 1938.

帝國公民教育協會編, 市町村別日本國勢總覽, 下卷, 帝國公民教育協會, 193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년도.

朝鮮總督府, 『市街地の商圈』, 1925.

朝鮮總督府,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查報告』, 1933.

朝鮮總督府全羅北道, 『大正五年朝鮮總督府全羅北道統計年報』, 1918. 조선

川合彰武, 『朝鮮工業の現段階』, 東洋經濟新報社, 1941.

坂本悠一・木村建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

『群山日報』, 『東亞日報』, 『毎日申報』, 『中鮮日報』,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종합토론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에 대한 토론문

원용찬*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경제는 당시의 여러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의 실시, 장시의 증가, 금속화폐의 유통, 통공발매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삼아 성장하였고 또 지방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다.

우선 전주의 중심 시장권과 연결되는 전라도 전체의 시장은 처음 개설되는 까닭에 장시의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여러 논의를 촉발시켰다.

전주 시장은 화폐 주조와 유통이 실험될 정도로 커다란 규모의 시장권을 형성하였다. 특히 농업의 잉여생산물, 인구수와 교역물품, 교역 장소, 상설점 설치 등의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전국의 물산이 집중되는 중심적 시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전주는 대형 거점장으로서 일본과 연결의 수입품들이 반입되었고 책문(柵門) 무역을 하는 공인(貢人)과 사상들이 수입품을 들여오고 이것이 다시 장시를 통해 소장(小場)까지 흘러 들어가는 원격지 교역의 중심이었다.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은 발제문과 지역의 각종 연구자료에서 보듯이, 전주는 원격지교역이 촉진되어 중국과 일본 상품과 여상(旅商)들이 몰려들어 온갖 물품이 넘쳐나며 국중(國中)의 시장이라 불릴 만 하였다.

이번 발제문은 전체적으로 전라도 지역의 장시 설립과 확산, 전주 지역의 장시발달과 시장권 형성, 주요 생산물의 상품화와 유통 확대를 면밀한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 전주 시장과 유통망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발제문의 목차와 연결지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이어 몇 가지 경제사적 사실들을 이론적 작업들과 비교하여 조선시대 경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 삼고자 한다.

1) 전라도 장시의 변동과 원인들

* 전북대학교 교수

전라도의 장시는 1770년에 216개, 1808년 214개, 1830년 188개로 줄어들었다. 1909년에는 전체 장시가 849개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하여 전라도의 장시도 전체 17.6%인 149개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것은 삼남지방 중에서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현격하였는데 각 지방 중심지에서 상설시장이 발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거듭된 반봉건적 농민운동과 자연재해 및 역병 등으로 초래된 인구의 감소와 사회경제적 혼란에 따른 농촌경제의 파쇄에도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전라도 지역은 물자가 집중되었던 만큼 그에 따른 수탈도 극심하여 참예한 계급적 대립으로 농민항쟁도 많았던 곳이다. 1862년의 농민항쟁 동안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략 70여 곳에서 봉기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상도의 18군데, 충청도의 12군데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이며 전라도의 전체 군현수(54개)에 대비해 볼 때 발생 집중도가 대단히 높았다. 이러한 항쟁과 더불어 홍수, 한발, 전염병 등으로 인한 인구수의 감소도 지방 장시가 줄어드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1>의 전라도 인구수와 대비해 보면 18세기에 인구와 장시의 수가 비례하면서 상호 증가하다가 1837년에 급격한 인구격감과 함께 19세기에 걸쳐 하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시 숫자의 쇠락도 동반하고 있다.

<표 1> 전라도의 호구와 인구수의 변천¹⁾

연 대	호구수	인구수	연 대	호구수	인구수
태종 4년(1404)	15,703	39,151	헌종 3년(1837)	264,102	1,016,744
인조 26년(1648)	122,659	431,837	철종 3년(1852)	272,567	1,068,171
효종 8년(1657)	159,496	522,033	고종 1년(1864)	260,982	996,814
숙종 4년(1678)	256,158	1,000,004	광무 8년(1904)	전남 124,310	490,054
숙종 43년(1717)	285,024	1,101,641		전북 10,835	440,901
영조 2년(1726)	281,554	1,105,249	1923년	전남 336,662	1,967,288
정조 1년(1777)	315,073	1,189,778		전북 234,052	1,225,606
정조 10년(1786)	318,417	1,221,277	1930년		3,835,951
순조 7년(1807)	320,990	1,251,069	1935년	807,034	4,115,582

1) 『韓國近代道誌 20：朝鮮湖南誌』, pp.4-5.

장시의 성쇠는 중국 전통시장을 연구하였던 스킨너(G.W. Skinner)의 가설대로 인구밀도의 증가와 상품 경제화의 진전이 중요한 요소인데 당시 인구의 실제적 감소에 따른 부진한 수요기반이 급격한 시장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요건과 더불어 시장의 양적 변화는 내부의 질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 역시 중심 시장권의 형성과 네트워크 발생에 따른 주변부 시장의 흡수, 유사한 장세(場勢)와 장날 시장의 상호 통합 등에 따라 시장의 변동이 내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전주시장에서 거래되던 특산물과 생산작물

의식주의 필수적 요소인 직물류 역시 장시에서 주된 거래물품이었다. 직물류의 작물 재배는 어느 정도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었다. 『근민요람』의 “我國兩西之紬 北關東關之麻 布 湖嶺之綿布 西湖之苧布 皆足爲民產”에 의하면 황해도와 평안도는 명주가, 관동과 관북 지방은 삼베가, 호남과 영남지방은 면포가, 호서지방은 저포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호남지방 역시 면작지대로서 농민 대부분이 면업에 종사하면서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면직물을 생산하고 각종 공부(貢賦)에 충당하였으며 상품유통에서 지배적인 교환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명주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삼베와 모시는 여름철의 의류와 상복 등으로 소용되었기에 면포는 방한 의복과 더불어 일반 서민층에서 광범위하게 소용되는 소재였다. 또한 저마(苧麻, 모시풀)의 산지는 1902년경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전주, 순창, 정읍, 고부, 태인, 김구, 부안이며 관외(管外)에서는 전남에 속한 장성, 광주 등의 각 군이며 그 중 태인과 김구의 산물이 줄기가 길고 품질이 가량(佳良)하였다.” 저마(苧麻)는 전라도에서 재배되고 한산을 중심으로 충남에서 저포로 직조되는 지역적 분업단계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명주는 가장 많이 생산되어 유통된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지방이었으며 전라도에서는 후주(厚紬)가 특별하여 가격도 2배 이상이나 되었다(湖南羅州人亦能織厚紬價培常品, 『임원경제지』, 展功志).

17세기 초에 일본에서 전래된 연초는 약초에서 기호품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 소비지를 갖게 되었다. 연초의 가격도 점차 등귀함에 따라 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해 곡식을 심어야 할 비옥한 토지가 연초재배지로 침식당하여 남초전(南草田)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5년(1729년)에도 “남초(南草)는 한 가지 하찮은 물건으로서 빈객(賓客)을 대

접하는 것도 아닌데, 기름진 땅과 비옥한 밭들이 모두 그로 손해를 받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영조 8년(1732) 『승정원 일기』에서 부승지 이귀휴(副承旨 李龜休)도 전북의 장수와 진안에도 한 지역의 전체 토지가 남초전이 되었다고 남초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결국 이주익(李周翊)의 상소로 인해 승지 이귀휴가 거듭 청했기 때문에 삼남(三南)의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양전(良田)에다 남초(南草)를 심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연초의 재배는 생강, 모시, 고구마 등과 함께 농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이었다.

조선후기 도시 근교에서 재배되던 채소도 상업성이 높았다. 18세기 이후 상업도시들이 형성되고 발전함에 따라 도시 주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채소 재배가 활발하였다. 시장성을 고려하여 재배되던 것으로 배추·파·마늘·오이 등의 채소와 고구마, 생강, 인삼, 지황(地黃) 등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작물의 재배는 서울, 개성, 평양, 수원, 전주 등의 도시 주변에서 발달하였다. 생강은 다년생 초본으로 고온다습을 좋아하는 채소로서 특유의 향기와 매운 맛이 나며 한방재료와 향신료로 각광을 받았다. 『임원경제지』(倪圭志 八域物產 總論)에서 보듯이 전주에는 생강과 마늘이 가장 넉넉하였으며 전국에서 생강은 모두가 이곳에서 흘러넘칠 정도로 대단하였다(全州爲監司所治 商賈所聚 百貨走集 薑蒜最饒 今域中用薑 皆全之流溢也).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진안의 담배밭(煙田)과 더불어 전주의 생강밭(薑田)은 나라 안에서 제일이며 부자들이 이익을 얻는 자원으로 치고 있다.

조선초기에서도 생강은 전주·익산·고부·만경·금구·정읍·옥구·태인·남원·임실 등 전북지역에 편재하여 생산되었으며, 후기에 이르면 가공된 식료로서 생강을 꿀이나 설탕 등에 조려서 만든 정과(正果)가 익산·고창·정읍·용담·여산 등지에서 생산되어 진상되고, 산강(酸薑)·건강(乾薑)으로 진공(進貢)되기도 하였다. 중세유럽 말기에 부피가 작은 후추가 원격지 교역의 대상물이 되었듯이 생강 역시 이동하기 편리한 향신료로서 원거리의 대상품목이 되면서 동시에 높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래물품이었다. 그 밖에 전북지역의 장시에서 거래된 과물(果物)로서 감[柿]은 정읍·고산·태인·고창·남원·용담·운봉·장수 등 비교적 산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감 역시 자연상태의 조홍시(早紅柿), 생홍시(生紅柿)에서부터 가공품인 건시(乾柿, 곱감), 준시(蹲柿) 등으로 수집되어 진공되었다.

3) 전라도 지역의 장시 발생의 기원, 그리고 장시 설립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전라도 지역의 장시는 칼 폴라니(K.Polanyi)의 호혜, 재분배, 시장교환이라는 세 가지 경제통합 패턴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경제는 작은 재정을 유지하면서 방대한 환곡을 비축하였을 정도로 중앙집권의 재분배 통합기제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18세기 조선왕조는 성리학적 안민이념의 직접적 산물이었고 여기서 건설된 국가적 재분배의 도덕경제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전라도의 장시 개설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결국 국가의 재분배 안정 시스템이 시장통합 형태와 혼합되거나 이행하는 과정의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시장의 형성은 A.스미스의 명제대로 선천적인 교환성향에 근거하고 인간의 교역본성과 가장 공명하는 제도는 아니었다. 시장은 인간의 내적 본능에 발로한 제도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는 것도 전라도 시장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에서도 볼 수 있다. 시장은 외국 사례의 연구에서 보듯이 기근, 역병, 외침, 내전 등의 급박한 전환기에서 전통적 재분배 체제가 대응할 수 없을 때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된다. 전라도 장시를 둘러싼 허용은 상업과 말리(末利)의 추구, 도둑의 극성, 투기 등의 명분과 함께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은 조선시대 재분배체제의 전환과 집권국가 성격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 볼 수 있다.

4) 전주 시장에서 화폐유통의 실험 문제

칼 폴라니는 화폐, 시장, 교역은 각각 별도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화폐가 있는 곳에 시장과 교역이 있고 또 역으로 시장과 교역이 있는 곳에 화폐가 있다”는 시장경제의 삼원소적 결합(catallactic triad)과 시장신화를 거부한다.

전주에서 화폐가 주조되어 실험했던 것은 시장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시장교환과 화폐유통의 결합 관계는 무관하다. 흔히들 화폐의 출현을 교환수단의 편리와 매개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주에서 동전유통은 현물수납과 재정 확보 시스템 상황에서 화폐가 얼마나 조세수취와 재정운반 수단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실험했던 것이며, 특히 지방관아 재정 확보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상권」에 대한 토론문

홍성덕*

도시들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개항장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전통도시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개항도시와는 달리 전통도시는 도시계획과 발전이라는 근대화 관점이 아닌 ‘도시사(都市史)’적 시각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항도시는 ‘개항’을 계기로 형성된 조계지 중심으로부터 ‘도시화’를 설명해 나가지만, 전통도시는 일제 강점 이후 점령(?)된 상황 속에서 인위적·무차별적 상황들이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전주’의 도시사적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도시계획에 대한 장명수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최진성의 도시공간(전주신사, 종교경관 등)연구와 박선희의 금융·상업공간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일제 강점기 전주지역의 상업활동과 상업공간의 존재양상을 살펴본 것으로 일제 강점기 전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전통도시’의 근대 도시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산고장으로서의 전주의 명성이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발표자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토론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의견을 정리하였다.

1) 일제 강점기 직후 전주의 상업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상업을 기반으로 확장,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난부』(전북일일신문사, 1912)에 의하면, 전주는 곡류의 집산 매매지로서의 성격이 가장 컸으며 이외에도 목면, 마포, 종이, 연초, 석유, 잡화 등의 거래액이 많았으며, 선자, 단선, 대그릇, 주렴 등의 죽세공과 과자, 문갑, 제지, 지세공, 칠기, 견포, 면포 등의 직물이나 공예품도 있었다. 이외에도 양잠의 열기가 더해가면서 양잠업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 전주대학교 교수

대해 일본인들의 상업품목은 석유, 金巾(東洋木)이 첫 번째였으며, 다음으로는 일본제 성냥(燐寸), 잡화였으며, 주류, 약품 등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상업재편의 관점에서 공간을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업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본정통과 대정통은 조선시대 전주부성 내의 수공업품의 상업시장 등과 인접해 있으므로, 도심부의 상업과 상업공간의 변화는 전주부성 내의 상업과 상호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2) 공간의 이중구조와 관련하여, 근대적 상업공간과 전통적 시장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분류는 조선시대에도 일정정도 형성되었다. 전통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1차 농산물)과 부성 내의 취급 품목(2차 가공품)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강점기 이후 일본 상업자본의 등장으로 근대화된 상품이 도시 상업공간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이중구조화가 강화된 것이지 형성된 것은 아니다.

3) 상업공간 주체로서의 일본인과 조선인, 중국인의 문제는 상업의 대상 즉 소비자와 관련이 있다. 강점기 초 일본인 상업의 대상은 일본인 뿐 아니라 주로 조선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이 증가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상업 소비자의 변화에 의한 상권의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점기 초 『금난부』에는 ‘장래 日鮮공동사업의 발달’에 주목하고 있으며, 농공은행의 대출액 역시 주 대상자는 조선인 대지주들이 많았으며, 조선인 대지주들이 농업자본이외에 상업자본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1928년 『조선인 회사, 대상점 사전』에는 전주에 42개의 업체가 소개되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본정통과 대정통에 위치해 있었다. 대정통과 본정통을 상업주체로서 구분하는 것 역시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남부시장의 보통시장화와 시장의 변화를 분석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공설시장이다. 조선말기 동문시장과 북문시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전주부의 시장은 서문 밖 시장과 남문 밖 시장으로 집중된다. 발표자도 지적하였듯이 1923년 서문 밖 시장이 남문 밖 시장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그 직전인 1922년 객사 부근에 공설시장이 설치되었다. 공설시장은 1928년 4월 폐지되고 1929년 남문시장으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설시

장이 폐지되자 전주 사람들의 비난이 높아졌고(1928년 4월 20일자 동아), 9월에는 공설시장 폐지가 아니라 이전설로 표현되었으며, 1928년 11월 25일 공설시장 이전이 허가되었다. 1928년 12월 공설시장이 대화정으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중이라는 신문기사가 있다. 이는 종전에 서문 밖 시장을 통합한 전주 보통시장 1호로서의 남부시장에 공설시장이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건물을 지었다는 것으로 보면 남부시장의 일부가 건물에 상주하는 상설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이 통합운영된 것을 의미한다. 공설시장의 통합이 기존 공설시장 내의 상인을 위한 조치인지, 남부시장에 공설시장의 기능을 부여한 것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5) 일제 강점기 이후 전주의 도심 공간의 축은 본정통⇒대정통⇒소화정으로 이동한다. 본정통이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은 성벽이 허물어진 이후 기존에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서문밖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벽길이 뚫리면서 서문을 중심으로 남문으로 통하는 주된 길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에 경편철도역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경편철도역이 있었던 태평동(현 SK뷰아파트 비빔밥공원 부근)에서 곧장 남으로 이어지는 길이 본정통을 통해서 남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후반 대정통으로 상권의 중심이 이어진 것은 그 길이 전라감영의 뒷길이며, 서문과 동문을 일직선으로 이어주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이 가로망의 축이었기 때문이다. 본정과 대정정에 조선인 거주자가 적은 것은 강점기 이전 그 지역은 조선인의 주거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업의 변화에 의해서 그나마 조선인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 또한 상업공간의 변화는 이는 일본인들의 배후 주거지의 형성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대정통 상권의 발달은 그 배후 주거지로서 고사동, 대화정, 풍남정 등의 일본인 유입인구 증가가 그런 상황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6) 남부시장의 기능과 관련하여 어물경매시장과 어채시장, 우시장 등에 대한 분석도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929년 어물경매시장이 설치되고, 1930년 어채시장이 인가되어 주주를 모집하는 등 시장변화와 근대 상업의 통제 등에 의해 남부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꾸준히 변화하였을 것을 생각된다.

「1950년대 이후 전주 시장의 변화양상」에 대한 토론문

함한희*

이 논문은 전주 남부시장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변화를 시대 순으로 잘 정리·분석하였다. 시장을 통시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살피고자 했다. 시장을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기록된 자료는 신문에서 다룬 단편적인 기사나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업형태에 따른 매출 통계 정도가 전부이다. 시장의 상인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과거의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상가분포나 현황 정도의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시장의 변천사를 쓰는 것은 일일이 시장상인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증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체계적인 일차자료가 있다는 것을 포기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연구자는 시장의 변화를 알아볼 것인가? 아마도 발로 뛰면서 수집해야 하는 구술 자료와 흩어져 있는 문서를 모아보는 일이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연구자가 스스로 체계화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이 배가된다. 그래서 전주시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화시킨 발표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가 아래에 지적하는 사안은 발표자의 창의적인 논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각 시대의 ‘양상 (모습 또는 모양)’을 드러내서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즉 시대적 특징들을 열거함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일제시기에는 정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바뀌고, 1950년대 이후에는 지역 상권과 남부시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살펴서 시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

* 전북대학교 교수

한 기능과 역할을 부각시켰다. 1970년대에는 유통의 근대화로 인해서 상가가 민영화되었는 점, 1990년대 이후 전통시장이 쇠락하고, 그 후에 재활성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장의 변천사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변화상만을 가지고도 우리들은 남부시장의 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역시 이 발표문은 변화의 ‘양상’에 머물러 있어서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변화의 실체와 그것을 유발시킨 요인을 알아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본다. 양상을 실체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대를 관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한 힘/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상인과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이자 유통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상인과 소비자의 역동적인 관계망을 살피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축이 빠지면 시장의 실체는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형국이 된다.

소비자의 축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도 충분히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소비자의 움직임을 제외하면 시장의 온전한 모습을 그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각 장마다 ‘시장과 소비자의 관계’를 보충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본다.

- ① 정기시장에서 상설시장-도시적인 소비패턴의 초기단계를 보여줌, 도시인의 증가와 도시생활의 정착.
- ② 지역상권과 연동된 시장거래 → 도시적인 소비 패턴의 정착 및 확장을 보여줌.
- ③ 유통근대화와 시장 민영화 → 새로운 소비 패턴의 등장
- ④ 전통시장의 쇠락과 재활성화 →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 시장 기능의 다변화

둘째, 시대마다의 특징을 살피려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을 토대로 해서 전과 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지역의 상권과 연동된 시장거래’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즉 전주시내 상점들이 시장에서 원자재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다가 가공해서 팔거나 소매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소비자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은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거래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토론문

김민영*

1.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2002년 5월 전주역사박물관 개관으로부터 11년, 2005년 12월 ‘전주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를 시작으로 15번째를 맞이하는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그간 여러 주제 가운데 특히 이번에는 ‘전주의 시장과 경제’로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에 걸친 시기의 시장과 유통망, 상권, 상인의 검토 가운데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전주학 발전은 물론 관련 학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소감과 함께 특히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변화’에 대한 논평에 대신하여 향후의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상권, 상인

1) 이 시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도 및 작은 지역단위의 사례, 개설서 등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연구사에 대한 빠짐없는 소개와 함께 면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특히 시장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요 생산물의 상품화와 유통의 확대 부분 가운데 종이, 부채, 생강, 약재 등 특정 상품 분석으로 발전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시기 유통로와 관련하여 포구와 도로의 역할에 대한 구

* 군산대학교 교수

체적인 연구 또한 향후의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3대 약령시라는 명성을 뒷받침할만한 연구 또한 과제라 생각된다.

3) 일제강점기 이후 연구에서 구술실록을 참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주지역의 상업 활동과 상업공간의 존재양상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활동사를 포함하여 보다 미시적으로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또한 이 시기 유통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철도운송 등과 관련해서는 기종점과 물동량 분석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

5) 당시 전주의 상업 분석과 관련해서는 ‘전주상공회의소’ 자료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특히 당시 주요 ‘상인’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전주지역 일본인과 중국인들의 동향에 대한 검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3.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변화

1) 지방도시 연구에서 자료의 제약, 종합적이고 다양한 연구 수준의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부조적 수법으로나마 근대 전주경제구조의 변화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하는 연구로 이해된다(다만 군산의 경우 근래 2권의 발간자료가 있음, 김종수 외, 『개항 110년, 해륙의 도시 군산의 과거와 미래』(2009)와 김종수 외, 『새만금도시 군산의 역사와 삶』(2012) 참조).

2)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재래성을 기반으로 변용해가는 경제구조 파악’이라는 연구경향 제시 역시 신선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3) 그러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전주를 둘러싼 행정구역의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작업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각 시기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검토결과가 가져다주는 연구제약은 불가피하며, 이를 극복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통계와 관련하여 1930년 전주, 익산, 군산의 인구통계 관련 <표 3>과 식민시대 전주의 직업구성에 대한 <표 5>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특히 군산의 경우 1914년부터 부(府)였으므로 옥구군이 빠져있음에 주의 필요).

5) 전주의 상업공간의 대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자가 이해하는 데에는 동감하나, 보다 설득적이기 위해서는 당시 전주의 도시계획 및 공간상의 이중구조, 재래시장과 신업태 간의 민족별 주요 소비자층의 차이, 일상 수요품의 차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반면 조선인 상인들은 주로 조선인의 일상 수요품의 전통적인 유통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의 상업공간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눠 대립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는 옳지 않다. 시장은 공간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상품교환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사회구조라 할 수 있다. 전주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각기 다른 핵심적인 상품 교환의 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6) 발표자도 아래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라 생각된다.
“조선인의 가내공업이 얼마나 상품생산화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공장공업화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분명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4. 향후의 과제

1)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는 물론 이후 현대에 이르러 ‘전주의 시장과 경제’가 서로 어떻게 단절되고 연속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중요할 것이며, 특히 전주 인근을 넘어 전북지역 및 한국 전체사적인 측면에서의 상호 연관에 대한 시각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전주학’과 관련하여 근래 군산에서도 ‘제3회 군산학 강좌’를 마쳤으며 금년 후반기부터 제4회 강좌가 진행 예정이고,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학술 세미나 역시 정례화가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서울학’, ‘부산학’, ‘대구경북학’, ‘인천학’, ‘제주학’, ‘전북학’, ‘충남학’, ‘경남학’, ‘호남학’ 등은 물론, 근래에는 천안학이 대학 강좌로 개설된 이후 인천학, 용인학, 수원학, 아산학, 홍성학, 김해학, 안성학 등 여러 자치단체가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학의 성과공유와 상호교류는 물론 방법론적인 검토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